의정부문학 • 1994년 봄 제3호 • 1994년 4월 1일 발행 • 의정부문인협회 발행

의정부문학

1994년 봄 제3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난해한 수학을 일상생활 속의 논리로 풀어 쓴 두뇌발달 지침서!

● 신국판/362쪽/값 5,500원

도서출판 한누리 한누리미디어
서울·중구 을지로3가 282-5 삼성빌딩 501호
전화 268-4514, 4524 FAX 268-4524

토탈뷰티전문회사
(주)다솜화장품

가·정·용·피·부·관·리·시·스·템

Belle & Beau
베랜보우·쥬빌라티

보우는 새로운 기초화장법을 창조합니다!

술이 탄생시킨 가정용 피부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용해 피부를 입체적으로 개선합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잔주름·기미·주근깨·잡티를 개선합니다.

Belle & Beau
베랜보우

베랜보우가 탄생시킨 또 하나의 최첨단 피부관리시스템

■ 인공지능 컴퓨터가 내장된 최첨단 피부관리기기입니다.
■ 이온 화장법 이외에 건강관리시스템이 첨가돼 있습니다.
■ 한번에 두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틀에 한번 사용으로 이제 당신은 건강미인입니다.

Jubilate
쥬빌라티

토·탈·뷰·티·전·문·회·사

(주)다솜화장품
DASOM COSMETICS INC.

본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자보빌딩 4층
TEL : (02)786-1601~6 FAX : (02)761-0793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 의정부1동 188-3 동남빌딩 4층
TEL : (0351)45-6016~8

의정부문학

1994년 봄 제3호

● 회원 및 의정부문학상 작품모집 안내/200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연혁/253
● 회원 주소록/254 ● 편집후기/256

● 발간사

지부장 **김성년** 문인 형제들에게 18

● 초대수필

이당재 북한산에 오르니 116

● 시의 뜨락

김경식 농촌의 파수꾼 외4편 20
김성년 당신은 듣습니까 외4편 23
박영환 工團日誌 · 32 외2편 29
백인희 그리움 외4편 33
성용군 素 望 외4편 39
신성수 동대문에서 외4편 41
梁順二 蘭 외1편 46
이도영 겨울밤 외4편 49
이순옥 곶 감 57
임경자 역 경 외3편 59
임영희 꽃의 기원 외4편 63
임현숙 겨울의 탐라 외2편 69
전정열 마음 속에 내리는 비 외3편 73
현지원 빈 가슴의 노래 외2편 77
황영애 첫 나들이 탄생 외1편 83

● 단편소설

강삼미 잠 못 이루는 밤 86
김안기 열 루 92
배남규 향 수 108

• 표지화 – 김영희

• 1964~67 慶熙大學校 文理大 國文科 修了
• 1989~90 弘益大學校 美術大學校 教育院 卒業
• 1987~90 국제예술대전(出品)
• 1989 '89 現代作家 作品展 出品(세종문화회관)
• 1991 1回 개인展 (강남 혜림화랑)
• 月刊 문예사조 초대석 出品
• 1992 韓·中 국제교류전 초대出品 (장춘역사 박물관 소장)
• 1993 2回개인展 (의정부상설전시관)
• 1994 現 국제예술대전 초대작가
• 1994 現 青朝会 美術会員

회곡초대전

成東珉 土偶祭 176

작품 해설

金南石 이미지의 형성으로서의 작품성분석 192

●수필

강경애 中年의 자리 120
金英希 버려진 헌 여름 구두 123
배동순 베로니카 126
백일영 아주버님께 129
선우영자 서울 탈출기 132
양정숙 오 해 135
이성녀 농촌 총각 장가가는 날 139
임영희 온누리가 풍요로운 이 좋은 밤에 143

●동시

양정숙 내 동생 146
임금숙 풍 선 외4편 147

●동화

김영순 외둥이 152

●특별기고

김 진 내 친구에게 160

●꽁트

강경애 핑크 레이디 165
강삼미 행복 만들기 170

제8회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 입상작 모음

●입상작 명단 202

●운문부●

현지원 어머니 203
이순옥 어머니 206
백인희 어머니 207
백인희 고 향 208
황영애 나의 살던 고향은 209

●산문부●

윤명희 결혼 이야기 210
백일영 결혼 이야기 211
김문희 어린 날이 추억 214
박명화 결혼 이야기 218
박금숙 아,초록빛 내 고향 221
이경재 고 향 224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작 모음

최미미 엑스포 지름길 227
엄혜림 버려지는 풍부한 지원 228
백상준 하늘이 푸른 우리 고장 230
신효정 넓고 푸른 마음으로… 232
김민교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 234
홍수일 잃어버린 산 236
이대웅 문 장 대 238
김태현 재활용을 게을리하는 이들에게 239
전진영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고장 240
양세라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243
김서진 여름 여행 246
한경숙 수학 여행 249
조남선 설악이 솟는다 252

축

발 간

의정부문학 제3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예총 의정부지부

지부장	류후선	의정부시 의정부1동 190－16	Ⓣ 43－7428
부지부장	황석자	의정부1동 159－10	Ⓣ 41－7773
부지부장	오혜옥	의정부4동 229－91	Ⓣ 874－3918
부지부장	이미숙	의정부1동 207－1	Ⓣ 42－6813
감 사	송인혁	서울•노원구 상계동 주공A 1006동 402호	Ⓣ 930－2823
감 사	고순호	의정부1동 123	Ⓣ 43-3323
사무국장	김철홍	의정부1동 190－16	Ⓣ 846－6226

사진협회	지 부 장 양승조	호원동 226－115	Ⓣ 872－7111
음악협회	지 부 장 오혜옥	호원동 우성2차 A 202－1405	
국악협회	지 부 장 황석자	의정부1동 159－10	Ⓣ 41－7773
미술협회	지 부 장 최운석	호원동 226 15/4	Ⓣ 872－7316
무용협회	지 부 장 이미숙	의정부1동 207－1	Ⓣ 42－6813

祝

의정부문학

제3집 발간

한국문인협회 경기도지회

지회장	김진식
부지회장	김남웅
	김건중
	임병호
사무국장	박효석

고양지부장	장	석	향
과천지부장	석	용	원
광명지부장	김	남	웅
구리지부장	한	상	언
부천지부장	최	은	휴
성남지부장	김	건	중
송탄지부장	양	관	수
수원지부장	임	병	호
시흥지부장	김	연	식

안산지부장	전	병	택
안성지부장	김	유	신
안양지부장	김	대	규
오산지부장	조	석	구
의정부지부장	김	성	년
파주지부장	이	동	륜
평택지부장	김	창	문
화성지부장	홍	신	선

의정부문학

1994년 봄 제3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문인 형제들에게

바른 말 고운 목소리는 언제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어둠에 갇혀 추운 겨울 밤을 지새울지라도
우리는 항상 해돋는 동녘을 바라보며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들이 가꾸어야 할 대지가 검은 물결에 상처로 얼룩질지라도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할 문학의 텃밭에 꽃씨를 묻고 그것이 우리들의
쉬임 없는 기원과 동경으로 향기 그윽한 꽃동산이 될 수 있도록……
목 마른 자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목 마름으로 약한 자에게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 하여 한줄기 빛으로 이웃을 밝혀야 하는 일이다.
수정처럼 맑고 아름다운 마음이면 더욱 좋다. 삶의 깊이에 내재하는
심연의 소리를 가꾸기 위하여 멀고도 머나먼 고독의 길을 가슴 비벼 태우며
외롭고도 차가운 긴긴 밤을 견디어야 한다. 우리들 가난한 마음에
사랑이 깃든 영혼의 노래를 나누어 갖기 위하여……
가진 것이 없어도 좋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 하나
돈으로 팔 수 없는 순수한 영혼 하나 있으면 그만이다.
문학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문학 될 수 있도록 생명 속에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말과 행동의 일치로 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다.
문학은 삶의 마지막 보루이다. 그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 존재로 하여 우리가 물욕적인 그릇된 삶을 반성하여야 하고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여 심성을 맑게 하므로 상실되어 가는 인간성 회복으로
삶의 가치를 드높게 하는 것이다.
문학을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슬픈 멍에를 지고 가야 할 길이
비록 멀고도 험한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우리 서로 어깨 동무 하고 의지하여 천천히
그리고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지 부 장　김　성　년

시의 뜨락

(가나다 순)

- 김경식/농촌의 파수꾼 외4편
- 김성년/당신은 듣습니까 외4편
- 박영환/工團日誌 · 32 외2편
- 백인희/그리움 외4편
- 성용군/소 망
- 신성수/동대문에서 외1편
- 양순이/蘭 외1편
- 이도영/겨울 밤 외4편
- 이순옥/곶 감
- 임경자/역 경 외3편
- 임영희/꽃의 기원 외4편
- 임현숙/겨울의 탐라 외2편
- 전정열/마음 속에 내리는 비 외3편
- 현지원/빈 가슴의 노래 외2편
- 황영애/첫 나들이 탄생 외1편

김 경 식

농촌의 파수꾼 외 4 편

- 1994. 3월 월간『순수문학』신인상 당선으로 문단 데뷔
- 자유시협의정부지부이사
- 문협의정부지부 회원
- 시집《떠도는 자의 우편번호》《가고 없는 세월》

감나무 가지에 이름 모를 새가 푹 익은 연시를 정신없이 쪼아 댄다. 사람들이 떠나고 없는 시골 빈 집터에 새들이 지저귀며 달콤한 홍시를 즐긴다. 세월은 가고 함께 할 벗은 떠나고 없는 텅빈 산촌 농가엔 백발의 노인만 곰방대 문 채 시름에 쌓여 긴 한숨만 내쉬네. 텅빈 농촌 파수꾼은 허리를 구부린 채 설움을 담배 연기 속에 담아 한숨을 날린다.

겨울 이방인

진실을 잊은 채 엄동설한에 눈길 헤매인다. 허영에 들뜬 도시인 네온싸인 불빛따라 모여드는 불나방처럼 유혹하는 불빛에 길을 헤매인다. 비틀거리는 이방인은 화려한 불빛에 취해 비틀비틀 불나방처럼 이정표도 없는 길을 헤맨다.

난의 향기로

공해에 찌들은 도시 언저리에 한송이 난이 오염된 산소 마시며 뒤틀린 모습으로 기개를 지키려 몸부림친다.

상해된 몸으로 난의 향기를 피우려 애처롭게 떨며 향기를 잉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도 피 자

마음 속의 번뇌를 지우면 산중의 오솔길엔 살랑 살랑 솔바람이 불어온다.

장대처럼 늘어진 소나무가지에 청살모는 목이 막힌 듯 칵칵 소리를 낸다. 노을을 동반한 채 저무는 저녁 하늘엔 해도 지기 전에 초생달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도피 속에 가고 오지 않는 시차만 남긴 채 현실을 외면한 도피자는 먼 산만 바라보며 말없이 서성인다.

가고 없는 세월 3

멀어져 간 시간 속에 까까머리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지친 중년의 초상이 세월에 밀려 뒤로 뒤로만 밀려 가는데 반딧불 벗삼아 마실가던 오솔길은 간 곳 없고 가슴깊이 남은 동심은 살포시 고개 든다.

김 성 년

당신은 듣습니까 외 4 편

-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시 당선으로 문단 데뷔
- 한국자유시인협회 이사 (현)
-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회원 (현)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장 (현)
- 한글문학회 회원 (현)
- 전국 문학공무원 동우회 회원 (현)
- 계간 『인간시대』 편집위원 (현)
- 저서 시집 《따슨 가슴 하나 기다려》

당신은 듣습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실패를 거듭 거듭 껴안고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고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밤 깊어 풍랑이 두려운 나에게
시퍼런 파도 위를 걸으라 하셨으니
내 마음 마른 살을 태워
아낌 없이 던지고 나면.

당신은 어디에서 지켜 보고 계시렵니까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는 당신은.

만약에 당신께서

만약에 당신께서
포도주로 내 피를 만드셨다면
그 피를 다시 짜내어
메말라 시들어 가는 자의
생명수가 되게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께서
흙으로 내 살을 빚으셨다면
내 살을 다시 떡으로 빚어
강 건너 아이들이
배 고프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께서
내 뼈를 세우셨다면 이를 거두시고
소아마비 내 동생의 다리가 되어
마음껏 걷게도 하고 뛰어 놀게도 하십시오.

만약에 당신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주셨다면
이제는 나를 버리시고

그리운 내 어머니를 살아나게 하십시오.

모두가 당신의 사랑으로 목 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천형의 동산에서

가엾은 영혼아
누가 널더러 이 땅의 포로라 했더냐
누가 널더러 이 땅의 형벌을 감당하라 했더냐

아담이 버리고 간 능금나무 밑에
사탄의 검은 뼈를 갈아
살점마다 묻어나는 목 울음 소리

그러나 살아야지
남루한 삶의 조각들을 모아
얼어 붙은 빈 가슴이 채워질 수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내 헛된 눈물은
슬픈 꽃잎으로 시들어 허무히 흩날리고.

이 세상 누구와 정다운 말 한마디 나누었던가
이 세상 누구에게 따슨 눈물 한점 주었던가.

이 천형의 동산에서
나는 목 마르다.

작은 가슴 빈 곳에

샘 깊은 영혼의 맑은 숲속에
당신께서 쉬어 가실 작은 집 하나 있나이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여
얻은 사랑이 아니라 하옵시면
언제라도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이옵니다.

날마다 쉬임 없이 사랑으로
당신의 집 돌담길을
바람되어 다녀 가시나이까

강 건너 하늘가엔 구름 한점만 무심하나이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당신의 모습

계절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을 기다려
당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겠나이까.

작은 가슴 빈 곳에
당신의 집 하나 있나이다.

이별이 찾아 오면

어느날 당신과 나에게 이별이 찾아오면
그를 두 손으로 따스하게 맞이하십시오
님의 포곤했던 가슴도 님의 애처로운 눈물도
내 혼백에 실어 낯선 길로 떠나겠습니다.

님이여
어느 길섶 모퉁이에 버려진 땅 하나 있거든
그곳에 내 가난했던 영혼을 묻어 주십시오
싸늘한 내 살갗에 수의를 걸치지 말고
이 모습 이대로 묻어 주십시오
우리들이 어느날 서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잠든 낡은 목관위엔
못질일랑 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언제라도 당신이 그리우면
쉽게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나 떠나 있다 하여도 서러워 하지 마십시오
아지랭이 봄날에는 당신의 꽃밭에서
한마리 나비되어 저물도록 훨훨 날으고
밤이면 하늘 나라 별이 되고 달이 되어
당신의 창가에 함께 있겠습니다.

박 영 환

工團日誌 · 32 외 2 편
—— 양계장의 추억

- 문협의정부지부 시분과위원장
- 제7회 근로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수상 (1985년)
- 시집 《공단일지》
- 제2회 글길문학상 수상 (1990년)
- 안양 근로문학 동인회에서 활동 (현)

하루 일과는 힘들었지만
병아리가 들어오는 날이면
참 즐겁다.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

손뼉을 치며
어루어루 거리면
기계에서 깨어난
병아리들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오물조물 모여
나의 다리며 팔뚝이며
아랑곳 하지 않고
기어 오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병아리들.

工團日誌 · 33
—— 나비

내가 그 학교를
떠나고 난 후
너도 이 세상을
떠났지.

항상 양손을
가슴에 구부려
붙이고 킁킁거리며
잽싸게도
먹을 것을 찾아 다니던
너.

내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갈비뼈 두대가
부러졌고

정강이뼈에 금이 가
있었다고 들었다.

어떻게 그러고도
살아 있었니?

〈나경민〉이라는
너의 이름을

아이들은
아름다운
〈나비〉라고 불렀지,

— 선생님, 〈나비〉가요……

工團日誌 · 34
—— 자모회의 날

엄마가 오시면
엄마!

아버지가 오셔도
엄마!

형님이 오셔도
엄마!

동생이 와도
엄마!

선생님
말고는
모두가 엄마.

엄마만 오시는
즐거운 날.

백 인 희

그 리 움 외 4 편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쪽마루 걸터앉아
흘러가는 솜구름 보며
빛바랜 그리움을 줍는다.

어느 이르던 봄날
뽀오얀 안개 속에 안긴 산 자락에
봄이 자라 있을 것 같아
구퉁이 미어진 대 바구니 옆에 끼고
우리는 봄을 찾아 갔었지.

철썩이던 파도가 쏴—아 하니
달음질쳐 도망치면
정갱이까지 걷어 부친 다리를
어정 어정 갯벌에 묻고
고개 내민 능쟁이 찾아
엎어지고 또 엎어지며
온몸은 온통 바다가 되었지.

칡덩쿨 둘둘 말아 목에 걸고
수리조합 둑에 걸터앉아
살랑대는 물결을 바라보면
그렇게도 타고 싶던 차를 탄 듯
즐거웠었지.

봄이면 우리는 봄이 되었고
바다에선 우리는 바다가 되었고
눈알사탕 하나에도
행복했었지.

회색빛 세상살이 지칠 때면
덕지 덕지 붙어 있는 묵은 때 털어내고
세월 속에 묻혀 버린
소중한 추억을 주워담는다.
해맑은 모습의 아름다움을.

봄 이 면

잔설이 녹아내린 촉촉한 대지에
따뜻한 입김으로 잠든 생명 깨우고

나, 거기에 또 하나의 생명을
뿌리리라.

가냘픈 봄 볕이 내려와 앉아도
안개비 머리 끝에 구슬로 맺혀도
한 순간 휩쓰는 큰 바람 있어도
나 거기에 생명을 뿌리리라.

훗날에 영광이 아닐지라도
훗날에 웃음이 아닐지라도
봄이면
나 거기에 생명을 뿌리리라.

아 가 야

아가야
찬 서리
머리 위에 얹고 있는
들국화도
아름다와 하여라.

엄마가 뛰놀았던
고향의 들길도
탱자나무 울타리도
네 것이 되어다오.

아가야
대나무가
사시사철 곧고 푸른 것은
아픔까지도 사랑한
선물이란다.

아가야
행복은 큰 가슴으로
안아 들이고
아픔은
엄마 품에 전해 다오.

내 사랑
아가야!

딸

꿈을 꾸며
살포시 잠든 모습
너무 예뻐서

봉숭아 꽃물
손톱 끝에 달고 있는
하얀 손이
너무 예뻐서

집앞에 가로등
꾸벅 꾸벅 졸도록
내려다 본다.

딸아!
꿈을 꾸어라
세상에 빛이 되는
꿈을 꾸어라.

햇님도 달님도
가슴에 담고

꽃같이 향기로운
꿈을 꾸어라.

진 달 래

깎아지른 벼랑 끝에
아니 보고 못 견디게
황홀한 자태로
눈짓하는 진달래야

안락한 보금자리
얼마든지 있으련만
오신 님 못 가시게
벼랑 끝에 섰느냐

네 사랑 님 사랑
한 잔 술에
훌훌 타서
천년 만년 피고 지고
어화둥실 살아보자.

成 龍 君

素 望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먼동이 新年에 하늘과 땅에
명을 받아 밝은 땅을 지키기 위해
갑술년에 진도개는 온天地를 용솟음 치는
希望 있는 나라. 韓民族
勇氣있는 나라 韓半島에 붉은 빛을 안고
太陽이 떠오를 나라. 韓半島야……

甲戌年에 希望을 안고
뜻을 안고 힘차게 짖어댄다.
그간 먹구름에 앙금을 제치고,
요란하게 우렁차게 짖는
진도개는 물밀 듯 밀려오는
먼동을 어찌 그 누가 막으랴……

希望이 있는 나라의 아침
勇氣와 꿈을 가진 나라 내 나라. 韓半島야.
甲戌年은 언제나 용감했으니

밝은 땅 韓民族, 내 韓半島야……
오늘 아침처럼 힘차게
永遠히 힘차게 지켜주며
용감하게 짖어 줄 것이다……

신 성 수

동대문에서 외 1 편

- 93『문학세계』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 데뷔
- 자유시협 의정부 부지부장
- 시집《발성연습》
- 단국대문학상 수상

Ⅰ.
아이가 바라는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어도
월급날,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가족들과 동대문에 나갔다.

Ⅱ.
아이에게 사 줄
장난감이 가득한
약국 뒷골목.

겨울 바람은 자꾸
구석으로 밀어 넣는다.

그 앞에서 한 평짜리
가게를 놓고

낯익은 이름 같은
오뎅이며 떡볶이를
팔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부딪힌다.

그들의 동전 바구니와
내 주머니 속
지폐 한 두 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Ⅲ.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무섭다.

살기 위해서라면
최소한의 인정마저
서울은 허락하지 않는다.

깎아주는 상인의
눈을 의심하듯이

그들은 국물 한 숟갈에도
손을 휘휘 내젓는 것이다.

Ⅳ.
눈을 뜨면 나를 볼 수 없는데
눈을 감으면 보이듯이
눈을 감아야만
꿈은 보이는 것일까.

눈을 뜨고 살기엔
서울은 너무 무섭다.

Ⅴ.
그런 것이다.
暗去來 같은 것이다.

낚시 의자를 놓고
달러를 파는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서울에 살고 있다.

Ⅵ.
눈을 뜨고 살기엔
서울이 무섭다기에

지하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대문, 빠앙….

고등어의 辯

—— 모가지가 툭 떨어졌다.
몸통만 따로 남은 고등어,
핏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 ——

애비는 이렇게 가고 마는구나.
어느 大家집 제사상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식탁에 누워서

알 수 없는
그 집 식구들의 이야기거리나
되고 마는구나.

—— 시장 흙바닥에 대가리만 남았다.
생선 장수의 고무장화에
찌익 밟혀서 눈이 삐죽 튀어나왔다.

고등어. ——

애비는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번듯한 공원묘지에
점잖게도 아니고

되는 대로 삽질에 퍼 담겨서
시장 구석 쓰레기나 되고 마는구나.

—— 싱싱한 고등어가 열마리에
천 원, 천 원, 고등어. ——

애비는 그렇게 팔리고 마는구나.
백원어치 덤이 되어서
머리며 내장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늘 저녁은
고추가루와 소금에 범벅이 되어서

가긴 가는구나.
南洋 바다에,

아이야,
좋구나.

梁 順 二

蘭 외 1편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늦은 가을날
집안으로 옮겨와
거실 한 모퉁이에 자리한
蘭이
며칠 소리 없이 앓더니
수수 같은 꽃을 피웠다.

진달래빛 꽃대에
보랏빛 작은 꽃이나
들풀 향기가 사방에 번진다.

본디 이름 있었으련만
지금은 알 수 없는
蘭꽃 화분 하나 어색해 한다.

태어난 땅 어디 었나
갸웃이 숙인 목덜미에

향수가 감긴다.

죽도의 아침

섬 같은 언덕배기
조릿대에 바람이 불어
바다를 깨우고 있었다.

아이들과 강아지가 종일을 딩굴고 간
철 지난 모랫벌에는
조개껍질만 파도에 씻기우는데

지난 밤 내내 뒤채이던 파도가
고른 숨을 쉬는 새벽 네시
별들이 날려오듯 먼 바다가 반짝이면
문어통발 그득 채운 어선들이
하나 둘 포구로 돌아왔다.

뱃전을 삼킬 듯 널름대던
바다의 혓바닥 가까이
유리등 몇개로 밤을 밝히며

피곤한 몸에 지루함으로 지새웠을
소금끼 먹은 어부의 우직한 웃음이
부서져내려 방파제에 흩어지는데

굽은 부리로 어둠을 쪼으던 갈매기
水平線 未明을 가르면
바다와 하늘 갈라져 해 둥실
떠오르는 동해안 작은 포구
竹島의 아침은 선잠으로 머릴 든다.

이 도 영

겨 울 밤 외 4 편

- 제7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감사

앙상한 가지
하늘을 추녀 삼아
그 밑에
의지하여 서서는

붉게 토하고 있는
나트륨 등에
제 모습을 비추더니

의무감으로 낮에
잠깐 다녀간
해를 생각해 내고는
울먹울먹
오래 진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서히 정리하려는 거
모르는 바 아니나

체할 듯 쏟아주던
그 사랑에
가슴을 데이고 껍질도 벗겨져

그래도 단장하느라
뽑아올린 눈썹.
마중하러 하늘로 올리다가
빈 가지에 걸려
발 밑에 도로 떨어져
밟히니
이래 저래
님은 몰랐노라
핑계만 늘겠네.

즐거운 날

중 2짜리 아들 놈이
진지한 얼굴로 숙제를 한다.
다른 날은 참고서에서
후딱 베껴 가더니
잘 안 되나 보다.

등 뒤로 가서 기웃거리니
슬쩍 숨긴다
참을 수 없어 물으니
훗날 자기가 낳을 아들 딸의
이름을 짓는 거란다.

얼마나 호기심이 나는지
그 이름들이 정말 알고 싶다
저녁내 꿍꿍거리더니
이튿날 아침까지도
진통은 끝나지 않았다.

14살짜리가 낳은 새끼들이
벌써 사랑스럽다.
철 없는 짓만 골라 하던 녀석이
제 새끼들을
정성을 다해
낳으려고 애쓰는 그 날
덩달아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

끝내 이름을 말해 주지 않으나
다음날 숙제는 냈다고 한다.
허긴 부모 앞에

지 새끼 얘기가 쑥쓰러우리라

그리하여 소중하게
손주들이 태어났다.

전기밥통

이마에 붉은 띠를 두르고
징용가는 그 길을
다홍치마의 새 각시는
어른들이 어려워
눈물도 보이지 못하였다.

길 떠나는
그 날은 온 동네가 술렁여
밥술을 뜨지도 못하였다.

그 날 이후
매 끼니마다
밥그릇을 부뚜막에
올려 덮히고

밤이면 아랫목에 묻어
가슴에 잿불을 피운다.

해방이 되고도
아직 차리지 못한 식탁은
입술만 열면
그간 다 타서
익은 내장들이 쏟아져 나와
집에 있기도 어렵고
병원에 입원해도 별 수 없는
불덩이이나

오시어
아무도 없으면
추우실 터이니
아직 처음처럼
불을 지피노라.

詩 는

너무 커서

한 폭에 담을 수 없다.

퍼즐로 이으니
쪼가리는 쓸모가 없다.

아무짝에도 못쓸 거라고
내동댕이치니
바싹 다가와
향기로 감싸안고는
늘
주변을 에워싼다.

아편처럼 손짓하면서
좀체 열어주지 않는
處女林

어느 날은
숫돌에
날을 갈다가
손만 베고
절망감에
가슴만 시퍼래진다.

떨어진 핏방울 닦으려
허리 구부리니

문득
발 밑에
유성 하나 떨어져
하늘을 베고
누워 있는 걸 본다.

줍지 말고
그냥 두라 한다.

한남역에서

야광을 뿔처럼 밝히고
차들은 경주하듯
고함지르며 달려간다.

정해진 때에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는 전철은
제 스스로 알아서

척 왔다가는
머뭇거리는 걸음에
시선일랑 줄 줄 모른 채
사라진다.

멀리 이국에서 온
대사관 불빛들이
제나라 말로 떠들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온 듯
식구들이 그리울 때면

강건너 가로등이
물을 건너와
달빛을 날라다 주며
위로하여도

사방에서 때리는 바람
피할 길 없고
살고자 발버둥친
부끄러운 낮
숨길 곳이 아무데도 없다.

이 순 옥

곶 감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깊은 겨울 화롯가에서
가을의 톡톡 튀던 햇살을
쫄쫄 소리내며
빨아 들인다.

떫은 땡감
속살을 드러내고
햇살의 단물
진하게 빨아 들이면

총총히 박혔던
곶감 걸이는
쳐다 볼 때마다
뼈대만 드러내고

도망치는 아이의
뒤꼭지를

휘청이며 휘청이며
보아주고 있었다.

임 경 자

역 경 외 3 편

- 제7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자유시협 의정부지부 감사

살며시 밀어보는
새싹들의 떡잎처럼
무거운 바위 틈에
고개 내밀고

저물어 가는
저녁 노을 부둥켜 안고
차가와지는
나의 마음 달래 보려고

밤 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웃음
지난 날
화려한 꿈 수놓아 주듯
달님도 아쉬워 갸우뚱하네

쉼 터

나는 보았습니다.
잔잔한 파도의 쉼터
반짝이는 푸른 보석
수평선 넘어 작은 섬을

나는 보았습니다.
차고 깨끗한 바람
하늘 높이 몰고 가는
기러기떼의 흔적을

나는 보았습니다.
바람 타고 구름 가고
일렁이는 파도 타고
바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일이 다시 오면

내일이 다시 오면

떨리는 웃음 띄우며
허전한 마음으로 잊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이
나의 마음 맴돌 때

즐거운 날개를 펴고
바람따라 날아가는
철새가 되겠어요.

내일이 다시 오면
환한 웃음 띄우며
추억 속에 간직하겠어요.

파 도

파란 물이 눈에 어리면
마음은 바다로 달려간다.

쉴 새 없이 일렁이는 물결

하얀 물거품만 줄지어 달려온다.

어느새 하나가 된 하얀 물거품
시원스러이 나의 가슴 파고 든다.

파도야 파도야
간절한 목소리로 외쳐 본다.

쏴악하고 밀려오는 파도소리
여운만 남기고 멀어져 버린다.

멀어진 파도소리 가슴에 안고
홀로 거센 파도를 탄다.

임 영 희

꽃의 기원 외 4 편

- 월간『문예사조』신인상 당선으로 문단 데뷔
- 문협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북풍한설에
문풍지 떨던 날도
나의 염원은 오직 하나
당신의 꽃이고저

세찬 비바람에
하늘이 울던 날도
나의 염원은 오직 하나
당신의 꽃이고저

이 풍진 세상
다하는 날까지
향기를 잃지 않는
한송이 꽃이고저

잃어버린 고향

강산이 두번 바뀌고 찾아간 고향은
이미, 내가 두고 온 고향은 아니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활활 타던 산비탈도
나물바구니 옆에 끼고
보리밭 사잇길로 들어서면
먹이를 찾던 산꿩 한마리
"푸드득" 날아오르던 청자빛 하늘도
이젠, 온통 잿빛으로 늙어 있었다.

거울처럼 투명한 시냇물이 흐르고
유유히 송사리떼 한가로운 날이면
아낙들은, 가족들의 피곤한 일상을 모아
웃음보따리를 한아름씩 풀어놓던 곳
그 그림 같은 모습도 사라져 갔다.

"이제 오남? 방학이라 오는구먼"하시던
순자 아버지의 구수한 목소리도
흙먼지를 풀풀 날리며 달리는 버스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삭정이 같은 손을 흔드시던
내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도
아스라이 전설이 되어 있었다.

강산이 두번 바뀌고 찾아간 고향은
이미, 내가 두고 온 고향은 아니었다.

들 꽃

버려진 몸이라도
때가 되면
꽃을 피웠습니다.

보아주는 이 없어도
맑은 이슬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찾아주는 이 없어도
기다림은 묵묵히
세월을 낚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오실 님 위해
해맑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행복 그리기

피곤한 하루를 접어
심연의 늪으로 빠져 들던 어둠은
회색빛 입김을 토하며
도시의 새벽을 연다.

옆구리에 신문을 끼고
찬공기를 가르는 소년은
무슨 그림을 가슴에 담고 있을까.

힘차게 페달을 밟아대는
젊은 우유 배달부는
어떤 유형의 그림을 그릴까.

저승꽃이 덕지덕지 핀

늙은 거지는, 아직도
그려야 할 도화지가 남았을까.

다시 시작하는 사람
덧칠을 하는 사람
백지로 있는 사람

싱그러운 햇살로 다가서는
빛나는 아침을 맞으며

오늘도, 명화를 그리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걸작을 그리고 싶어 한다.

장흥에서 (예묏골)

자! 우리도 한잔 할까?
질자배기엔 향기로운 술 가득채워 쪽박을 띄워 놓고 갖가지 맛
갈스런 산채는 이름을 몰라도 좋소.
우린 벌써 인생의 오후를 살고 있지만 나이 같은 건 잊어 버립시다.
이제 겨우 불혹인 걸요.
이토록 아늑한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술과 친구와 음악이 있으니

왕위장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자, 들지요. 우리들이 어린시절은 참으로 가엾기도 하지요.
제대로 갖추어 먹길 했습니까 입길 했습니까.
올 굵은 베잠뱅이 하나 걸치고 시커먼 보리개떡 하나 손에 들면 온 동네방네 신나서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래도, 그때가 그리운 건 되돌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들 청춘은 참으로 찬란하기도 했지요.
아득한 꿈에도 빛이 있었고 잠 못 이루는 가을밤에도 윤기가 있었지요. 저, 밑바닥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노년의 서러움 같은 건 몰라도 좋은 나이였지요.
자! 딱 한잔만 더 합시다. 이 숲속의 유토피아에도 서서히 어둠이 내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만 일어나지요. 적당히 취기가 오르는군요.
아아! 지나간 청춘엔 미련을 버리고 이 외로운 중년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다가오는 노년도 웃으며 맞읍시다.

임 현 숙

겨울의 탐라 외 2 편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산을 겹치고
구름 품안으로
안기고
안겼더니
물 속에 젖어
바람에 익는
섬이
하나 있었다.

곳곳마다 바람소리
소금낀 물소리,
눈 내려도
개나리 꽃
예사롭지 않은 이곳

얼핏얼핏
따라 붙는

미역 냄새,
바람 냄새,

산을 겹치고
구름 품안으로
안기고
안겼더니
물 속에 젖어
바람에 익는
섬이
하나 있었다.

그 리 움

바람 설레임에
해가 기울고
거리는 어두워져
불 밝히는데
싸늘해진 가슴으로
뉘 마중 가나?

부서진 그리움이
별빛되어 흐르면
떠오르는 달빛에
몸을 기대고
태양보다 강렬한
환상을 꿈꾼다.

아 가

찬란한 목련을
노래하고 있던 날
새벽부터 천재지변이 일 듯
세상이 온통 꿈으로 뒤덮였다.
백색의 순결한
순간 순간들
어찌 그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밤하늘 갖박힌
별떨기 눈을 하고
하늘하늘

하늘나라 풀꽃 웃음으로
화려한 울음 뒤의
탄생의 축복은
고통 후에 찾아온
기쁨이어도
감당조차 벅찬
신의 선물이었다.

전 정 열

마음 속에 내리는 비 외 3 편

- 제7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감사

마음 속에 남기고 간
긴 한숨 뒤의 빗줄기
온 종일 비는 내리고
비에 젖은 그리운 얼굴
플라타너스 가지는
서글픔에 흔들린다

빗속에 서린 얼굴
그 누구이던가
가난한 마음에
아픔이 쌓이고……

가슴 저민 창가엔
햇살을 기다리는 마음
가난한 사랑이
조용히 번져간다.

당신이 앉았던 빈 자리

神에게 매달렸습니다.
가끔은
잊은 채 그냥 지나쳐도
뭐라 하는 이 없을 터

건널 수 없는 강줄기
굽이쳐 흐르고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당신이 앉았던 빈 자리

당신 안에 머물고 있음을 알고
내심 안도의 눈물을 보입니다.

풀 꽃

길가에 이름 모를 풀꽃

인파 속의 발걸음에 짓밟혀도
온유한 모습으로 자태를 뽐내며
웃음을 띠우는

아름다운 모습

저 푸른 자연과 어우러진
작은 풀 하나
비를 맞으며 고개 숙여
자아의 빛을 뿜는다.

살아계실 동안

그토록
당신의 자존심만을
소중하게 아끼고
어머님의 고생을 뒤로 한 채
강직하게
한 길만을 택하시어
사셨던 분

山처럼 높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당신의 삶
하얀 침대 위에 누운 처참한 모습
내 찢어지는 아픈 마음

당신의 눈물은
젊은 날의 패기를 잃고
밀려오는 세상을 뒤로 한
과거집착의
서러운 눈물인가요.

아버님
당신의 생명줄이
질기게 붙들고 있을 때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큰 기침으로
살아있음을 보이시고
당신이 가장 행복하셨던
그때의 깊은 정을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현 지 원

빈 가슴의 노래 외 2 편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장원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항시
빈 가슴을 어루만지며
안으로 안으로만 부르는 나의 노래
오늘도 슬픈 귀를 열고
소라껍질마냥 영혼의 바다를
그리워 한다.

저릿한 가슴앓이처럼 절실한
내 그리움은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아쉬움인가
미련인가

온 밤내 가슴으로 비가 내리고
흐르지 않는 영혼의 강물이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울음 우는 이 한 밤.

아는가, 그대여!
줄 때는 받을 것을 원치 않았건만
항시
빈 손으로 돌아서는 나의 귀로는
황량한 바람벽처럼 추위에 떨고 섰음을—.

아아,
메마른 가슴으로
영혼의 바다를 그리워 할 때
항시 혼자서만 부르는
내 고독한 노래여.

10월의 하늘

빛과 어둠 사이
알 수 없는 생명의 무늬가
호수처럼 흔들리는
하늘.

무언가 그리워 울고 싶을 때
정녕

우러르고만 싶은
청자빛 심연.

쏟아질 듯 파아란 하늘이 열려 오면
나는
가슴 중앙에 박힌 상념의 창을 열고
10月을 마신다.
푸른 즙을 마신다.

삼백 예순 다섯번 햇살을 담아
산골 우물처럼
푸르고 싱그러운 눈매여.

후둑후둑
생명의 액체를 떨구어 낼 듯
저 웅변의 침묵이여

상념의 조용한 그네 위에 앉아
아스라한
저 하늘을 우러르면
파르스름히 번져오는 건
피안의 등불.

내 넋의 크기 만큼
묻어나는 햇살 타고
알 수 없는 생명의 무늬가
호수처럼 흔들리는 시월의 하늘은
오늘도 신명나는
연륜의 동그란 나이테를
그리고 있다.

三 更

날이면 날마다
내
붉음의 기도가 열리는
시간.

어둠을 헤집고 핀
파드락이는 꿈마다
슬픈 인고(忍苦)의 액이 고이고
까닭 없이 차오르는 설운 마음에
또 하나
영혼의 작은 촛불을 켜는

시간.

날이면 날마다
밤 새이며 뒤척이는 새하얀 넋으로
추억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한 밤내
소리 없는 목울음만 토해 내는
시간.

날이면 날마다
애틋한 한(恨)이 서린 상념의 베틀에서
오늘도
숱한 영혼의 애기들을
눈물로써 짜올리는 이 가슴앓이는
살아온 햇수보다
더 짙은 농도의 인생을 배우게 하는
시간.

어느 어린 시인이
목이 메어 못다 부른 슬픈 영혼의 노래들을
또 내가 이렇게
가슴 저리도록 대신 불러야 할
시간.

아아, 어쩌면
내 생명의 잔을 비우고
돌아 설 계절까지
날이면 날마다
운명처럼 보듬고 살
환희로운 내 슬픈 기도의
시간이여.

황 영 애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첫 나들이 탄생 외 1 편

뚱뚱보 새댁이 밤새 앓더니
새벽녘에 큰 보따리 트렁크에 싣고
찌푸린 얼굴 가득 차에 던지며
여우 햇살에 작은 미소 비취더라.

새댁은 곧 엄마 된단다.
부지런한 이를 밝히는 가로등을
뒤로 한 채
새댁은 이제 엄마 된단다.
똘망한 아가의 고사리 손을 잡고
퉁퉁 불은 젖을 물리며
마냥 행복해 하는 엄마 된단다.

산기의 고통에 입술이 찢기고
눈빛 가득 별들의 전쟁을 보며
환희의 비명 가득 '아야야'
새 가슴 쓸며 심호흡 한 덕에

어렵게 어렵게 첫 나들이 한
이 생명.

태 동

햇살 보기가 아직도
머언 새벽녘
모든 이가 아직
팔 베개 고이고 있을 때
꿈틀거리는 태동의 신비를 느껴
벅찬 가슴 쓸어내리며
살며시 펜을 든다.

감동의 느낌에 온 몸 전율 되어
아랫배를 몇번이고 어루만지며
기쁘노라, 행복하노라
내 몸에서 새 생명 태동하는 기쁨을
한장의 종이 위에
긁적이게 하는 힘이여.

그 힘은 모성의 힘.

그 힘은 사랑의 힘.
한 숨의 눈물 찔끔거리며
아름다운 세상만 보자고
태아와 손가락 걸며
새 아침을 여는 엄마의 기도
저 멀리서 종소리 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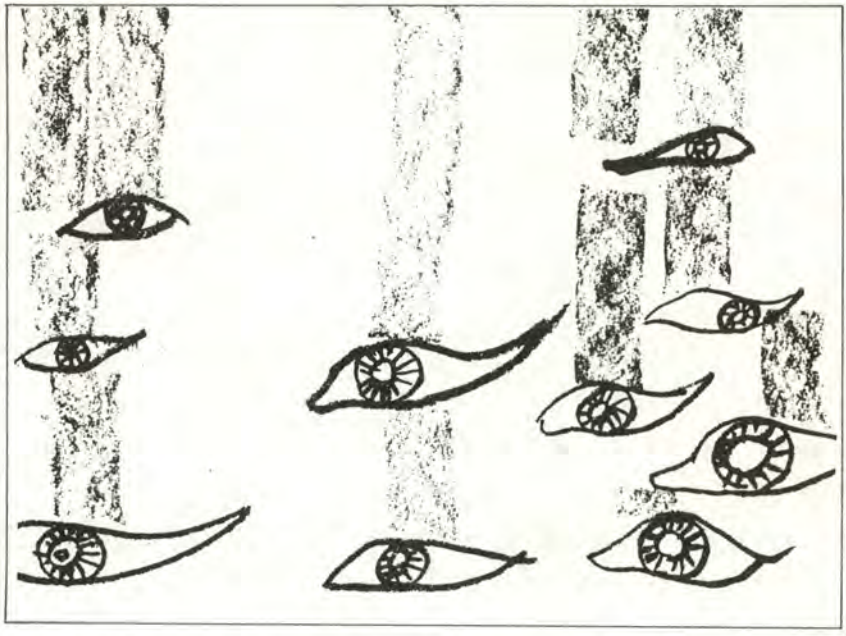
잠 못 이루는 밤

강 삼 미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내켜 하지 않으면서도 어딘가에 쓰다가 넣어둔 비닐테이프를 찾아 삐거덕거리는 수직 계단을 밟고 올라서던 다혜는 오랫동안 비어 있어 사람의 훈기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퀴퀴한 콤팡내 나는 좁은 다락방 입구에서 한참을 멈칫거리며 서 있었다.

밝음에서 갑자기 어두침침한 실내로 갓 접어들었을 때의 차단된 빛으로 인한 눈의 충격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흐릿한 상태였으나 다혜는 눈을 감고서도 훤히 찾아낼 수 있는 그의 다정한 미소와 언제나 그 자리에 붙박아 놓은 것 같은 낡은 책상과 그 위에 아무렇게나 마구 놓여져 있는 헌 책과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는 잘 기억도 나지 않는 인쇄가 지워진 박스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는 좁은 공간을 비집고 이상하게 생긴 공구들과 운동용 기구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어 을씨년스러운 풍경과 자랑스레 내걸리지 못한 그림이 든 액자가 한쪽 벽면에 빼곡히 들어 차 한 발자욱이라도 섣불리 내딛으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위태하게 느껴지는 아득함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하였다.



이제 겨우 어둠 속에 잠재울 수 있었던 아니 마음 속 깊이 동요를 느끼지 않으려는 기억까지 한꺼번에 엎쳐올 것 같아 위기를 느끼며 습관처럼 손을 뻗어 형광등 스위치를 더듬었다.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자 빛의 찬란함으로 드러나는 현란한 색채로 드러나는 그리움 앞에 현기증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내 쉬었다.

상대적 빈곤이라 했던가.

다혜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려지는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범벅이 된 가슴의 떨림을 진정시키며 발가벗겨져 많은 사람앞에 내몰리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려야 했다.

주인 없는 빈 방은 먼지만 푸석이며 날고 있었다.

무심코 한 발자욱 내딛던 다혜는 무엇인가에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기우뚱거리자 우당탕탕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는 더미 속에서 켜켜히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형체만 남은 것 같은 빈 화병에 시선이 멈추었다.

다혜는 빈 화병을 집어 들었다. 차가운 감촉과 함께 손자욱 난 표면위로 반지르르 윤나는 속살이 드러나 보였다.

순간 다혜는 세월의 더께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이맛살을 찌푸렸다 마치 차가운 겨울 한 데로 내몰리는 것 같은……

한층 더 을씨년스럽게 느껴지는 이 작은 공간은 유리로 만든 투명한 감옥같아서 언제까지나 삼킨 것을 뱉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다혜도 아무 저항 없이 이 안에 안주하려 할 게 분명한 지금 다혜는 이 화병을 깨끗이 닦아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급한 마음이 되어 현기증나는 수직계단을 단숨에 내려와 화장실에 걸어둘 새 수건으로 먼지를 닦아주었다.

손의 움직임에 따라 드러나는 반지르르 윤나는 표면 속에서 환한 얼굴로 웃고 있는 남편 현우를 다혜는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칸나가 좋겠지 아냐 다혜 닮은 해바라기가 더 좋겠어)

혜화동 로타리를 왼쪽으로 꺾어들어 식당가 골목으로 막 접어들자 머리 희끗한 할아버지가 펼쳐 놓은 갖가지 크고 작은 화병 속에서 단돈 천원에 다혜에게 안겨주며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 아쉽게도 십일월의 싸늘한 기운에 남아 있지 않는 해바라기 대신 줄기 실한 하얀 칸나를 한 아름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아직도 귀에 쟁쟁 들려오는 음악 같은 그의 웃음소리. 다혜는 흑빛으로 영롱하게 반짝이는 키 작은 화병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늘 화사하고 따뜻하게 명쾌한 웃음을 웃어주던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삶과 죽음은 종이 한장 차이라던데 그와 함께 한 모든 시간과 그의 손때가 묻어 있는 모든 소지품들이 주인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트막한 한숨을 내쉬면서 다혜는 직감적으로 황폐해진 마음에서 불안한 울화가 치미는 것을 느꼈다. 어느날 갑자기라 표현할 만큼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다혜만 동그마니 남겨둔 채로 다시는 그를 다혜 곁으로 돌려 주지 않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로 우격다짐으로 끌고 가 버렸다.

다혜는 도무지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도무지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서성였고 어느것 하나에도 위안을 느낄 수가 없었다. 비좁게 느껴지던 집은 텅비어 허

허로웠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해 흔들렸다.

모든 일상에의 살맛은 허탈함으로 치달아 둔탁한 신경의 마비를 가져 왔고 의식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허접쓰레기 속에서도 그의 향기와 목소리를 들었고 쓰러질 것 같은 의식의 틈바구니를 쪼개듯 진저리를 치며 오열하곤 했던 다혜는 또 다시 난감해지는 자신을 보고 있었다.

(이 화병을 어쩐지 예쁜 칸나를 사다가 꽂아 둘까 그날처럼…… 볼 사람도 없는 꽃은……)

귀잖다는 생각이 설핏 스치고 지나가자 다혜는 또 공연한 짓거리를 했다고 후회하였다.

화병을 들고 마땅히 둘 곳을 찾아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다시 거실로 돌아온 다혜는 부엌으로 향했고 어지럽게 널려 있는 식탁위에 포장하다가 만 선물꾸러미를 보는 순간 비로소 비닐 테이프를 찾고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새삼스레 다혜는 심한 건망증에 회의를 느꼈다 무엇인가 하고자 했던 시도가 무산될 때마다 남편 현우가 일찍 가 버린 탓이라고 억울해 하며 어색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한숨을 또 내쉬었다. 어지럼증이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중에 문득문득 언제든지 자신을 옭아매 오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별로 달가와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 주었다.

다혜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우면서 또 현우를 생각했다. 요즈음 다혜는 늘 이런 식이었다. 화장을 하다가 전화를 받기라도 할라치면 화장하던 것을 잊었고 밥을 먹다가 상념에 젖어들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그 상태로 현실을 잊어버렸다. 다혜는 막연한, 대책 없는 늙음을 떠올렸다.

보다 젊고 팔팔하던 때 이 늙음을 생각해 보지 않은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 나이에 흔히 그러하듯이 인생이란 오색 무지개 같고 막연한 기대에 쌓여 있어서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가까이 그 늙음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게 되었고 평범 그 자체가 아름답고 평퍼짐하게 널부러진 일상은 먼 길을 달려야 할 나그네의 안정된 휴식 같은 것이었음을 다혜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아직 엄마품에 안겨 매력 가꾸기에 열중할 무렵 다혜는 엄마에게 잔소리처럼 말했었다.

"엄마 왜 그렇게 쳐져 살지요. 얼굴에 고운 분이라도 바르지 않고서 늙는다는 게 무슨 자랑인 줄 아우"

유난을 떠는 다혜를 곱게 흘겨보며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하셨다.

"물레같이 돌고 도는 세상인디 너두 내 나이가 되면 알게 될끼구먼, 죽을 때가 가까우면 모든 게 귀찮고 싫증나는 거"

그때 다혜는 거세게 반발했었다.

그러나 요즈음 '그렇구나' 하고 공감하면서 가슴을 저려 오는 것도 최근의 일이었다. 사는 것과 산다는 것의 차이점을 누군가가 굳이 해석한다 해도 이미 다혜하고는 상관 없어 보였다.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그러한 모든 것도 이젠 상관 없는 남의 나라 일이었다.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누구를 향한 것이 됐던 뜨거운 열정이었고 향기임을 깨달은 지도 얼마 되지 못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자각은 하면서도 안주하며 살았던 관습의 벽을 넘지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간의 언저리를 헤맬 뿐이었다.

단순노동에도 쉬이 지치는 연약한 몸과 마음 때문에 허상은 어디에나 살아나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던 것까지도 단숨에 되돌리고 찧고 까불며 희롱한다.

다혜는 몸을 움츠렸다 결코 길지 않은 세월을 남편 현우와 살았고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그의 유령과 살고 있지만 새벽 미명에 깨어나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다.

뇌혈막 종양으로 그 짧은 투병을 남기고 유언도 없이 가버린 그는 절망도 분노도 없이 평안히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끝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행여나 싶어 밤늦게까지 불을 켜 놓고 기다려도 그는 소식이 없었다.

그 죽음 앞에서 큰소리로 운다는 게 허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기대가 첫기일을 넘기며 무산되어 아무런 언질이나 약속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고 여지껏 살아왔다.

죽음 그것은 공허였다.

흔적은 있는데 형상은 없는 것.

자취는 있는데 느낄 수 없는 것.

기억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 속에서는 잊혀지는 것.

보고파 우는데 어둠 뿐인 것. 다혜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할 많은 날들이 있음을. 그리고 수학공식처럼 뚜렷한 해답이 있는 것도 아님을 알기에 생이란 방정식을 앞에 두고 그리다가 만 그림처럼 들여다 보고 있을 뿐이다. 아직은 이대로 서성이다가 아직은 죽은 듯이 드러누워 봄을 기다리는 황량한 겨울인 채로 살기를 다하다가…… 두터운 커텐을 뚫고 비춰오는 한 자락 눈부신 빛의 조각을 눈으로 쫓으며 권태에 절은 희미한 눈꺼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잠을 청한다.

김소영 시집

두 만 강

한누리미디어 4000원

문재옥 제2시집

먹 칠 자리 있는 세상

문예사조 3000원

조청호 시집

푸른 나무들 모여

혜화당 3000원

열 루

김 안 기

- 1986. 법무부『새길』지에 〈낡은 구두〉 발표
- 1989. 월간『동양문학』신인상 당선으로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 문인협회 의정부지부 고문
- 월간『문예사조』발행인
- 도서출판『문예사조』대표
- 저서 : 창작집《늙은 망아지》
  장 편《하늘과 별의 초상》《깊은 밤 개소리》
  《타불아멘 알라 알라》

겨울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신선생은 원고 봉투를 끌어 안고 공중전화 박스로 뛰어 들었다. 으슬으슬 몸이 떨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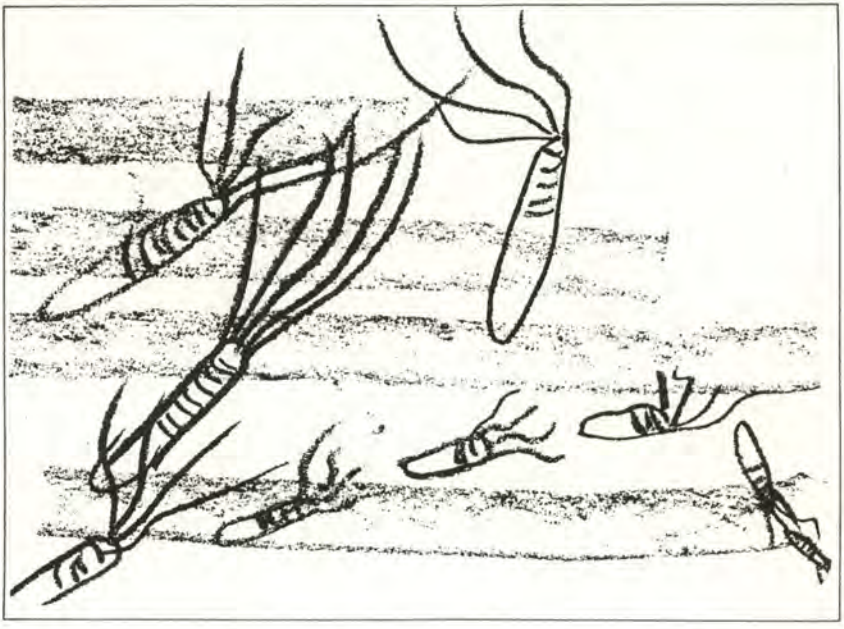
"허어."

신선생은 야윈 얼굴을 치켜들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와르르－쾅."

칼날같은 천둥번개가 허공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토큰 몇 개만이 손에 잡혔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을 보니 금방 그칠 비는 아닌 성 싶었다.

신선생은 정류장으로 향했다. 빗물에 흠뻑 젖자,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 드는 것 같았다. 형용 못할 서러움이 엄습해 왔다. 문단생활 30년을 했어도 자신을 반겨 주는 문우들은 극소수였다. 이른 아침이면 원고 봉투를 들고 집을 나와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다.



신선생은 독립문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안경알에 얼룩진 빗물을 닦으며 습관처럼 한숨을 뿜어댔다. 집에 병들어 누워 있는 마누라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다. 지난 30여년 아내는 가장이 없는 가정을 지키느라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 어제 저녁부터 아내는 더욱 괴로워 하는 것 같았다.

세놈의 자식 중 한 놈은 어려서 영양 실조로 죽고, 마누라의 생명도 이젠 가을 바람에 시달리는 나뭇잎 같은 신세라고 신선생은 생각했다. 불고가사하고 30년을 순수문학에만 전념해 온 신선생이었다. 소설은 그의 신앙이며,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신선생은 버스에서 내렸다. 현저동, 철공소와 방아간을 지나 보관소 안에 위치한 김선생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자신을 따스히 맞아주는 김선생의 인간미에 끌려 마음이 울적할 적이면 늘 찾아오는 곳이었다. 더욱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김선생 사무실을 드나들곤 했다. 신선생은 김선생의 사무실 앞에 주인집 개 두 마리가 있는 것이 우선 반가웠다. 어느 인간들

보다도 자신을 예우해 주는 개들이었다. 신선생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자기들의 대 선배를 만난 것처럼 환대를 했다. 콧구멍을 이리 저리 대고 냄새를 맡아냈다. 신선생이 밀쳐내고 발길질을 해대도 한 번도 물거나 으르렁 대지 않았다. 분명 그 잡종개들과 뭔가 통하는 냄새를 신선생도 지니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신선생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비에 젖은 칠순 노인의 초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었다. 원고 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어깨를 치켜 올렸다. 흘러내린 바지도 다시 고쳐 입었다. 헛기침과 환한 미소를 애써 지으며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에헴 김선생 계시오?"

사무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시를 공부하는 이운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늘도 계시구만."

"비를 맞으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걸로 닦으세요."

이운기는 손수건을 꺼내 신선생에 건네 주었다.

"고맙소."

신선생은 자리에 앉았다.

"이운기씨는 왜 문학을 하려고 하오?"

"예—에?"

신선생의 느닷없는 질문에 이운기는 대답이 궁해졌다. 신선생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문학이란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요. 돈 많고 여자 많은 사람이 무슨 글을 쓰려고 하는지 쯧쯧."

신성생은 혀를 차며 이운기를 바라보았다.

"내 전에 이운기씨 시를 본 적이 있소만 당신은 아예 시를 포기하는 것이 문단에 대한 도리인 것 같소. 양적으로만 팽창된 시단. 법석거리면서도 어딘지 텅빈 것이 난 늘 불만이오. 나 같은 거렁뱅이야 한 둘쯤 양념으로 섞여도 무방하지만 선거용 문인은 아무래도 이제 가족계획을 해야 한다고 난 생각하오."

신선생은 담배를 피워 물며 젖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운기는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신선생을 노려보고 있었다. 나이만 비슷하면 뺨이라도 서너대 후려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이운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친 늙은이."

한마디 욕을 하고 나니 조금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았다. 이운기는 펑퍼짐한 엉덩이를 들썩이며 두서없이 내뱉았다.

"내 대선배님에게 차마 미친 늙은이라고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참겠습니다. 하지만 말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운기는 서너번 엉덩이를 들썩인 후 담배를 꺼내 물었다.

"고맙소. 그러나 어디 이운기씨 뿐이겠소. 문단을 위해 문인행세나 작품 생산을 어서 그만두는 게 도리일 사람들이? 문학 그만하고 정치에 뛰어들면 출세할 위인도 많지. 난 다 우리 문단을 위해 하는 소리오."

이운기는 신경질적으로 담배를 비벼껐다.

"나이를 먹으니 서럽구만. 젊은 날의 낭만도 긍지도 이젠 미발표 원고마냥 퇴색만 되어가니…… 추잡한 몰골이 되어 먼지처럼 떠돌다 죽는 거지……."

신선생은 한숨 섞인 담배연기를 길게 토해 내었다.

"식사하셨습니까? 짜장면이라도 시켜 드릴까요?"

정시인이 말했다.

"밥보다 술이나 한 잔 합시다. 배고픔이 나를 이길지 내가 배고픔을 이길지 시험 하는 중이니. 펜클럽이나 문협 선거철이 돼야 나같은 문단 거지도 덤으로 붙어다니며 대우를 받을 텐데."

신선생은 의미 있는 말을 하고는 몸을 잔뜩 움크렸다.

"글 발표 좀 하셨습니까?"

정시인이 물었다.

"허허. 잡지하는 사람들한테 찾아 다녀야 할텐데 굶주린 이 몰골 외에는 들고 갈 게 있어야지. 평상시에도 천대받는 주제에 청탁해 주기를 기다리니 나야말로 나르시스트지. 실력이 뛰어나던지 아니면 처세술이 뛰어나야 행세하는 거 아니요? 나야 뭐 실력도 그저 그렇고 처세술이 곧 동냥질이니 누가 좋아 하겠소?"

신선생은 무엇에 맺히고 쌓인 원한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말을 이었다.

"난 고래도 언제나 소설의 노예로 살고 있소. 바람둥이가 여자를 사랑하듯. 농부가 땅을 사랑하고 땅의 노예로 살기를 원하듯이 말이오."

신선생은 핏대를 올려가며 떠들어댔다.

"문단 정치하는 놈들은 돈 뿌려가며 감투 싸움이나 하고 잡지하는 놈들은 선거때 표 의식해서 자기 사람 추천해대니…… 그 틈 바구니에서 당신같은 사람들은 서툰 시를 써가지고 무슨 자격증 따는 양 설쳐대니 쯔쯔 목불인견이지…… 한국에 문예지다운 문예지가 어디 있어. 엄격히 말해 끼리끼리 발표하고, 청탁하고, 다 해처먹는 동인지지. 이런 말하는 나도 내 얼굴에 침 뱉는 격이겠지만, 아무튼 누가 알까 부끄럽소."

함구하던 이운기가 신선생을 똑바로 쳐다 보았다. 건수를 문 경찰이나 신문기자 같은 눈초리였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신선생님처럼 발표하지도 못하는 글이나 쓰고 있는 것은 삼류들이 겪고 있는 서러움 아닙니까? 독자가 없는 글, 어딜 가나 천대받는 처세, 남을 욕하기에 앞서 자신을 반성해야 합니다."

이운기는 비꼬듯 말을 이었다.

"신선생님 연세 정도면 이젠 대가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단에서 소외돼 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선생은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운기를 바라 보았다.

"나는 순수문학을 하는 사람이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빵을 해결하기 위해 글을 쓰진 않아요. 문단 선거할 때나 필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오. 문단은 원래 조용하고 정적인 지성인들의 단체데 못되고 잘난 척하는 병신들이 몇명 있어. 파벌을 형성하는 것이란 말이오. 반면에 나처럼 풍찬노숙에 단련된 걸인이 있는가 하면."

신선생의 표정은 경직되고 있었다. 이운기는 참깨를 씹은 것처럼 고소했다. 얼굴을 돌리고 웃고 싶었다. 엉덩이를 의자 깊숙히 디밀고 오른발을 왼발 위로

척 걸쳤다. 등을 의자 등받이에 대고 천천히 문질러댔다. 신선생은 안경 너머로 빼꼼히 이운기를 바라 보았다.

"난 그 알량한 문단 인사들, 그들에게 선거 참모나 수족이 되어 글 발표하기는 싫소."

"누가 시켜주기나 합니까. 하하하."

이운기는 벌써부터 참았던 웃음을 웃어제꼈다. 신선생은 이운기의 시선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작가란 글을 잘 써야 하는 것 아니오. 이대로 죽는다 해도. 나같은 인간에겐 문예지 지면이 영영 할애되지 않는다 해도 난 서럽지 않소. 다만 분노할 뿐이오. 진정으로 문학을 사랑하고 문단을 지켜나갈 후배들을 위해 이제 마악 시작하는 젊은 작가들에게 선배로서 미안할 따름이오."

"자위하시는군요. 천원이상 받을 수 있는 번역료를 자진해서 단돈 일 이백원에 하시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이운기는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딴 곳을 바라보았다. 남들은 번역료로 원고지 한장에 천원 이상을 받았지만 신성생은 일 이백원에 하고 있었다. 항상 굶주리고 있는 신성생의 처지를 악이용하는 출판업자들의 농간이었다. 그러한 일들이 거듭될 때마다 신선생은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히곤 했다. 돈 몇푼으로 자신을 이용하는 그들의 물건이라도 훔쳐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응당의 대가를 찾으려는 일종의 정신분열증세였다.

신선생은 이운기의 질문에 할 말이 없어 눈알을 굴리다가 고개를 쳐들었다. 천상에 없는 명답을 찾아낸 사람같았다. 신선생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헤헤헤. 그거야 내가 정상이 아니니까 그렇지. 난 사실 미친 놈이거든. 망령까지 겹친 늙은이란 말이오. 헤헤헤."

신성생은 가냘픈 체구를 흔들며 웃어댔다. 신선생은 안경 너머로 이운기를 바라보았다. 구슬치기하는 어린애들의 장난기 섞인 눈초리였다.

"나도 별 볼일 없는 문인이지. 작품을 써도 그만 안써도 그만. 문단 가족 계획에 응당 끼어야 할 인간이오. 내가 그걸 모르나. 헤헤헤."

신선생은 한참을 웃고 나더니 정시인을 향해 물었다.

"김선생은 어디 가셨소?"

"잠깐 나가셨습니다."

정시인은 식당으로 전화를 하며 대꾸했다. 신선생은 졸음이 오는지, 지그시 눈을 감고 몸을 잔뜩 움추렸다.

침묵이 흘렀다.

이운기는 신선생을 바라보며 소리없는 말을 궁시렁거렸다.

"술 왔어요."

식당 아줌마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자, 한 잔 하시지요."

정시인이 신선생의 잔에 술을 따랐다.

"찌개 좀 많이 드세요. 건강을 돌보셔야 합니다."

"허어 고맙소. 주린 배를 안주나 퍼먹고 채우란 말이군."

신선생은 찌개를 떠 먹었다. 이운기와 정시인도 술잔을 비우고 숟갈을 들었다."

"아니……?"

이운기는 숟갈을 놓으며 인상을 썼다.

"너무 짜서 못먹겠군."

정시인도 신선생을 보다 말고 숟갈을 놓았다.

"좀 짜면 어떻소."

신선생은 동태 살점을 한 곳으로 모으며 중얼거렸다.

"추물이 된지는 이미 오래 전이다. 이제 와서 이것 저것 따질 형편이 아니지. 돈 주고 시킨 거니 먹어야 하지 않겠소. 먹어 둬야 날 미워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힘도 생기고, 헤헤헤."

신선생은 연신 술잔을 비웠다.

"헤헤헤!"

신선생은 큰 소리로 웃어 제꼈다.

"불초소생 오늘은 곤드래신 올시다. 헤헤헤."

이운기와 정시인은 머리를 가로 저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보아온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술을 마시다가 아무데나 소변 보는 것은 예사였고, 갑자기 무슨

말인지도 모를 얘기를 핏대 올려가며 떠들곤 했었다.

"정시인 나 천원만 주시오."

신선생은 정시인을 바라보았다.

"내일이 손자놈 생일인데 핼비가 그냥 있을 수 있나?"

정시인은 이천원을 꺼내 그에게 주었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 천원 달랬소?"

신선생은 화가 나서, 천원짜리 한장을 휙 집어 던졌다.

"사람들은 날 문단 거지라고 손가락질 하는 모양인데 지놈들 한테 받은 것 다 돌려 주고 죽을 거야. 돈이 없으면 그림이라도 한 장씩 그려 주지. 나 소변좀 보고 오겠소."

신선생이 밖으로 나간 다음 이운기는 신선생이 빗물을 닦던 손수건을 집어 들었다. 그는 문을 열더니 개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니들이나 갖고 놀아라. 아휴 냄새."

이운기는 인상을 쓰고 자리로 돌아왔다.

"신선생은 뭐 자신이 화가라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그 사람 그림 좋아할 사람은 유치원 애들 밖에 더 있겠소. 하하하."

이운기는 술잔을 들었다.

신선생이 들어왔다. 그는 술잔을 비우면서 종이에다 뭔가를 그려대고 있었다. 신선생의 그림 실력은 사실 수준급이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화투가 일본 것이라 하여 젊은 시절에는 한국식 화투를 수 년간 연구하여 완성시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 화투 역시 신선생의 정신 분열 증세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한 것이었다.

시인으로 데뷔는 했으나 저서로는 두 권의 장편소설이 있을 뿐, 시집은 없었다. 그나마 소설이 출판된 것도 엉뚱한 인연 때문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십 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 당시 신선생은 지하도나 역 대합실 등에서 잠을 자곤 했었다. 어느 가을, 서울역 대합실에서 소설을 쓰고 있을 때였다. 신선생을 눈여겨 보던 젊은 신사가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소설가이십니까?"

"난 시인이오."

"그러세요. 자택은 어디신지요?"

"자택? 민주주의란 바로 무슨 사람이 주인이란 뜻 아니겠소. 그러니 내 나라가 모두 내 집이지."

그 날 신사는 천원짜리 한 장을 신선생에게 주고 떠났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신사는 신선생을 찾아 왔다.

"왜 이제야 오는 거야? 이놈아. 돈을 줘야 살 거 아냐."

신선생은 평상시보다 조금만 늦으면 신사를 향해 고래고래 호통을 쳤다. 문전걸식하는 거지가 주인보고 밥상 차리라는 식이었다. 그래도 젊은 신사는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 신선생을 대했다.

"선생님 소설을 제가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뭐야?"

"하루에 열 장 이상씩 원고를 써서 저에게 주세요. 대신 하루에 이천원씩 드리겠습니다."

"미친 놈."

신선생은 매일같이 원고를 써서 신사에게 주었다. 그의 덕분에 한동안 밥도 사먹고 책도 사볼 수 있었다. 육개월 가량 지난 뒤 첫 소설집이 출간 되었고, 또 육개월 뒤에 두번째 책이 나오게 되었다. 신선생은 그 후로 젊은 신사의 소개로 ○○교회에서 숙식을 제공받게 되었다. 그러나 소설은 별 반응이 없었다. 한마디로 독자의 흥미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신선생에게는 교회 청년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 문학을 강연하는 일이 주어졌다. 그 생활도 잠깐이었다. 신선생이 교회 일을 볼 때부터 교회엔 밤마다 도둑이 들었다.

"어제 선교사 기숙사에 도둑이 들었다!"

아침만 되면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다. 치사한 도둑이었다. 큰 것도 아닌 자질구레한 것까지 훔쳐가는 잔 도둑이었다.

"분명 이 교회 안에 도둑이 있습니다."

신선생은 태연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

선생이 교회에 기거한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 손님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여 선교사의 팬티, 브래지어를 비롯해, 손목시계, 구두 등 온갖 것이 밤만 새고 나면 없어지곤 했다. 환한 대낮에 그 것도 좋은 것도 아닌 스타킹까지 없어지는 것이었다. 밤마다 번갈아 가며 망을 본다 경비를 선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교회 신자 중에 하나가 장난 삼아 점을 보러 갔다가 돌아왔다.

"분명 도둑놈은 어린 사람입니다. 십대들의 장난이 분명합니다."

그는 장담을 해댔지만 그의 말은 너무도 추상적이었다. 교회에 나오는 십대 모두를 도둑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점을 보고 온 신자는 그 날부터 십대들을 주시했다. 여러 놈을 점찍어 미행도 해보고 유도 심문도 해댔다. 결과는 번번히 허사였다. 귀신이 곡하고 하느님도 발뺌하는 사건이었다. 신자 중에 경찰이 있어 온갖 수사를 해봤으나 도둑은 모두를 비웃었다.

한달이 지난 날이었다. 교회에 드나들던 신문 배달원의 손목에 분실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신자들은 확고한 물증을 잡은 터라 소년을 윽박질렀다. 점보고 온 신자는 더욱 의기양양했다.

"거봐요. 십대 애들 짓이라니깐요.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오."

점보고 온 신사는 소년을 다그쳤다.

"네가 훔쳤지. 공범이 누구야? 난 다 알고 있어 임마! 거짓말하면 하느님한테 벌받어. 성경에 손을 얹고 사실대로 말하면 하느님도 용서 하실 거다."

소년의 입에선 예상을 빗나간 말이 튀어 나왔다. 혹시나 하던 신선생도 아니고 십대들도 아닌 엉뚱한 대답이었다.

"목사님이 준 거라는 데요."

소년은 당당했다. 자신이 훔친 물건을 차고 있는 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누가 줘?"

"목사님이오."

"누가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네. 바짝 마르고. 키가 작고 앞니가 빠진."

신선생을 말하는 것이었다.

"세상에……."

신자들은 모두 고개를 내돌렸다. 교회 주변의 술집 접대부. 다방레지 등도 여선교사의 옷을 장물로 알고 내놓았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형편이 어려운 교회주변 사람들은 신선생에게 돈까지 얻어썼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선생이야 말로 그들에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였다. 젊잖은 짓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선물과 돈을 받은 사람들은 그를 실제 존재하는 산타크로스로 믿고 있었다. 신선생은 교회에서 훔친 온갖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다닌 것이었다. 한쪽에선 도둑놈이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볼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자선사업가였다.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자들은 목사를 앞세우고 신선생을 공격해댔다.

"우리 교회의 수치입니다. 저런 사람은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뭣들 해요.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 가라고 하지 않고 어쩐지 생김새가 이상하더니."

사람들은 아우성을 쳤다.

신선생은 도둑같지 않은 당당함으로 그들에 맞섰다.

"당신들은 다시 사면 될 게 아냐? 난 당신들이나, 교회, 하느님을 대신해 불우한 이웃을 도운 거란 말이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배짱 두둑한 도둑이었다. 신선생은 변명을 각설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질러댔다.

"교회가 이 정도 부를 축적했으면 이젠 없는 자들에게도 나눠 줘야 되잖소. 내가 보니 신도들이 선물한 목사 구두만도 십여켤레던데 그걸 언제 다 신어보고 죽는단 말이오. 물론 신자들의 성의를 봐서라도 보관해야겠지만 그건 낭비요. 천당가는 데 도움이 안될 테고."

신선생은 강제로 쫓겨났다. 떠밀면 밀려나는 수 밖에는 도리가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렀다. 청소부들이 피워놓은 불도 얻어쬐고, 이곳 저곳에서 구걸해서 생명을 부지했다. 지하도에서 잠을 못잘 때는 새벽 기도 시간을 기다리며 아무 교회나 그 주위를 맴돌았다. 새벽기도 시간에 그는 신자들 틈에 끼어 잠을

자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그는 절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남들 예배볼 때 구걸을 하고 잠을 잘망정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천당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다.

그의 나이 칠십이 다 되어서야 마누라와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간 신선생이었다. 마누라 볼 염치도, 아들놈 볼 낯짝도 없었다. 말이 남편이고 아버지지 그들에게 해준 것이라면 악연으로 맺어진 천륜으로 인해 가족에게 고통만 준 것이었다. 남편 노릇 한 것을 굳이 밝히려면 자식 세 놈 배게한 짓이요, 아버지 노릇 한 것을 말하라면 그저 생명을 줬다는 그 본능적인 행위 밖에는 없었다. 그나마 인간노릇을 했다는 것이 자랑이라면 자랑이었다.

문단 거지, 정신병자. 이러한 칭호들이 신선생의 이름을 대신하곤 했다. 문인으로서의 신선생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문단거지 신아무개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문단생활 30년에 얻은 것치고는 참으로 답답하고 낯뜨거운 명성이었다. 하지만 작품에 대드는 정신세계만은 정열적이면서도 철두철미했다. 몰골에 비해 글은 잘쓴다고 존경하는 문인들도 더러 있었고, J시인같은 이는 말하길 방대한 문학을 수용하기엔 그릇이 작은 정신병자라고 대놓고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두들 조금은 반성들을 해야 했다. 그 정도의 실력이면 얼마든지 문예지에 지면을 할애해 줘야 하는데도 불쌍한 거지 동냥만 줬지 그에게 지면을 할애하는데 너무도 인색했다. 달리 말해 문단이 만든 거지라는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실력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발표 한번 못하는 문인이 있는가 하면 실력은 없으면서도 미처 써대질 못해 잦은 청탁에 노이로제가 걸린 문인도 있었다.

이는 문단 민주화가 덜돼서 그렇다는 변명 밖에는 할 수 없는 불행한 현실이었다. 눈물젖은 빵. 향학열 그런 것에 한맺힌 작가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생명력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았다. 막상 원고지에는 헛소리로 잉크나 소비하는 쓸 데 없는 글이나 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입은 살아 있으되 머리는 비어 있었고, 허우대는 멀쩡한데 나이를 뒤로 먹은 자들이었다. 두글자로 그들을 표현하려면 아주 적당한 낱말이 있다. 병신이 바로

그것이었다.

어느 곳이고 신선생이 나타나기만 하면 물건들을 감시하느라 부산했다. 피해망상증이 작용할 때마다 신선생은 도벽을 일으켰다. 그러나 웬만치 배고프지 않으면 연민의 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훔친 물건을 나누어 주고 다녔다. 피해망상증이 도벽으로 변하고, 곧 양심에 흐느끼면서 보상심리로 바뀌는 것이었다. 말이 정신병이지 오랜 시간 굶주리고 천대받다 보니 생긴 정신병이 그에게는 어울리는 것 같았다. 아쉬운 것은 문학이 그에게 신앙이 돼주질 못했고 의지가 약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었기에 처참하고 혹독한 굶주림과 현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했다. 가슴 아픈 일이었다. 무관심 때문에 생긴 외로운 정신병자였다.

구걸을 하면서도 항상 액수는 천원 미만이었다. 간혹 시나 소설을 발표해서 원고료를 받아쥐면 그는 마치 돈많은 사람같이 선심을 쓰기도 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인기가 좋았다. 칠순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애들이 즐겨하는 놀이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어린이들과 뛰노는 것을 나무라는 사람이 있을 때면 신선생은 소년처럼 웃으며 대답했다.

"노소동락이란 말도 모르오. 어민동락도 하는데 이게 뭐 어떻단 말이오. 애들과 노는 것이 세상 즐겁소. 하하하."

신선생이 다시 화장실로 간 후 이운기는 투덜거렸다.

"망녕난 늙은이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는 덴 뭐 있다니까. 에이 매친 늙은이."

"이선생이 이해해요. 원래 그런 분이 아닙니까. 정신 이상자란 말이오. 술 맛은 애당초 떨어졌습니다. 찌개가 짠 것보다 콧물에 침까지 흘려대니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다방에서 차나 시켜 먹읍시다."

"그럽시다."

신선생이 바지를 치켜 올리며 들어왔다.

"김선생은 안 오시나? 바둑 한수 하렸더니……."

신선생은 자작으로 술을 따라 마시며 뭔가 골똘히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

다.

레지가 쟁반에 커피를 들고 왔다.

"선생님 한잔 하시죠?"

신선생은 정시인의 권유를 거절했다.

"싫소."

정시인은 커피를, 이운기씨는 우유를 마셨다. 이운기씨는 우유를 마시다 말고 레지를 바라 보았다.

"우유가 맛있는데 응?"

"정말요?"

"그럼. 아가씨 몇살이야?"

"알아 맞춰보세요."

"스무살? 아니면 둘. 우유가 맛있어."

"한잔 더 시키시지 그랬어요."

"그럴까. 이따간 진짜가 먹고 싶다. 호호호."

이운기는 레지의 가슴을 훔쳐보다가 입을 막았다. 신선생만 없으면 장난이라도 하고 싶은 게 그의 심정이었다.

신성생은 언제나처럼 아무 말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빈 속에 술을 마신 탓인지 가만히 서 있어도 거리와 건물이 빙글빙글 원을 그렸다. 비틀거리는 몸을 억지로 가누며 버스에 올라탔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뱃속의 모든 것이 올라올 것 같았다. 이윽고 구토증을 참을 수 없어 버스에서 내렸다.

"으-욱."

위속에 든 것을 토해 내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웠다. 아무 곳에나 쓰러져 잠들고 싶었다.

건물 벽에 등을 기대고 마누라를 생각해 보았다. 이미 오래 전의 일이지만 영양실조에 병까지 겹쳐 죽은 아들의 시체가 되살아 아장아장 걸어올 것만 같았다. 문학이 원수였다. 아들놈의 원수는 문학이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도 문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학과 죽는 날까지 싸워야 했다. 하지만 문학은 패

했다고 신선생은 생각했다. 칠십평생의 삶이 허무로 변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 문학과 싸워야 했는지. 남는 건 허무 밖에는 없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며칠 전부터 마누란 병져 누워 있었다. 마누라가 병져 누울 때마다 아들놈은 대들곤 했다. 아들 놈의 성난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아버님을 원망할 겁니다. 저희들을 키우시느라 어머님은 너무 오랜 세월을 혹사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저희들에게 해 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인이라는, 작가라는, 알량한 긍지로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까?"

신선생은 가슴이 녹아 흐르는 것 같았다. 어린 놈을 영양실조로 죽게 하고 마누라마저 병들게 한 이 지지리도 못난 인생. 신선생은 원고봉투를 끌어 안고 일어섰다. 웬지 아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공중전화로 가서 다이얼을 돌렸다.

"야 이놈아 애비다. 엄마 일어났냐?"

신선생은 볼멘 음성으로 소리쳤다. 마누라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말이 튀어 나왔다.

"네 어머니 일어나라고 해!"

신선생은 전화 박스에 몸을 의지하고 계속 소리쳤다.

"네 엄마 좀 바꿔라. 네 엄마 일어나라고 해."

"아프신 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들놈은 버릇없게 전화를 탁 끊었다. 자꾸 지우려 해도 죽은 아들놈이 떠올랐다. 그 귀엽고 예쁘던 어린 것이…….

"와르르 쾅!"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퍼런 불빛이 하늘을 다시 난도질하고 있었다.

"나 여기 있다!"

신선생은 뇌성벽력치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쳐들었다. 벼락이 가로 지르는 하늘로 뛰어 오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캄캄한 밤, 신선생은 썰렁한 가슴을 안고 하늘만 쏘아보았다. 공허와 자책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심장에선 퍼렇게 멍든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몽

뚱이는 시멘트 조각처럼 굳어지고 영혼은 어디론가 방황하기 시작했다. 영혼이 추구하는 이상의 세계엔 헐벗고 굶주린 육체가 낡은 지폐를 쫓아 사라져 버렸다.

빗줄기는 갑자기 세차게 쏟아졌다. 신선생은 분주한 발길들을 쫓아 무작정 걸었다. 남대문 시장을 지나 서울역을 향해 걸으며 헉헉 흐느껴 울었다. 문학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최선을 다했는지, 지난 30년을 뒤돌아 보았다. 아무 것도 없었다. 어둠같은 것만이 문학의 뒤안길에 가득차 있었다.

신선생은 서울역 광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원고지를 꺼냈다. 비에 젖은 원고지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뭔가 쓰지 않으면 삶이 허무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신선생은 뭐라고 중얼거리며 빗물에 찢기어지는 원고지 위에 글을 써 내려갔다. 그러다가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도, 건물도, 앙상한 나무도 모두 흐릿흐릿 사라져 갔다. 가슴 속에선 열루의 세찬 파도가 휘몰아쳤다.

신선생은 하늘을 보고 누웠다.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발버둥도 쳐봤다. 정말로 미친 놈이 되어 슬픔도, 후회도, 모두 망각하고 싶었다. 다만 아내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잠들고 싶었다.

신선생은 하늘을 부둥켜 안기 위해 허우적거리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빗물에 범벅된 원고 봉투를 속옷 깊이 쑤셔넣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에 몸은 굳어왔다. 흔들리는 허무와 절망의 뿌리를 작품의 세계로 옮겨 심기 위해 가부좌를 틀었다. 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한 채 그는 끝없는 의식의 세계로 침몰해 가고 있었다.

李基班 시집

강물로 흐르려네

다원 3500원

향 수

배 남 규

- 1990년 월간『문예사조』에 소설 당선으로 문단데뷔
- 한국문인협회 회원
- 문예사조 문우회 회원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 일출문학회 초대회장

박 씨는 환풍기를 틀어 놓고 이발소안의 먼지를 털어 냈다.

"건들면 툭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손님이 없어도 신나는 날이었다.

그는 이발사라는 직업이 마냥 자랑스러웠다. 의사, 목사, 변호사 등만 봐도 사자(字)로 끝나는 직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었다.

이발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덕에 자가용까지 굴리게 되었으니 신이 날 수 밖에 없었다.

목을 길게 빼고 창 밖을 보았다. 중고이긴 하지만 아직 쓸 만하고 자동차가 햇빛을 받아 번쩍거렸다.

변두리 이발소 운영 이십여년 만에 상계동에 임대 아파트도 마련해 두었고, 이젠 자가용까지 구입하고 보니 절로 어깨가 들썩거렸다.

지난 세월을 일편단심 자린고비로 살아온 그였다. 그의 동업자이자 아내인 최 여사도 사자(字)들어가는 직업의 소유자였다. 그녀가 면도사로 충실히 내조한

덕에 이젠 부러울 게 없는 박 씨였다.

퇴근시간이 오면 박 씨는 일류 멋장이가 되어 자가용을 타고 상계동으로 향했다.

직업상 여러 계층의 손님을 대하다 보니 귀동냥으로 터득한 지식도 상당해서 자칭해서 박 박사라고 칭할 정도였다. 걱정이 있다면 집에 있는 노모였다. 밥하고, 집청소나 하는 노인네가 허구헌 날 앓아 눕는 통에 새로 사간 아파트 분위기가 맨날 초상집과 같았다.

타올을 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보니 믿음직스러웠다. 아내가 타올을 빨고 난 다음 도시락 가방을 풀 때였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발의자에 앉아 손톱소제를 하고 있던 박 씨는 전화벨이 한참 울리고 난 뒤에야 수화기를 들었다.

박 씨는 점잖은 목소리를 만들어 냈다.

"호남 이발손디 누구여?"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라우. 어떻게 한당께라우?"

당황과 두려움이 어우러진 딸년 목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수화기를 들고 아내를 보았다. 갑자기 당하는 일이다 보니 어머님의 죽음이 실감나지 않았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 맞은 기분이었다.

"뭐라고야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야?"

"네, 빨리 좀 오시랑께라우."

"알았응께, 작은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박 씨는 수화기를 놓고 아내를 보았다.

"임자…… 어머님이 돌아가셨당께."

박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님이? 어머 큰일났네 잉?"

박 씨는 얼떨결에 웃옷을 걸치고 차 열쇠를 찾았다. 대충 가게문을 닫고 보니 아내는 까운을 입은 채 도시락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제정신이 아닌 성 싶었다. 아내는 박 씨를 보고 눈을 멀뚱였다. 양복을 입는다는 것이 복덕방 노인이 놓고 간 잠바에 털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두 내외는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았다. 박 씨는 속력을 내어 달렸다. 파란 불이 들어와 있는 건널목에서도 크락숀을 울려댔다. 급한 김에 안전벨트를 목에 건 아내가 크락숀을 누르고 있는 박 씨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운전 조심하셔요 잉,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 아시지라우?"

박 씨는 파란 불인데도 건널목을 지나는 사람이 없자, 눌러놨던 스프링이 튕기듯이 내달렸다. 버스 뒤를 따라가던 오토바이 탄 사내가 불시에 박 씨의 차 앞으로 노선을 바꾸었다. 박 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창밖으로 목을 내밀었다.

"저 놈의 새끼가 죽을라고 환장했나? 미친 놈의 새끼랑께."

도봉 전철역을 끼고 우회전 할 때는 하마터면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할 뻔했다. 박 씨의 아내는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고 목을 움츠렸다.

"음메 나 죽은 당께."

박 씨는 덤프트럭 운전사의 욕설을 뒷통수로 맞아 가며 줄행랑을 쳤다. 덤프트럭 젊은 기사의 얼굴을 보니 보통 인상파가 아니었다. 여차하면 뛰어 내려와 주먹질을 해댈 기세였다. 말로는 몰라도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얼마쯤 내달은 뒤에 박씨는 투덜댔다.

"젊은 놈이 누구 보고 욕설이여, 시간만 있으면 그 놈의 자식 혼을 내겠는데, 내가 힘이 없어 참는 것이 아니랑께, 서울 바닥에서 인간 박덕팔이 깔보다간 일나버링께로."

작년부터 어머니는 바깥 출입이 뜸하셨고 해수기가 있어 기침을 심하게 하곤 하셨다. 재털이고 쓰레기 통이고 닥치는 대로 가래침을 뱉는 통에 온 식구가 속이 메스껍곤 했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연락을 받은 이웃 할머니들과 일가 친척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들 중 나이가 많은 사촌 형님이 눈물이 가득 담긴 눈을 껌뻑이며 입을 열었다.

"여기서 출상허면 이웃사람들이 싫어 할테닝께 아무래도 병원으로 모시면 쓰겠네 잉."

박 씨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결정권자였다.

"그러면 좋겠으라우?"

"벌써부터 옆집에선 문을 걸어 잠그고 겁먹은 표정들이랑께, 시숙님 말이 맞으라우 집도 새 집잉께로."

사촌 형님은 공처가인 박 씨를 못마땅한 눈으로 보며 중얼거렸다.

"니기들이 알아서 허랑께잉, 내가 뭣을 알겄냐."

딸을 시켜 앰블런스를 부르고 인근 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나니 어느덧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일가친척을 비롯해 어머님과 가까이 지냈던 고향 사람들이 영안실로 몰려들었다. 영안실 안에는 넓직한 마루가 있어 문상객을 받기에 좋았다.

박 씨는 오는 형제간들에게 미리 당부했다.

"영안실에서는 곡을 못하니께 울지들 마시요잉, 시방 내가 슬퍼도 울지 못헌께로. 좌우당간 호상이라 울지들 마르랑께잉."

상주 박 씨는 제자리도 지키지 않고 아는 사람들을 찾아 농담까지 하고 다녔다. 나무라는 어른들이 있으면 태연하게 지껄였다.

"호상인께 괜찮해라우?"

이발사 생활 이십여년 동안 귀동냥한 문자를 총동원시키며 잘난 척을 하고

다녔다. 은근히 자신은 객지에 나와 자수성가한 몸이라고 으시대는 것이었다. 보다 못한 사촌 형님이 박 씨를 불러 세웠다.

"이 사람아, 상주는 제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뭣땀시 싸돌아 다닌당가?"

"내가 그것을 모른가라우, 잘 알지만 지금은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우, 거 뭐냐 그러니께 최신 가정의례준칙에 의하야."

"-우라질놈"

사촌 형님은 볼때기를 씰룩이며 밖으로 나갔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왔다.

"모르는 것 없는 잘난 놈이 저러면 안 된당께, 상주가 웃으며 돌아다니는 것은 우리 가문의 망신이랑께, 지기 어머니 돌아 가셨다고 좋아하는 놈이 어디 있당가?"

박 씨는 사촌 형님이 나간 문을 향해 버티고 서서 씩씩거렸다.

"모르면 가만이나 있지 잘난 척은 되게 하네잉, 어머니는 내가 모실 것잉께 집에 갈 사람은 가서 푹 쉬고 내일 오시요잉."

기가 막혔다. 사람들은 상주의 꼴이 볼쌍 사나웠으나 돌아 가신 분이 생전에 베푼 덕을 잊지 못해 자리를 지키며 애통해 했다.

여기 저기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돈 좀 벌더니 사람 아주 버렸당께."

"지기 어머니 죽을 날만 기다린 사람 같구만잉."

다음날 아침이었다. 여자 상인들은 백의를 입었고 남자 상인들은 마복대신 누누한 광목으로 된 상복들을 입었다.

박 씨의 아내 역시 상주와 같이 눈물 한 방울 쥐어 짤 생각도 없이 문상객들의 눈치만 살폈다.

"내가 얼마나 놀러부렀는지 시방도 정신이 없으라우."

사사건건 나서던 사촌 형님이 박 씨에게 왔다.

"어머님이 불교당가 천주교랑가?"

"그건 뭣땀시 물으신다우?"

"천주교 신자가 와서 기도하면 자네도 기도하고, 불교 신자가 와서 절을 헌께

자네도 절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장사를 하는 거랑가?"

사촌 형님은 박 씨를 보고 연신 눈을 흘겼다. 박 씨는 배를 불룩 내밀고 중얼댔다.

"좌우당간 형님은 가만 있으랑께 현대에 현대식을 따르면 그만잉께로."

"자네 상주 노릇 제대로 못하면 두고두고 욕 먹을 것잉께 두고 봐. 어머니 생전에 효도를 못한 것에 반성도 없단 말인가."

"뭣땜시 그런당께라우. 형님 할 도리나 다 하시요. 나는 내 할 일 할탱께라우."

박 씨는 입술을 내밀고 장소를 옮겼다.

그때였다. 문상객에 섞여 술을 마시던 중년 사내가 소리를 질러댔다.

"니기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여? 내가 바로 그 때 그 사람인디."

중년 사내는 비틀 걸음으로 헤집고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댔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노나니~ 꺼욱 배가 부르구만잉."

사내는 궁둥이를 뒤로 빼고 어깨춤을 추어댔다. 박 씨는 보다 못해 그에게 갔다.

"뭣하는 놈인디 초상집에 와서 기분내고 지랄이랑가."

박 씨는 사내의 멱살을 잡았다.

사촌 형님이 다가와 사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사내가 끌려나간 후 영안실내는 수군거리는 소리로 웅성거렸다.

"상주가 물건잉께 별일 다 있네라우잉."

"영안실 단골인 모양인디."

"예식장이나 갈 일이지 상가엔 벼라별 놈이 있구만 잉?"

사람들 중 하나가 박 씨를 보며 비아냥거렸다.

"그 분도 호상인 줄 알고 왔구만이라우."

옆 사람이 그의 말을 받았다.

"영안실에 단골로 와서 얻어 먹고 가는 모양인디 실컷 먹고 돈까지 타가는 사람도 있당께라우."

얼마 후 사촌 형님이 들어 왔다.

그는 문상객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참 별놈이 다 있으라우. 나보고 술값 달라고 허지 않는기라우? 내가 후미진 골목에 끌어다 두고 왔지라우잉."

사촌 형님은 영안실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분주히 자리를 옮겨가며 고인의 덕을 상기시켰다.

여기 저기서 화투판이 벌어졌다.

밤은 깊어갔다.

영구차는 다음날 열시반에 도착했다.

승용차를 선두로 해서 영구차 순으로 차순을 정했다. 영구차 뒤 영구실에는 레일이 달려 있어서 관을 걸쳐 밀기만 하면 스르륵 안으로 옮겨졌다.

"생인들은 맨 뒤에 타세요."

운전 기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다.

"꼭 그래야 하는 이유라도 있당께라우."

"영령을 모신다는 뜻에서 영령 모신다는 곳에 타야지요."

상인들은 두 말 없이 맨 뒤에 탔다. 리본을 두른 선두차는 고인이 묻힐 천주교 묘역인 갑을산으로 향했다.

샘내마을을 지나 꼬불꼬불한 산길을 십오분쯤 달려 올라가니, 개간한지 얼마 안된 오천평 가량의 묘역이 나왔다.

미리 준비하고 있던 인부들은 하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인부들은 관이 도착하자 관을 뜯어내고 시신만을 하관했다. 하관된 시신 위를 덮개판으로 덮었다. 가운데쯤 되는 덮개판 하나를 들어 내어 무덤가에 올려놨다. 그 위에 홍실을 얹어 놓았다.

"여기다 노자를 놓으세요."

옆에 있던 인부가 장단을 맞췄다.

"이왕이면 비행기표랑 끊어야지요?"

돈들이 놓여졌다. 돈은 인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홍실은 시신 가슴에다 넣었다. 덮개를 덮고 인부는 나왔다.

상주부터 순서대로 세 삽씩 흙을 떠서 덮개 위에 부었다. 흙이 평지 위로 올라왔다.

달구질이 시작됐다. 묘 양쪽 귀에다 막대기 하나씩을 꽂아 표시해 놓았다. 긴 장대를 들고 한 사람은 소리를 매기고 여섯명이서 노래소리에 맞추어 발을 쾅쾅 굴러댔다.

"어허야 달구지야"

인부들은 발을 굴러 밟았다.

"상주들 뭣하나 노자를 많이 놓지. 어허야 달구지야."

"황천 길은 영원한 길 다시 못올 길이련만 어허야 달구지야."

박 씨는 묘 옆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도토리 묵을 좋아하셨는디…… 고향에서 도토리를 따다가 넘어지신 모습이 엊그제 같은디……"

박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렸다.

가난을 떨쳐내려 고향을 버렸고, 효를 잊었던 후회의 통곡은 어머니를 땅 속에 묻고 나서야 통곡으로 터져 나왔다.

제 정신을 상실하고 억척같이 살아온 서울 생활 삽십여 년, 메말랐던 눈물의 샘에서 피눈물이 치솟았다.

"어머니!"

박 씨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묘위에 묻고 몸부림을 쳤다. 기억 속에서 퇴색되었던 고향의 산과 들이 보이고, 어머니의 생전 모습이 떠올랐다.

박 씨는 울어야 했다. 울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다. 예리한 비수로 변해 가슴을 파헤치는 때늦은 후회의 눈물은 산을 적시고 있었다.

박 씨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더니 사촌 형님을 올려 보았다.

"어머닌 도토리 묵을 좋아했으라우 도토리 묵을……"

그는 다시 묘위로 엎드려 울더니 풀썩 실신하고 말았다.

그는 돈만 아는 인간은 아니었다.

잠시 잊고 살아야만 했던 고향과 효를 어머니의 죽음으로 되찾은 것이었다.

묘에서 건너보이는 불곡산엔 무수한 도토리나무들이 잎도 가지도 모두 떨구어낸 채 초겨울 바람에 으시시 떨고 있었다.

북한산에 오르니

이 당 재

- 1942년 전남 영광 출생
- 조선대 법정대 법학과 졸업
- 연세대 교육대학원 졸업
- 육군 소령 예편
- 월간 『문예사조』수필부문 당선으로 문단 데뷔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수필가협회 회원
- 현 노원경찰서장
- 저서 《행복의 둥지를 찾아서》, 《경찰지휘통솔 연구》 등이 있다.

산(山)은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가슴처럼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어 좋다. 산은 말이 없는 가운데 스스로를 다 드러내 놓고 인간의 고뇌를 감싸주기라도 하듯 우리 모두를 포용하는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은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가장 높고, 도심 깊숙히 산자락이 뻗어내려 있다. 서울 어디에서나 바라볼 수 있을 뿐아니라, 문밖을 나서면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한 친근감으로 자주 오르고 싶은 충동을 어찌할 수 없다.

태백산맥(太白山脈)에서 분파(分派)된 광주산맥(廣州山脈)이 한강변 팔당(八堂)까지 이어지는 도중, 운악산(雲岳山) 남쪽에서 서남쪽으로 갈라져 내려 도봉산을 이루고, 백운대(白雲台), 인수봉(仁壽峰), 만경대(萬景台)의 세 봉우리가 삼각을 이루면서 우뚝 솟아 마지막 결승(結勝)을 이룬 곳이 북한산(一名 三角山)이다. 북한산의 여맥(餘脈)이 인왕산(仁旺山)과 안산(按山)으로 이어져 서울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음으로써 5백년 도읍지 서울의 진산(鎭山)다운 영산(靈山)의 기개(氣慨)를 함축하고 있어 한강과 더불어 이 나라 민족문화 발전의 터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가을이 짙어가는 일요일, 백운대를 오르는 길목에서 우연히 동행하게 된 어느 스님의 삼각산으로 명명하게 된 전설의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하였다. 만경대는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무학대사(無學大師)와 국도(國都)를 논의했다 하여 국망봉(國望峰)이라 불리어졌고, 북쪽에 있는 백운대는 태조가 잠구시(潛邱時)에 이 산에 올라 「손으로 넝쿨 휘어 잡으며 푸른 봉우리로 올라가서 백운(白雲) 한 가운데 암자 하나, 높이도 자리잡고 있네. 눈에 보이는 곳 다 가져다 우리 땅 삼는다면 오월(吳越)의 강남(江南) 땅 어찌 받아들이지 못하리」라고 읊은 시귀(詩句)의 「백운」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고, 동쪽의 인수봉은 공자(孔子)가 논어의 옹야(雍也)편에서 「인자는 산을 좋아해 조용하고 고요하기가 산과 같아 조용히 서둘지 않음으로 장수(長壽)를 누린다. (仁者樂山 仁者壽)」의 뜻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는 까마득한 전설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머물게 했다.

멀리서 바라보는 북한산의 암봉(岩峰)은 마치 남극의 바닷새 펭귄이 나래를 접고 곧추 서있는 것 처럼 보인다. 가파른 절벽과 준엄한 산세가 자연석성(石城)을 이루고 있어 이태조(李太祖)가 국가위난에 대비하여 도읍지로 정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략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절승(絶勝)을 이루고 있는 우이동, 세검정, 북한산 계곡 등 여러 산골짜기마다 속옷을 겹겹이 껴입은 요염한 여인네의 치마자락처럼 수많은 역사와 전설, 문화 유적이 숨겨져 있어 헤집고 볼수록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역사적 유물로는 북한산성과 행궁(行宮)터, 진흥왕 순수비가 있고, 승가사, 도선사, 태고사, 화계사, 진관사 등 곳곳에 사찰과 암자가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무념무상(無念無想)한 불심(佛心)에 잠기며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우치게 된다.

조선조 숙종(肅宗) 37년 1711년에 왕명에 의한 대대적인 축성공사로 완성한 북한산성은 자연석 하나 하나의 아귀를 그리도 잘 맞추어 산세를 따라 용(龍)허리처럼 축조된 길이 8km에 달하는 석축성곽(石築城廓)을 돌아보노라면 려말(麗末) 몽고군의 격전과 조선중기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시에 국토수호를 외치는 맹렬한 진중(陣中)의 함성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우국

충정의 숙연해지는 마음이 면면히 가슴에 와 닿는다.

성벽을 통할 수 있는 대서문을 비롯하여 대남문, 대동문 등 큰 문과 보국, 용암 등 암문(暗門)을 합해 14개의 성문이 있어 효자리, 진관동, 구기동, 국민대학, 수유리, 우이동 등에서 남북으로 손쉽게 넘나들 수 있어 각박한 도시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자동차로 집을 나서면 십여분내에 닿을 수 있는 우이동 계곡의 2만여평 대지에 문화재급 전통 한옥으로 단장한 민속 관광 음식점인 고향산천의 추녀 끝에 달린 풍경(風磬)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맑은 미풍을 타고 울려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산로에 접어들게 된다. 아침의 엷은 안개가 신부의 면사포처럼 가려진 연록빛 숲사이로 지저귀는 산새 소리와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있어 삶에 찌들어진 몸과 마음을 한결 청정(清淨)하게 해준다.

봄이면 개나리, 진달래, 산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여름엔 하늘을 가리는 지붕처럼 녹음방창한 우거진 숲이 여름비가 내린 뒤 세차게 흐르는 개울물과 함께 무더위에 허위허위 산을 오르는 힘겨움에 흐르는 땀을 식히기엔 오히려 차가움을 느낀다. 맑고 높은 가을하늘 아래 붉게 타오르는 단풍(丹楓)은 한여름 초록색으로 단장했던 온 산을 황홀한 진홍색 비단옷으로 갈아입히고 계절을 축복하듯 하지만 발밑에 떨어져 누운 낙엽을 밟으면 세월과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된다. 다 져버린 빈 가지에 삭풍이 불어오는 추위와 외로움에 참다 못해 피어난 듯 하얗게 핀 눈꽃〔雪花〕을 바라보노라면 그 신비의 절경 앞에 한 없는 사념 속으로 이끌리어 탄복케 된다. 계절따라 변해 가는 이 북한산의 4계(四季)를 주말이나 휴일이면 빼놓지 않고 산이 놀랄세라 조용히 오르내리며 자연의 오묘함에 심취하는 원로(元老) 등산가도, 언감생심 산을 정복한다고 오만을 부리는 한 패거리 젊은이들의 왁자지껄한 행렬도, 북, 장구, 확성기로 떠들어대는 서울의 시골뜨기 등 수많은 계층, 수많은 인파를 넓은 바다가 물의 청탁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듯 그 너른 산자락의 여유있고 너그러운 품안으로 안기우는 것을 보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배울 수 있었다.

북한산이 거기 있어 받아들임과 스며듬이 있기에, 삭풍이 부는 나무가지에 매달린 연(鳶)모양, 오가는 바람결에 고달픈 인생의 삶이지만 바람 자고 평온한 날이면 한가로이 북한산에 오르니 피곤한 심신에 힘찬 젊음이 다시 솟구치게 되어 그런대로 세상살이 즐거운 것이 아닌가 한다.

올해는 정도(定都) 600년을 맞이하여 고색창연한 문화유적의 모습이 잘 보존되고 되살리는 복원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 북한산을 찾는 이로 하여금 옛 정취를 더욱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文道采 시집

산은 산대로 나는 나대로

시문학 2500원

朴鍾哲 시집

안개도시

글세계 2500원

김군자 시집

나무 속에 흐르는 강

진솔 2500원

강성숙 시집

도시 속의 허수아비

진솔 2500원

中年의 자리

강 경 애

• 92년『시와 시론』수필 당선으로 문단데뷔
• 문협 의정부지부 수필분과위원장

내 나이 이제 40을 넘긴 중년의 나이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 해가 다르게 얼굴의 탄력이 느슨해짐을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렇듯이 어느 날 문득 나이가 들었음을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을런지 적을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남은 생을 예견해 보고, 지나온 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머문 듯 가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처럼 어느 틈에 '젊었을 때는……'을 서두로 달게 되는 서글픔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된다. '인생은 사십부터'라는 말은 인생은 사십 세까지라는 말이며 사십 세부터는 여생이라고 말한 피천득 씨의 글을 읽었다.

그것은 앞서 못했던 일들을 하며 인생의 끝자락에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생을 살라는 의미가 아닌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본다.

치기어린 행동과 말도 모두 수용이 가능했던 20대의 열정적인 때와 그 불꽃 같은 열정을 잠재우기 시작했던 30대의 초반도 다 지나가 버린 30대 후반부터는 너그러움을 애써 가슴에 안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받아들여야 했던 나날들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보다 먼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남편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지만, 난 그런 그의 모습이 노련함과 원숙함을 풍겨서 좋다.

간혹 T.V를 보면서 느끼는 일이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던 연예인이나 유명인사들이 귀밑에서부터 온통 하얗게 서리가 앉은 머리와 주름살이 군데군데 보이는 탄력 없는 모습으로 화면에 비쳐지면 '많이 늙었구나' 하는 아쉬움과 함께 편안함을 갖게 된다. 팽팽하게 젊었을 때는 자칫 오만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친근한 감정으로 다가서게 된다고 할까. 그것은 너나 할것 없이 모두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40세부터의 얼굴은 스스로가 만든다는 말이 중년이 되면서부터 늘 가슴 한 복판을 차지하고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더 우아하고 지적이며 원숙한 표정을 만들고자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내 자신을 무섭게 담근질하며, 힘들게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계절의 변화가 있는 날이던가, 바람이 부는 날, 전화박스 앞을 지날 때면 예외없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걸어 그리움을 토해버리고 싶어지는 마음이 문득문득 들곤 한다. 이런 시도 때도 없이 달아오르는 감정을 애써 누르기 위해 중년이라는 인식을 하게끔 수시로 얼굴에 거울을 들이대고 내이를 세어본다. 그리고 마주서면 고개를 젖혀 한참을 올려다 보아야만 하는 아이들을 떠올린다. 세월이 흘러 놓일 자리가 바뀌면 모든 인식의 흐름조차도 바뀌어져야 하는데 도통 그런 낌새가 없을 때면 당혹감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도 20대에는 보이는 사랑만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보이지 않는 사랑은 감지(感知)조차도 못했건만 이제 보이지 않는 무언(無言)의 사랑을 진실이라고 믿게 되었음은 연륜 탓이 아닐까. 나보다 나은 친구나 이웃으로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 그러나 정작 상대방에게는 거만한 태도와 너그러운 웃음으로 짐짓 자신을 포장하려는 위선을 보이는 것도 나이를 의식해서일까? 윤기가 도는 팽팽한 얼굴과 매끄러운 머리칼을 소유하고 있는 젊은이가 부러울 때도 있다. 허지만 꺼칠하고 탄력 없는 얼굴, 윤기 없는 머리칼에 새치가 군데군데 차지하고 있는 중년에게서 포용력과 안정감,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음으로 해서 중년임을 서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덜 익고 설 익은 과실보다는 농익은

과실에서 양질의 과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과정 또한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된다. 그 과정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알아야 됨이 아닐까. 그것은 중년부터 삶의 모습이 그 사람의 노년과 연관이 되기 때문이다.

노년에서 보면 중년은 아직도 가능성이 무한히 많은 청춘으로 생각될 것이다. 다가 올 허망함을 미리 가슴 아파할 이유는 없다. 남은 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며 죽기 전에 '아, 잘 살아냈다.'는 끝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름답게 늙어가는 연습을 해둠이 어떨까. 아직은 중년이라서 좋은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내며 거울 속의 얼굴에게 미소를 보낸다.

박영환 시집

공단일지

정인출판 2000원

전덕기 시집

허락받은 이 한날은

한국시 3000원

백한이 시집

하늘과 땅 사이

한누리 2500원

버려진 헌 여름 구두

金 英 希

• 92년 『문예사조』 당선으로 문단데뷔
• 문협 의정부지부 부지부장

며칠째 주룩주룩 쏟아지던 장마비가 오늘은 맑게 개었다.

그동안 회색빛 하늘로 우울했던 내 마음을 모처럼 푸른 하늘자락이 환하게 열어준다.

우리집 뒤켠 고요한 숲속에서 시원한 녹색바람이 향긋하게 불어오고, 풍성한 여름철의 새소리는 매미소리와 함께 숲속으로 흔건히 고인다.

나는 여름이 되면 여느때처럼 흰 구두를 산다. 겨울에 즐겨 신던 목 짧은 부츠나, 뒷굽이 낮은 검정 구두는 그런대로 5월 초순까지는 신을 수 있지만, 6월이 되면 어쩐지 탁해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주머니를 털어서 구두가게를 찾아간다. 어쩌다 구두표를 선물로 받으면 아꼈다가 연말이나 특별한 날에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해왔고, 아직까지 이름있는 양화점에서 내 손으로 거금을 주고 신발을 사서 신어본 적은 거의 없다.

나는 나의 외모에 남다르게 무관심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나 할까?

값싼 구두이지만 산뜻한 마음으로 여름을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새 신발을 사게 된다.

그렇게 사서 신은 값싼 신발은 얼마 신지 않아서 금방 뒷굽이 닳아진다. 그때 바로 굽을 갈아줘야 하는데 어찌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고 조금만 걸어도 쇠붙이가 드러나서 걸을 때 구둣소리가 불안전하게 한다.

그 구둣소리는 본인도 듣기 싫지만 지나가는 사람이나 함께 걷는 사람에게도 신경을 쓰이게 한다.

외출할 때를 생각해서 닳아진 굽을 미리 갈아 놓으려고 이곳 저곳 근처를 기웃거렸지만, 내가 사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이라 굽갈이 하는 곳이 없었다.

며칠 후 양주 보호관찰소 회의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할 수 없이 망가진 굽을 갈을 사이도 없이 그대로 신고 집을 나섰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신발은 걸음걸이도 명쾌하지만 망가진 신발은 걸음걸이도 어색하기 마련이다.

시내에 들어선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에 회식하느라고 신을 모두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쩌나…….

뒷굽 가죽까지 벗겨져서 너덜거리는 내 신을 보이게 될 것 같아서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졌다.

할 수 없이 새 구두를 사기 위해서 근처 신발가게에 들어갔다.

만 오천원 하는 구두를 사서 신었다.

다시 와서 찾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헌 구두를 싸놓으라고 했더니, 가게 주인 아줌마는 나를 보면서 소리내어 크게 웃었다.

나는 그 아줌마가 왜 웃는지를 알고 있었다.

수선비가 아까울 정도로 엉망이 된 뒷굽을 본 것이리라.

그러나 나는 비가 오는 날은 그 헌 구두를 굽만 갈아서 신을 생각으로 이튿날 맡겨둔 그 구두를 찾으러 갔다. 그런데, 아줌마가 말하기를 헌신을 버릴 때 함께 휩싸여 갔는지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다음에 또 한 켤레 사서 신고, 그 헌 신은 미련을 싹 버리라고 했다. 순간 나는 마음이 허전하고 착잡했다. 그런대로 고쳐서 신을려고 했는데, 화를 낼 수도 없어 그냥 포기했다.

그 헌 구두가 나하고 정식으로 이별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섭섭했다. 버리더라도

내 손으로 버렸어야 마음 속으로 잊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어느날 K친구가 찾아와서 새로 산 내 여름 구두를 보더니 "아니 왠일이야? 굽갈이가 아니고 또 샀잖아? 배 아파서 어떻게 샀어?"라고 했다.

그 배가 아프다는 말은 내가 한 얘기다.

언젠가 날더러 "너 옷 좀 사라! 그만 울거 먹고" 하길래 "왠지 옷을 사려고 마음을 먹으면 배가 아파진다"라고 내가 말을 했기 때문이다.

원피스 하나 장만하면 10년 이상 두고두고 아껴 입는 나의 개성을 알기 때문이다.

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체중이 불어나면 줄넘기를 해서라도 체중을 감량시켜가며 그 옷을 입는다. 그러기 때문에 평소에 굽이나 깔창까지 뜯어서 고쳐 신다 보니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오래 된 옷도 쉽게 버리지를 못한다. 시대에 맞게 자르고 고쳐서 외출할 때에 입고 나서면 승리감 같은 것이 훈훈하게 가슴을 채워 준다.

내생활에 옷차림이 그러하니 하물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나의 여름 구두를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버려진 내 헌 여름 구두는 지금쯤 어느 쓰레기통에서 썩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쓰레기 하치장에서 나를 찾고 울고 있는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딩구는 어느 가을에 그 신발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아직도 마음 속에서 지워지지 못한 그 헌 여름 구두가 문득 생각이 났다. 앞으로는 신발을 사 신을 때, 헌 신은 절대로 절대로 그 가게에다 맡기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조규일 시집

내 가슴에 피는 꽃

영하 3000원

베로니카

배 동 순

• 제7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산문부 장원
• 문협 의정부지부 간사

텔레비젼으로 문득 눈을 돌렸을 때 검은 수녀복을 입은 여인 둘이 나오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다.

그 여인 중의 하나가 나를 보고 살짝 미소지었을 때 향수와도 같은 나의 친구의 모습이 머리 속에 피어 올랐다. 양옥자(베로니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이 언제였던가. 7년, 8년 아니 9년. 그러면서도 순수한 얼굴로 가끔씩 다가와서 웃음짓고는 슬쩍 내 마음 속 한편으로 도망쳐 버리는 그 녀.

옥자를 만나고 알았던 기간은 아주 잠깐이었다.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모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옥자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근로 청소년이었다.

그 애의 동그란 눈 그리고 까만 뿔테 안경, 하얀 피부, 처음에 난 그 애의 순수한 얼굴을 보면서 나보다 어리겠지 하는 자만심에 '옥자야 옥자야'라고 자연스레 불렀고 옥자는 나를 언니라 불렀다.

어느 일요일 옥자는 핫도그 한 봉지를 사들고 나를 찾아 왔다.

"언니와 얘기를 하고 싶어."

노련한 선배처럼 나는 그 녀를 대해 주었고 옥자는 크고 작은 문제를 나와 의논하곤 하였다.

수녀원 앞 잔디밭에 앉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옥자가 나에게 물었다.

"언니는 몇살이야?"

"응, 난 스물 한살이야."

어머 그럼 언니 뱀띠야 나도 뱀띤데."

순간 나는 그 애를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린 친구가 되었고 옥자는 평일에는 학교로 회사로 바빴고 일요일에는 가끔씩 성소 모임에도 나가며 나름대로의 신앙에 내실을 기하고 있었으며, 또한 핫도그를 무척 좋아하여 내가 퇴근을 하고 일찍 들어오면 핫도그 봉지를 내 앞에 내밀어 둘이서 몰래 숨어서 먹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난 회사에 불쑥 사표를 던졌고 나 나름대로의 고민에 사로 잡혔다. 이런 틀에 박힌 생활에서 뛰쳐 나가느냐 아니면 수도자의 길을 걸어갈까 하는 것이었는데 수도자의 길을 생각했던 것은 내 환경이 그러하였고, 또한 같이 살던 기숙생들 중에 수도자의 길을 택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사치한 감정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그래서 난 고민하였고 그때 옥자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단순한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진정한 나의 성소를 찾으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농담처럼 덧붙이던 말은 네가 수도자가 되든 내가 수도자가 되든 언젠가 서로 다른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거든 그때 꼭 핫도그 한 봉지를 사들고 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핫도그를 먹으면서 옛일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주 보고 웃었고 그러자고 약속을 하였다.

그후 결국 나는 평범한 내 삶의 성소를 찾았고 수녀원을 떠나왔다.

또 다른 삶을 시작한 나는 그곳의 일을 잊어갔고 가끔씩 옥자가 보고 싶긴 했지만 선뜻 찾아가지질 않았다.

얼마 전 친구를 통하여 옥자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수원에 있는 모 수녀원에서 수녀님이 되어 있다는 말을.

결국 옥자는 제 성소를 소신껏 찾은 것 같았다.

이제 이번에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핫도그를 한 봉지 가득 사들고서 한 손에는 큰 아이의 손을 잡고 임신하여 뚱뚱한 몸을 이끌고 크리스마스 때쯤에 맞추어 그녀를 찾아 간다면 아마도 옥자는 "웬 산타 아줌마"하고 놀라면서 그 해맑은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울 것 같다.

구상회 시집

구름에 실린 바람

호서문화 4000원

鄭光修 文學平論集

禪의 論理와 超越的 象徵

한누리 10000원

申世薰 시집

조선의 天平線

미래문화 2500원

洪思安 시집

半生의 꿈

인선출판 3000원

수필

아주버님께

백 일 영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아주버님!

아주 느리고 다정하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시숙과 제수 사이는 가장 어려운 사이라는 통념이 말해 주듯, 그 간격의 아득함에 늘 서성거리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 매우 소심한 저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언제나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계시지만 선뜻 손내밀 수 없는 그런 한 분이십니다. 최상의 관계유지를 위한 저의 서툰 시도를 푸근한 시선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 주십시오.

4형제 중 셋째인 저희들 결혼때, 동생의 또 다른 화려한 선택을 은근히 부추기시며, 저를 혼돈케 하셨던 아주버님! 그땐 정말 섭섭했답니다.

시작부터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불균형 속에서 저희들의 신혼을 깨끗한 전세방으로 정해 놓았을 때. 긴 안목으로 볼 때, 건물가(價)는 전혀 없는 하꼬방 집을 추천하시며, 수입의 반 이상을 이자로 지출하는 무리에 무리를 더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권유하셨지요.

결혼의 환상 속에 있던 저는 미래의 계획달성을 위해 무리한 절약을 하며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는, 느낄 것 느끼고, 누릴 것 누리며 현재를 즐겨야 한다는 짧은 생각으로 주저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런 저를 "아직 멀었다"는 직접 화법으로 못마땅해 하셨고, 생략해도 좋았을 그 언급에 대하여 저는 자주 상심하여 아주버님께 더 거리감을 느끼며 심한 감정의 대립 속에 있었습니다.

살면서, 선택에 대한 시행착오가 느껴져 아쉬움도 있었지만, 물질을 얻었다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잃었을 거라고 생각하여 저희 다섯식구는 '사랑과 건강' 이라는 가훈 아래 적당히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머리 잘못 써서 사서 고생한다' 며 늘 못마땅해 하던 저희에게 당신 집 아래층에서 함께 살면서 내 집 마련계획을 앞당겨 보라는 엄청난 또 한번의 제의를 해 오셨습니다. 일단, 인정 받은 것에 기뻤으나, 그 사려 깊은 제의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동서 시집살이는 오뉴월에도 서릿발 친다」는 말에 주눅들고, 서로에게 식상해져 깨어질 환상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제적으로 홀로서기의 중요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저는 "남자 형제간 의리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기본의식만 확고하다면 살아 볼 만하다고 생각하여 지금의 이곳으로 저희들의 삶을 옮겼습니다.

생각대로 힘들었습니다. 똑 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늘 새 기분을 갖는다는 게 어렵듯이, 같이 살면서 긴장감과 신선함이 덜해져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단 느낌에 때때로 가슴 아팠습니다. 항상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려면 늘 마주보는 자세라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며 생기는 당연한 불협화음과, 이로 인한 감정의 이상기류 등 애매했던 상황과, 늘 긴장을 위해 사는 듯한 생활패턴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햇수가 많아지면서 그런대로 섞여 사는 재미와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분배의 원칙도 가르치며 조화와 부조화 사이를 적당히 오가면서 함께 살면서 부딪치고, 부딪치면서 터득하는 철학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수했던 만큼 분발할 수 있었고 그 만큼의 성숙을 가져왔던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이며, 세무 행정까지 두루두루 다루시며 참으로 인정 많은 실력가인 아주버님!

그런 아주버님을 항상 뒤돌아서만 자랑하는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함께 살면서야 비로소 느낀 무뚝뚝하고 냉정함 뒤의 따스함을 깨달은 저의 우둔함을 탓해 봅니다.

딱 한번의 아련하고도 아름다운 기억이지만, 제 등을 두드리시며

「나, 미워하죠!」라고 말씀하셨던 그 깊은 뜻과 신선한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부부는 꾸준히 노력하여 저희들의 목표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저기, 멀지 않은 거리에 저희들의 라스트라인이 보입니다.

끝까지 저희들의 화이팅을 빌어주시고 제가 어떤 일로든 견디어 냄의 한계를 느껴서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것이 제 자신에 대한 존재가치의 상실로 이어져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문을 두드리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분 되어 주실 거죠?

제 손 잡아 주실 거죠?

저희 가족의 「커다란 전환」을 위해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로 지켜 주시고 시부모님의 빈 자리마저 채워 주시려 하시는 아주버님!

이젠 어떤 극한 상황이나 감정의 손상에도 그냥 견디어 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되고저 합니다. 나날이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쓰며 살겠습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형제간 함께 살기의 절대적 원인 제공자였던 아주버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셋째 제수 올림

田丙宅 時調集

三月의 소리

미리내 4500원

서울 탈출기

선 우 영 자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거실 유리창 밖은 온통 물안개 뿐 밤부터 흩뿌리기 시작한 가을비는 아마 진종일 같은 리듬으로 내릴 모양이다. 이런 날에 나는 나이에 맞지 않게 아주 감상적이 되어 가슴이 설렌다. 아직도 그런 순수가 남아 있다니 철이 덜든 탓일까?

비 내리는 오후의 달콤한 적막과 작설차 한 주전자. 그리고 마음의 고요를 가져다 주는 고운 책 한권. 이런 모든 것들이 가슴 저리게 감사히 느껴진다. 이런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아마 자연과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이란 걸 나는 요즘 뒤늦게 깨닫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40년을 그곳에서만 살았다. 서울을 벗어나서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몇년 전 한달반 동안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고향을 그리는 사람처럼 매연낀 뿌연 서울의 하늘이 그리웠던 적도 있었으니까. 그만큼 서울도 나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그러니 금년 7월 이곳 의정부 금오동으로 이사할 결심을 한 것은 나에게 큰

결단일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서울로 출퇴근 하는 교통시간이 제일 아까웠다. 꼬박 한시간 반이나 소요됐기 때문에 성질 급해서 버스도 진득이 못 기다리고 언제나 택시 타고 다니는 나에게는 큰 과욕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갈 만한 문화시설, 쇼핑 공간조차 마땅치 않아 천상 서울을 드나들며 서울의 시설을 빌려야 한다는 이등시민으로의 전락(?)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난 왜 이렇게 한가지 밖에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간일까. 일상의 불편함은 부지런함으로 충당하면 그뿐 자연과 더불어 살며 느끼는 이런 정신적 풍요로움을 그런 것들과 바꾸려 했으니……

서울에 살 때는 앞에 우뚝 서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집을 들여다 볼까 봐 커튼을 꽁꽁 닫고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가릴 필요가 없다. 막힘 없이 탁 트인 유리창 밖 그 자체가 철따라 변화해 주는 한폭의 산수화인 것을.

맑은 날 밤이면 하늘 가득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과 대화할 수 있고 안개낀 밤이면 마치 구름 위의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지 않는가.

뻐꾸기 소리로 아침을 맞으며 약수터에 오르면 그 신선한 공기와 청량한 바람. 서울의 아차산 약수터에 길게 늘어선 플라스틱 물통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약수를 기다리지도 않고 맛볼 수 있다는 기쁨에 또한 즐겁다.

홀로 있는 낮에도 외롭지 않다. 나무들의 사열을 받으며 천천히 산길을 오르면서 살아온 내 삶의 자취를 더듬어 보는 시간도 소중하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건만 좁은 소견에 그 때마다 고집을 세우고 매달리며 온 마음으로 허둥대며 살았던 일들이 어리석어 보인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이 비우니 이렇게 가벼운데. 일상의 타성에 젖어 살면서 생동감을 잃고 무기력과 권태감을 마주보는 사람에게조차 느끼게 했던 나를 반성해 본다.

벼가 누렇게 익던 두번의 일요일에는 배밭 부근 논두렁 풀밭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한나절 메뚜기 잡이에 몰두하며 모처럼 동심의 세계를 맛보았고, 배밭에서 직접 딴 달디단 물이 뚝뚝 흐르는 배를 먹고.

설악산 단풍이 서러우리만치 고운 적성 가는 길의 단풍을 즐기며 산골짜기

무슨 민물매운탕 집에서 소주 한잔 곁들여 얼큰한 매운탕에 먹은 점심 맛이란. 서울에 살 때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유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은 오래 묵은 포도주 같이 언제나 친근하고 푸근한 친구와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가리지 않고 조심하지 않아도 흉 될 것 없는 친구를 옆에 두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인가.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든 것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하고 놓일 자리에 놓여야 한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있을 자리에 제대로 놓여진 것 같은 편안함을 이 가을 처음으로 느끼면서 이사할 것을 적극 권유한 친구에게 고맙게 생각하며 이곳에서 평생토록 자연과 더불어 안주할 것을 스스로 약속해 본다.

김성년 시집

따슨 가슴 하나 기다려

문예사조 3000원

車敬燮 時調集

가을 영가

동인문예 7000원

박영하 시집

오늘 창문이 얼지 않았다

영하 3000원

수필

오 해

양 정 숙

- 제 8 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의정부지부 회원

그 때가 벌써 삼년 전이었나 보다. 팔월 어느 날인가 옆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말을 전했다. "자네 시아주버님이 싸움을 해서 파출소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보증을 서야지 나올 수가 있데요. 신랑은 어디 갔나요?"

"글쎄 안 보이네요. 잠시 근처에 간 모양인데 굳이 없는 사람 찾으려 하지 말고 아무라고 빨리 가서 큰 아빠 모시고 나와야 할 텐데 큰 일이네요. 거기 신랑이나 아니면 다른 누구라도 근처에 있는 사람이 얼른 가서 모시고 오면 안 될까요? 한시가 급한데……" 했더니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럼 내버려 둬 내 신랑 아니니까"하면서 샐쭉해진다. "누구는 뭐 내 신랑인가? 나도 내 신랑이 아니야" 별로 큰 뜻 없이 그렇게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러더니 여자가 십여미터쯤 떨어져서 도너츠 장사를 하고 있는 형님네로 가서 맏동서에게 무어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다. 시동생이 자리에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어딜 갔다 왔는지 슬그머니 나타났다. "자기 형님이 파출소에 계신가 봐요. 얼른 가서 모시고 와요. 또 싸움을 하신 모양이

에요." 했더니 남편은 빠른 걸음걸이로 형님네로 갔다 오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갔다는데?" "그럼 됐네요. 곧 나오시겠지요." 우린 이제 됐구나 싶어 마음을 안정하고 장사에만 신경을 썼다.

얼마후 시아주버님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파출소로부터 풀려 나오셨다. 남편이 반가워 하면서 형님네로 가더니 올 때는 어쩐 일인지 기분이 좀 언짢아 보였지만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럭저럭 며칠이 지났나 보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매일 먹으러 오고 가지러 오고 하는 좋아하느 떡볶기 오뎅을 큰 엄마가 발을 딱 끊고 며칠째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서 예전과 다르게 큰 집에서 찬바람이 냉랭하게 불어오는 듯하여 내가 무얼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보지만 크게든 작게든 잘못한 일이라곤 떠오르지 않는다. 남편은 혹시 무얼 알고 있나 싶어 은근히 떠보았더니 정말 무언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었다.

"지난 번에 형님이 싸워서 파출소에 있을 때, 내가 고생을 하게 내버려 두라고 했다면서,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 아차 내 머릿속에는 빛 보다도 빠르게, 무언가 섬찟하게 와 닿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 말은 당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예요. 하면서 남편에게 그날 말 전하러 온 여자와 주고 받은 얘기를 빠짐 없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까짓거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로 그런다 하여 신경쓸 것 없다 하지만 내 자존심과 고집이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렇게 그냥 되는대로 두고 지켜보는 것만으론 왠지 꺼림직하고 못마땅하지만, 그런 상태로 또 몇날 며칠이 흘러가 버렸다.

일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 같다.

아주버님이 파출소에 계실 때 말 전하러 온 사람이 맏동서에게 가서 "은지 엄마가 그러는데, 자기 신랑 아니라고 그 안에서 고생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던데요"하고 말을 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에서 맏동서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세상에 만상에 찾다가 자기 남편이 파출소에서 나오자 마자, 입에다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 "저기저 떡볶기 파는 동서가, 당신보고 허구 헌날 사람들하고 싸움질만 한다고 보호소 안에다 며칠 내버려 두라고 그랬답디다. 고생 좀 실컷해 보라구요" 악센트를 주어가며 이야기를 전하니 그 효과는 거의 이백퍼센트에 달했으리라.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난 맏동서를 원망했다. 내가 그런 말을 설사 했을지언정 나를 불러서 혼을 냈어야 옳지, 정말이지 큰 아빠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확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나로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난 뒤 어이도 없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싶기도 하여 걱정에 걱정을 하다 보니 내 얼굴에선 어느새 웃음이 떠나고 눈밑에 기미가 끼기까지 했다.

맏동서는 그렇게 즐기는 오뎅 떡볶기를 남의 집에서 사 먹고 시아주버님은 우리 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는 상태에서 추석을 맞이했다. 여태까지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도 얼굴맞대고 얘기해 본 적도 없이 갖가지 억측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오해를 하다니 이 기회에 모든 얘기를 진솔하게 해 보리라 마음 먹고 큰댁에 들어갔다. 차례상을 물리고 난 뒤 시아주버님과 한 자리에 마주하게 되어, 지나간 일들에 대해 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버님 제가 그렇게 나쁜 여자 같습니까? 팔년간을 겪어 보시고 그렇게 저를 모르세요? 언제 제가 실수일지언정 아주버님께 섭섭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가요? 제 기억으로는 전혀 나빴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어째서 제가, 아주버님 눈에 그렇게 경솔하고, 마음씨 못된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지요?"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온 얼굴이 눈물로 얼룩지고 했지만 아랑곳 없이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토해내고 나니 조금은 후련한 마음으로 아주버님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대답은 내가 원했던 대답도 기대했던 대답도 아니다, 그야말로 실망투성이의 반박 내지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마음자세가 가슴 깊숙한 자리에 차지하고 있어 어떠한 말로도 그 방벽을 뚫을 수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고 있음을 그 대답에서 느껴야 했다.

방바닥을 손으로 쳐 가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냐는 듯이 얘기를 할 때는 그저 캄캄한 벽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만 받았을 뿐 그 다음 얘기는 귀에 들어 오지 않았다.

두 달이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밤을 꼬박 새워 가며 눈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정말 제가 잘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실수 없도록 노력하고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겠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하는 식으로 다섯장이 넘도록 써서 아들 아이에게 "큰 아빠 갖다 드려라"고 전하고 심판을 받는 기분으로 답을 기다려 보았지만 그것도 헛수고였다. 어쩌면 그렇게 무반응인지 그 정도면 돌부처도 돌아앉아서 웃어주겠건만 아주버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만큼 슬펐다는 그 말씀 어느 정도인지 알 듯도 하지만 이젠 야속하고 섭섭한 마음이 자꾸 들으려 한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아주버님 생각을 들어보자 싶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주버님 꼭 드릴 말씀도 있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바깥에서 좀 뵈었으면 하는데 나와주시겠어요?" "아니, 할 말이 있으면 집으로 와서 하지 아랫사람이 돼 가지고 웃사람을 밖으로 나와라 어쩌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엎드려 그냥 엉엉 울었다.

약국 아저씨가 보고 계셨지만 개의치 않고 눈이 빨개질 때까지 그냥 목놓아 울기만 했다. 서럽고 슬프고 오만간장이 다 무너져 내렸다. 됐습니다. 아주버님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 변명하려 들지도 않고 아주버님을 깊이 알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마음 속으로 그렇게 다짐해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인정을 안 해 주시지는 않겠지. 언제인가는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질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이다. 정말 그때 내 생각 같아서는 바깥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막국수를 말아먹으며 소주잔이라도 부딪혀 가면서 내 개인적인 이야기나 집안 이야기 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귀여운 며느리가 자상하신 시아버지께 편한 마음으로 응석부리는 듯이 그러면 모든 오해와 의문은 봄 햇살에 눈녹 듯,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정말 아쉬움이 많다. 삼년 전 전화 목소리를 끝으로 아주버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이제라도 전화를 드려 볼까? "아주버님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막국수나 먹으면서, 또 소주잔도 부딪혀 가면서, 저하고의 감정들 이제 그만 정리해 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다면 그 분 성격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수필

농촌 총각 장가가는 날

이 성 녀

- 월간 『문예사조』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데뷔
- 문협 의정부지부 간사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웃마을 임 씨댁 결혼식에 가실 분들은 리사무실 앞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아오니 열시까지 탑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몇번이고 안내방송이 흘러 나왔다.

웃마을에 사는 노총각이 어렵게 색시를 맞아들이는 날이었다.

온 마을이 술렁이고 있었다.

우리집에선 내가 과방도 봐 줄 겸해서 다녀오기로 했다. 모처럼 한번 나서려면 왜 그리 할 일이 많은지 마당에 고추도 퍼 널어야 하고 무우말랭이며 장독까지 살펴보아야 했다.

집안 청소는 아예 엄두도 못낸 채, 대강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사무실 앞의 관광버스에 올라섰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바쁜 농사일을 하느라 못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보는 즐거운 날이기도 했다.

웃마을에 박 씨 영감과 아랫마을에 김 씨 할머니는 예전엔 서로 어려워서 내외를 하며 지냈었을 듯한데, 이젠 아무 거리낌 없이 동갑내기라며 반색을 했다.

평소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끼리 모여앉아 갖가지 화제가 만발했다.

"그렇게도 며느리 얻기 힘들더니 이젠 임 씨 아줌마 발 뻗고 주무시겠네."

"누가 아니래. 영감 먼저 보내놓고 자식 키우느라 끔찍이도 고생하드니만 이젠 아무 걱정 없이 살림도 늘었겠다 며느리도 얻겠다. 걱정이 없구 말구."

축하하는 마음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차안은 화기애애하였다.

기사님은 시간이 초과되었다고 투덜투덜하면서도 행여 누가 차를 놓칠까봐 좌우를 살피면서 서서히 출발했다.

버스가 마을을 막 벗어날 무렵이었다.

"스톱. 스톱 저기 왕 서방이 뛰어오구 있어요."

차안의 시선들이 왕 서방네 집쪽으로 향했다. 저만치에서 여름내 그을린 검은 얼굴에 유난히 하얀 이를 드러내며 논둑을 가로질러 달려 오고 있었다.

윗저고리는 채 입지도 못하고 손에 거머쥔 채 버스에 올라 선 왕 서방은 누기 캐묻지도 않는데 혼자 미안해서 늦은 까닭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어제 어둡도록 벼 타작을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내 벼 손질을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촌사람은 국수도 마음 놓고 못 먹는다니까요."

왕 서방은 아직도 숨이찬 듯 헉헉거리며 자리를 찾아 앉았다.

버스 뒷쪽에선 우리 마을 특산물인 부추에 관해서 작목반원끼리 한참 얘기 중이었다.

올해는 부추 시세가 좋아서 수입은 짭짤했지만 독한 부추를 계속 만진 탓에 손에 염증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와 그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느라 의견이 분분했다.

누구네는 서울에 사는 친척이 도와준다기에 맡겼더니 내년에 이식할 실파를 몽땅 잘라놓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았다는 말에 어이 없는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실파와 부추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대가 안타깝기도 했다. 우리 자식부터라도 알고 있으려니 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일깨워 줘야 하겠다.

시내가 가까워지자 교통체증이 심해 차가 느릿느릿 가기 시작했다. 시간 안에만

도착하면 될 일인데 공연히 마음 조급해 하는 사람들이 앞쪽을 기웃거리며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하객 중에서 아직 노총각인 친구들이 볼멘소리로 말했다.

"촌놈 장가들 때는 차들이 비켜 줘야 해. 교통경찰들도 협조해서 촌놈 잔치 버스라면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니까."

"걱정마. 내가 장가갈 때는 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을 테니까. 삼십년이 넘도록 기다렸으니 오늘 만큼은 봐달라고 말이야."

그들의 말이 억지 논리이긴 하지만 농촌 총각들 결혼하기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 그렇게라도 보상받고 싶은 것은 아닐까?

농촌마다 늘어가는 노총각들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듯이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단지 삶의 터전이 흙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외면당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서글퍼짐을 금할 수가 없다.

눈만 뜨면 생생한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커다란 은혜로움을 낭만으로 치부하고 마는 약삭빠른 판단들이 진정한 삶을 아는 총각들을 너무나 외롭게 한다.

사람 하나 마음에 들어 무작정 농촌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나의 생각은 이렇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옛날 우리 어머니들처럼 맹목적으로 일에만 매달려 모든 인생을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기계화 영농이 자리 잡아가면서 예전보다 농사짓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집안 살림도 도시 못지 않게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살게 되었으니 별 불편이 없다.

그러나 농촌생활은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일의 성격 때문에 곱게 물든 단풍 한번 제대로 바라볼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간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늘 진취적인 삶을 꿈꾸며 현실로 받아들이고픈 욕망에 목말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고 싶은 영화를 한편 본다 하자. 시골엔 극장이 없으니 시내로 나가야 하고, 나가자니 교통이 불편하여 거리에서 장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집안을 오래 비워야 하는 만큼, 신경쓰이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남아 있는 식구들 끼니며, 가축사료까지 넉넉히 챙겨 놓아야 한다. 영화 한편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어야만 한다.

시내 같으면 아침 일 끝내고 점심 전에 다녀오면 될 일인데도 말이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농촌 여성들은 문화적 욕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한 불만이 누적되다보면 막연하게나마 도시를 꿈꾸게 된다.

농촌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나 취미교실 같은 프로그램이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인 때문이다.

한 때나마 지적 욕구를 찾아 나선 여성들은 동네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다. 남들은 허리 펼 새 없이 개미처럼 일하는데 노래하는 베짱이로 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당신들이 그렇게 안 살아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참을 수 있다 하자.

필요 이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거기에 따르는 여건들을 맞추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져서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만다.

문화적이든 교육적이든 간에 너무 도시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촌에도 혜택을 베푼다면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도시의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을 방문하게 되고 이해하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을런지.

우리 모두가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며 해결해 나간다면 요즘 처녀들이 농촌 총각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 불편한 것은 일부분이고 좋은 점만 새록새록 늘어난다. 잔치버스 안에서 나누는 삶의 순수함이 좋고, 자연 속에서 흙을 밟으며 자식 키우는 일은 복중에 복이라 더욱 좋다.

오늘 우리 마을 노총각이 한명 줄었으니 온동네가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였다.

축하객을 가득 태운 버스는 예식장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었다.

김송배 時調集

回想의 우물가에서

광야 3000원

온누리가 풍요로운 이 좋은 밤에

임 영 희

사랑하는 해진아!

이젠 제법 매서운 바람이 오버깃 속으로 파고 드는 걸 보면 겨울도 완연하게 무르익어 가나 보다.

해마다 12월이면 어김 없이 등장하는 자선남비가 내 이웃을 한 번 돌아보게 하고 경쾌한 캐롤송이 흐르는 거리엔 수 많은 인파의 물결이 바쁘게 밀려왔다 밀려가곤 한다.

이제 머지 않아 고3이 되는 너를 보면 대견스러움과 안쓰러움이 서로 교차해서 심란한 마음이 된다.

나의 딸 해진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장녀답게 엄마의 깊은 속도 헤아릴 줄 아는 네가 오늘따라 유난히 보석처럼 빛이 난다.

동생들과 사사건건 티격태격해서 걱정이더니 오늘은 동생들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손질해 주며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은지 엄마는 하늘을 훨훨 날 것 같았단다.

네가 훗날 내 입장이 되었을 때 내 기분을 알 테지.

사랑하는 딸 해진아!

나는 네가 꿈 많은 고교시절을 마음껏 누리며 (기호에 알맞게 신분에 어긋나지 않게) 쭉쭉 뻗어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서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키우고 싶은 내 욕심과는 달리 보수적이고 봉건적인 아빠는 딸들 교육에도 유감 없이 그 진가를 발휘하시더구나.

왜 너도 기억하지?

2학년 학기 초의 어느 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오신 아빠는 얼마나 안절부절하시는지 내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다.

네가 웬 남학생들과 나란히 걷는 걸 뒤쫓다 놓쳐 버렸다지?

엄마는 너를 믿기에 그럴 아이가 아니니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고 조용히 아빠를 설득했단다.

근무중이던 아빠는 일단 회사로 들어가셨지만 그때부터 30분 간격으로 네가 들어왔는지 확인 전화를 하시는데 나는 피가 마를 정도였었다. 날은 어두워지고 너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왜 안 그렇겠니. 마침 네 친구 미영이가 전화를 했기에 급한 김에 우리는 음모(?)를 꾸밀 수 밖에 없었단다. 그 애들과는 바로 헤어지고 미영이랑 함께 있었던 걸로 말이다.

초조와 불안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너는 참으로 태연하게 들어서더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어른들이 법석을 떨었으니 네 친구들 보기도 심히 부끄러웠다.

남녀공학의 학교에서 방송반 후배들과 방송자료 사러 갔었다는 말에 엄마는 우쭐해져서 아빠께 항의했었다.

자식이 설사 부끄러운 일을 했더라도 감싸주고 싶은 게 부모들의 본능일 텐데 섣불리 매도하는가 싶어 나도 속이 상했었다.

해진아!

아주 아련한 기억 속의 아픈 추억이지만 너한테 들려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꿈도 많던 시절이었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친구들과 사직공원엘 갔었는데 저쪽에서 우리와 비슷한 수의 남학생들이 사진 좀 함께 찍자는 전갈을 보내왔었다.

우리는 분분한 의견들을 모아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은 당시 대한민국 고교생들을 기죽게 했던 ○○고 애들이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낀다고 누군가가 연락처를 물어왔고 일행 중에 우리학교를 알아본 학생이 '야야, 치워라. 수준이 맞아야지' 했단다. 그 때 얼굴에 모닥불을 끼얹은 것처럼 화끈거리던 모멸감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니?

흔히들 '공부가 다는 아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들을 곧잘 하는데, 엄마의 의견은 다르다.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기 마련이다. 못난 사람보다는 잘난 사람이, 못 배운 사람보다는 잘 배운 사람이 우위에 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지.

국민학교때부터 그림, 음악, 문학 등 다방면으로 재능이 있고, 성적도 상위권이던 네가, 지금은 성적표도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니 어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네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

사랑하는 딸 해진아!

온 누리가 신의 은총으로 충만한 크리스마스 이브다.

어쩌면 너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날을, 불과 몇 달 남겨 놓았을 뿐인 밤이기도 하다. 넌 저력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열심히 해도 어차피 대학엘 다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너희 청춘들의 특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글쎄…….

동시

양 정 숙

- 제8회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
-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내 동 생

내 동생은
내 동생은
장난꾸러기
아빠께서 사 주신
크레파스를
살그머니 가져다가
부러뜨리고
혼이 날까 무서워서
와앙 울지요.

내 동생은
내 동생은
말썽꾸러기
엄마께서 사 주신
새 운동화를
말도 없이 신고 나가
물 적셔 놓고

맞을까봐 겁을 먹고
훌쩍거려요.

동시

임 금 숙

풍 선 외 3 편

- 1991년 월간『문예사조』동시 신인상 당선으로 문단데뷔
- 일출문학회 회장 역임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 부지부장
- 저서 : 시집《엄마 꿈 나의 꿈》이 있다.
- 주소 : 의정부 녹양동 201－1 삼성전자 녹양대리점
  TEL (0351)874－0084

달줄 내려라.
해줄 내려라.

우리 엄마
빨래 줄에
꽁꽁 매어서.

가슴에 오색줄을
같이 엮으자.

풍선 타고 오색줄로
건너가 보자.

넓은 세상
어디 보자
건너가 보자.

철 부 지

내 딸은 다섯 살
난 다섯 살 때 슬픔을 몰랐다.

비로소 어미가 되어
내 딸이 다섯 살이 되고서야
나의 다섯 살 때 슬픔을 알아
눈물은 이제 마구 흐른다.

금방 매를 맞고도
엄마 찾는 다섯 살 딸 아이.

나의 엄마는
다섯 살을 맥여 놓고
어이 눈을 감으셨을꼬.

엄마의 손

연민에 맺힌

두 눈의 눈물 자욱을
가만히 닦아주던 아름다운 손.

새까만 머리를
곱게 빗겨
양갈래로 묶어주던 인자한 손.

차버린 이부자리 덮어주고
베개 베어주던 엄마의 손.

—그 손은 어디에—

아른거리는 안개 속에
출렁이는 파도 속에
활활 타는 태양 속에
떠가는 구름 속에
그 손은 엄마의 손.

어부의 딸

바다야 조용히

숨을 쉬어라
우리 아빠 고기배
다치면 안돼.

바다야 고기떼를
불러 주겠니
우리 아빠 광주리가
가볍지 않게.

바다야 바다야
너는 알겠니
우리 엄마 제사가
내일이란다.

외 둥 이

김 영 순

- 『한국일보』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
- 현대아동문학상 수상
- 문협 의정부지부 고문
- 저서 《늦둥이》 외 15 편

나는 오늘도 고향집 대문턱을 넘으며, 그 때 일을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코흘리개였을 때니까 30년쯤 전의 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호랑이 영감님'으로 온 동네에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별명 만큼이나 무섭고 엄하셨기 때문에 동네 이장님도 우리 할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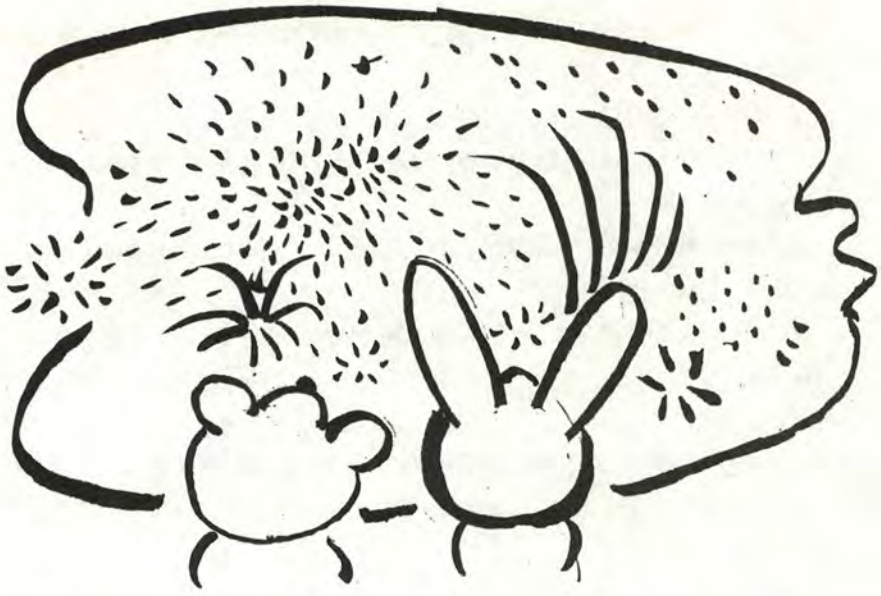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물론 동네에 사는 친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보면 무서워서 슬슬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은 우리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다른 손자, 손녀보다는 나를 유다르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내가 우리 할아버지의 유다른 사랑을 받은 까닭은 우리 아버지가 3형제 중에서 맏잡이며, 또 내가 외둥이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 위로 누님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남매의 나이 터울이 서너너덧 살 차이가 나서 맏누님의 나이는 그 때 벌써 열여덟 살의 처녀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인 큰 누님도 할아버지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용돈을 타낼 때는 나를 꼭 중매잡이로 내세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단돈 10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내게는 가끔 선심을 쓰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 때에는 나를 업고, 동네 어귀에 있는 떡집으로 가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시루떡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옆 가게에서 약주를 드시는 동안 나는 따끈따끈한 시루떡 한 접시를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먹어 치웠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내 주먹 만큼이나 큰 알사탕이 그 가게에 새로 나왔습니다. 꿀같이 단맛에 박하 향기가 감도는 박하 알사탕이었습니다.

나는 그 알사탕을 맛보고 나서는 떡집의 시루떡은 보기도 싫어졌습니다. 그 알사탕은 시루떡보다 열 배, 아니 백 배는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나는 할아버지께 알사탕을 사 달라고 자주 졸랐습니다.

"알사탕을 먹으면 입맛이 없어진다."

할아버지께서는 사탕을 자주 먹게 되면 이빨이 썩는다고 잘 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사탕이 먹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할아버지가 낮잠 주무시는 틈을 타서 5원을 슬며시 훔쳐냈습니다.

나는 동네 어귀에 있는 가게로 달려가 5원을 주고 알사탕 다섯 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에 와 보니 아무도 모르게 사탕을 먹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나는 몰래 먹을 곳을 한참 찾다가 열어 놓은 대문 뒤에 숨어서 사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사탕이 어찌나 큰지 입안에 가득 고이는 단물을 꼴깍꼴깍 목구멍으로 모두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는 입 양쪽으로 사탕물이 흘러내려 입 주위가 온통 끈적거렸습니다.

"용아, 용아. 이 녀석이 어딜 갔지?"

그 때 나를 찾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 왔지만 나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문 뒤에 숨어서 알사탕만 빨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찾고자 온 동네를 찾아 다니시며 애태우셨던 할아버지는 아랑곳 없이 나는 그렇게 먹고 싶었던 알사탕을 원 없이 먹으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보니 이 녀석이 대문 뒤에 숨어 있었구나?"

온 동네를 몇 바퀴나 허겁지겁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잠시 대문턱에 앉아서 쉬시던 할아버지가 대문 밑으로 살짝 삐져 나온 내 까만 고무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흉물스러운 녀석, 대문 뒤에 숨어서 무얼 하고 있느냐?"

할아버지는 몹시 화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할아버지로부터 꾸중도 많이 듣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렇게 아픈 매를 맞아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몹시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그렇게 반 년 가깝게 할아버지를 멀리 하며 지냈습니다.

그 다음해 봄에 할아버지는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할아버지의 운명(목숨이 끊어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할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때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셔요."

나는 코끝이 찡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게 얼마나 사탕이 먹고 싶었으면……."

할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반 년 만에 용서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밤 먼먼 나라로 할아버지는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나는 지금 옛날 할아버지처럼 대문 밑으로 삐져나온 까만 고무신짝을 찾고 있습니다.

고향집 대문 밑에는 까만 고무신짝은 보이지 않고 팽이채가 대문 뒤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팽이채를 보는 순간 어제 서울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서울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집 가족들을 대강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우리집에는 국민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하늘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머니, 즉 나의 아내는 국민학교 선생님입니다. 가장인 나는 별로 이름이 없는 회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까지만 해도 서울집에는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정이 단란하게 보인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지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도 집안 식구래야 셋뿐이니까 한데 어울려 화목할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집안에서는 '삐걱삐걱' 하는 불만의 소리가 가끔 났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멋진 승용차 사."

"승용차?"

"옆집 민이네도 멋진 승용차 사 왔잖아. 민이가 마구 뽐낸다고."

이 아파트 1203호에 사는 민이는 하늘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아버지 회사는 요즘 주차장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나는 전철로 다니는 것이 더욱 편리하단다."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새벽에 나와야 회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럼 자연농원을 전철로 갈 수 있어?"

"자연농원?"

"민이네는 오늘 승용차를 타고 자연농원에 놀러 간댔어. 자식, 나보다 공부도 못하면서 승용차를 좀 사 왔다고 뻐기고 있어. 아버지, 우리도 오늘 자연농원에 놀러가."

하늘이는 민이네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사달라고 합니다. 또 민이에게는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밖에 나가지 못해."

"공휴일까지 회사 일을 싸 들고 집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내까지 투정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숙제는 밤에 하면 되잖아?"

하늘이는 그 일을 숙제인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월말이라 회사 일이 많이 밀려서……."

"월말인지, 기말인지를 하늘이가 어떻게 알아요?"

"씨잉, 아버지 월말고사 빵점이나 먹어라."

하늘이는 끝내 소리치며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가져온 일 보따리는 풀어 보지도 않고 그 길로 당장 고향집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하늘이가 그렇게 버릇이 없고, 정말 하늘처럼 저만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가정 교육이 잘못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하늘이의 가정 교사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하늘이 에미가 국민학교 교사인데, 제 자식 가정 교육을 못 시킨다니, 그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그 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다. 그런데 어떻게 늙은이를 싫어하는 요즘 아이의 교육을 하겠니? 더구나 외동 아들 길들이기가 얼마나 힘드는 일인데."

"어머니 그럼 몇 달 동안만이라도 서울집에 계시면서 하늘이의 버릇 고치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간청을 해서 서울집으로 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집에 오신 뒤로는 몇 달 동안 아무런 탈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늘이의 투정질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어머니가 오신 뒤부터 그저께까지 서울집은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역시 아이들 가정 교육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야만 돼."

나와 아내는 이런 말까지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내가 없는 사이에 하늘이의 본색(본디의 성질)이 나타났던 모양입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에 사는 막내 누님이 아들 욱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일 고향집으로 가신다고 해서 어머니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왔어요."

"쭈글쭈글한 에미 얼굴이 그렇게 보고 싶어?"

어머니는 흡족한 듯 활짝 웃었습니다.

"고모님, 잘 오셨어요. 16비트 컴퓨터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8비트 컴퓨터를 욱이에게 줄 참이었어요."

"아니 올케, 그 8비트도 새거잖아?"

"그래요. 그런데 옆집 민이가 16비트를 샀다고 하늘이가 어찌나 졸라대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죠."

그들이 거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늘이 방에서 퉁탕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 욱이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하늘이는 장난감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옆에서 참견하는 욱이에게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보다 두 살이 위인 욱이지만 갑작스럽게 휘두르는 바람에 얻어맞고 쓰러졌습니다.

욱이는 얼굴이 퍼렇게 멍이 든 채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막내 누님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조용히 방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너는 내게 하늘이의 버릇을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었지?"

"예."

"첫째, 아이의 요구에 한계를 그어라. 나는 컴퓨터라는 물건이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새것을 놔 두고 또 사 주지는 말아라."

"예."

"둘째, 부모의 욕심대로 아이에게 억지 요구를 하지 말어라. 재미도 없는 학원을 두세 곳씩 보내지 말어라. 그리고 일등하기만을 요구하지 말어라."

"예."

"셋째, 아이 스스로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때는 매를 아끼지 말어라."

어머니는 이 밖에도 몇 가지 더 외동 아들 길들이기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을 들으며 3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 때 나는 동갑인 사촌 누이를 때리고 또 얼굴에 상처까지 냈습니다.

그 걸 본 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고 할아버지 산소로 갔습니다. 쓴 지 얼마 안 되는 할아버지의 산소는 붉은 흙덩이가 파란 잔디풀 사이로 드러나 보였다.

아버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자가 변변치 못하여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동기간에 우애하라는 가훈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산소에 두 번 절을 하고 나서 자신의 종아리를 굵은 회초리로 사정 없이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 뒤로 나는 동기간은 물론 먼 집안 또래 아이들과도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때 일을 떠올리며 하늘이의 잘못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데리고 어머니 앞으로 갔습니다. 내 손에 팽이채와 같은 굵은 회초리가 쥐어진 것을 본 하늘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소자가 변변치 못하여 외둥이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나는 어머니 앞에서 내 종아리를 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이 걸 본 하늘이는 주방으로 달려가며,

"엄마, 엄마. 아버지가 미쳤나 봐!"하고 소리쳤습니다.

金始原 隨想集

대바람소리

창우사 5000원

김경식 시집

가고 없는 세월

문예사조 3000원

내 친구에게

김 진

꿈돌아 안녕?

내가 누군지 알겠니? 모르겠다구?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그 많은 친구들 중 날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거야. 그치?

난 지난 15-16일 네 집이 있는 대전 엑스포에 다녀 왔단다.

너와 엑스포를 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설레이던지 며칠 전부터 한껏 부풀어 있었어. 드디어 출발하는 날 "엄마, 제 시계 혹시 못보셨어요?" "샘아, 언니 옷 괜찮니?" 혹시라도 빠뜨린 물건이 있을까봐 확인하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어. 그 덕분에 우리 식구들은 새벽부터 한바탕 소동을 치렀어. 나 때문에 우리집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 뒤의 모습 같았으니까.

그렇지만 난 그런 것엔 개의치 않고 시간 맞춰 집을 나왔지.

학교에는 친구들이 많이도 와 있었어. 차를 탄 뒤 우리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껏 수다를 떨며 갔어. 코스모스가 방긋방긋 웃어주는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니 조그마한 장난감 같은 엑스포장이 저 멀리로 보이더구나. 뒤 이어 우리가 묵을 엑스포 타운에 도착하여 어머니께서 정성껏 싸 주신 김밥을 먹었단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와 함께 곧장 엑스포로 향했지.

엑스포장에선 왠지 로봇 소리가 날 것 같았어. 또 딱딱하고……, 그러나 한껏 웃으며 "어서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 주는 도우미 언니를 보며 그런 생각을 싸-악 지울 수 있었어. 정말 엑스포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더구나.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았어. 얼마 안가 한빛탑이 눈에 들어왔어. 93미터라는 웅장한 규모가 대전 엑스포를 상징할 만한 탑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탑 꼭대기에서는 우리의 정기와 힘을 마음껏 발산하듯이 번쩍거리고 있었어.

그 뒤 한빛탑을 등지고 미래 항공관으로 향했어. 전시 주제는 (하늘에의 꿈, 세계는 하나)였어. 항공기의 과거와 현재 등 항공역사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21세기 항공, 운송사업의 비젼을 제시하는 이 관은 큼직한 T.V들, 모형비행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더구나. 우리가 하늘을 날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보고 노력이란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값진 것인지를 깨달았어.

이 관에서 나와 호주관으로 가는 도중 어찌나 목이 마르던지 새삼 물의 고마움을 느꼈어. 호주관에서는 걷지 않고 자동 시스템에 따라 그냥 서서 걷는 번거로움 없이 관람을 했단다. 처음 들어서자 많은 나무와 새들이 보였어. 쭉 가면서 호주는 정말 엑스포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큰 판넬들과 T.V 그리고 여러가지 호주를 소개하는 내용들이 마음에 들었단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나라로써 양식업이 성하고 해양을 아주 잘 보호하고 있었어. 그 뿐 아니라 세계의 유적지들 중 8개나 가지고 있더라구. 또 과학분야에서 6명의 노벨수상자들도 배출하고…, 호주란 나라에 대해 조금은 질투심도 생기더라. 세계적 유적지며, 노벨수상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말이야, 아쉬운 호주와의 작별을 한 뒤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 식당에 갔어. 물론 집에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형편 없는 음식이었지만 맛 있었어. 아픈 다리를 조금 쉬다가 가이드의 성화에 할 수 없이 또 어딘가로 향했어.

그곳이 바로 자동차관이야.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각종 교통수단을 보고 나니 호랑이가 나타나더군. 그리고는 난 데 없이 홍길동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계곡처럼 물이 흐르던 곳에서 문이 열렸어. 흥미로워진 우리는 도우미 언니의 안내로 그 문을 통해 어떤 곳에 도착했어. 그곳은 큰 화면과 함께 숲이 이루어져

있었는데 홍길동이 등장하며 변신과 축지법을 가르치고 우리를 서울까지 데려가더군. 그리고나서 이동한 곳에서 난 시속 400킬로미터로 주행하는 미래차 맨트로스에 탑승하는 체험을 했단다. 미래의 서울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며 느낀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

꿈돌이 너도 그런 차를 타본 일이 있니? 아찔 아찔한 스릴을 맛볼 수 있을 거야. 그 뒤에 보게 된 포스트 쇼에서는 변신하는 로보카가 눈길을 끌더구나. 그저 평범한 파아란 승용차가 그처럼 거대하고 멋진 로봇이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

자동차관에서 나와 또 관람을 해야 했지. 어둠이 깔린 엑스포장을 신나게 달려 정보통신관에 이르렀어. 〈담을 헐고 다리를 놓자〉가 이 관의 주제란다. 이 관에서는 퀘도 전시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쭉 줄지어져 있는 차를 타고 자연 속의 인간, 고대통신, 문자와 문명, 전기통신의 여명, 통신문화의 창달, 미래의 생활, 해저 생활, 우주 생활에 대한 것을 아주 재미 있게 관람했단다. 그 외에도 다른 곳들이 많았지만 시간상 곧 바로 자연생명관으로 향했지.

그곳에서는 〈동물의 심포니〉와 〈식물의 낙원〉이라는 영화를 두 개의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동물에 관한 영화를 선택했단다. 이 영화에서는 갖가지 희귀한 동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공생하는 자연계의 생태를 보여주고 있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두 개의 영화관의 객석이 180° 회전하여 70 mm 대극장으로 합쳐지며 〈인체의 탐험〉이 상영되더구나. 위, 장, 혈관, 심장, 세포, DNA가 환상적, 모험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 관에서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바람에 바삐 수상쇼가 열리는 갑천으로 향했어. 우리가 좀 늦어 벌써 시작하고 있지 뭐니?

실제의 사람들이 물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까지도 불러일으키는 갑천 위에서 펼쳐지는 그 화면에 모두들 빠져 들었어. 바쁘게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며 흥분들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불꽃놀이는 우리를 한층 더 흥분되게 만들었단다. 이 멋진 쇼를 보고 난 우리는 숙소로 향했어. 다리도 아프고 피곤했지만 하룻밤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쉬워 그냥 잘 수만은 없었단다.

그래서 과자파티도 하고 베개싸움에 말뚝박기도 하며 나름대로 추억만들기에

애를 썼어. 그러나 다들 조금씩은 자야만 했지. 내일을 위해서….

다음날 새벽 우리는 부지런히 씻고 아침을 먹었어. 그리고는 또 못생긴 가이드를 따라 엑스포장으로 향했어. 벌써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개장을 기다리며 앉아 있더라구.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 그 많은 인파사이에 끼어서 다니게 될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지 뭐니?

우리는 처음에 한국 후지쯔관에 가기로 하고 엑스포의 문이 열리자 마자 그곳으로 달려갔어. 후지쯔관에서는 인공지능 컴퓨터인 뉴로저글러의 쇼를 보고 입체안경을 쓰고 입체영화인 태양의 메아리를 봤어. 식물 및 인간의 내부에 대한 이 영화는 내가 영화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환상에 사로 잡히게 하더구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어.

그 뒤 오래 간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을 이용해 핀란드와 바티칸을 보고 주거환경관에 갔어. 그곳에서는 폭 10미터의 거대한 화면을 통해 주거환경의 전통과 현재를 보여줬어. 그리고 2050년의 한 가정을 통해 컴퓨터 로봇을 통해 안락한 생활을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선사되더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빨리 2050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어.

점심을 먹고 난 뒤 우리는 엑스포 퍼레이드를 보고 집으로 향했어.

한빛탑과 조금씩 멀어지며 짧은 기간이어서 엑스포의 전관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끝내 아쉬웠단다. 특히 테크노피아관을 둘러보지 못한 것은 더욱 미련이 남았단다. 이번 엑스포를 둘러보며 우리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단번에 알아 볼 수 있었어. 자동차의 범퍼를 정확한 색과 위치를 찾아 조립하는 로봇이며 사물놀이 등을 사람과 같이 해내는 로봇 자동차와 로봇사이를 드나드는 로보카 등은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더구나. 얼마 전 우리는 순수한 기술로 우리의 인공위성인 우리별을 쏘아 올리지 않았니? 이 또한 과학기술이 어느 수준에까지 왔는지 잘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우리가 해 온 노력을 후세에게도 그 다음 후세까지도 물려준다면 우리의 과학 기술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을 훨씬 초월하는 경지에까지도 이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작은 한국이 그토록 큰 행사인 엑스포를 열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만은 아닐 거야.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단다.

이번 여행은 아마도 나에게는 큰 추억거리가 될 것 같아. 그런데 한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단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좋지만 그로 인한 환경의 파괴, 인간의 기계화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야. 오직 인간의 편리함과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더구나. 주위를 한번 둘러보렴.

농약의 과다살포로 병들어 가고 있는 논, 밭, 들, 산업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병들어 가는 산, 강, 그리고 바다와 공기, 이런 것들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생각 아래 우리가 너무 과학과 산업의 발달에만 힘쓰지 않았나 생각돼.

이렇게 나아가다 인간의 감정도 로봇화 되어 모두들 자기 이상만을 고집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 모두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무엇이든 경쟁을 해 이기려고만 하는 시대, 우리의 따뜻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하늘의 별마저 따버리는 그런 삭막한 사회가 될까 두렵다는 뜻이야. 하늘의 별은 언제까지나 하늘에서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정말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니, 꿈돌아?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주역은 바로 너, 나, 우리란다. 우리 모두가 공해를 최소화 하고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며 과학과 산업을 발전시킬 때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야. 꿈돌아, 그런 미래를 위해 나와 함께 노력해 보지 않겠니?

그럼 안녕?

귀엽고 사랑스런 꿈돌이에게

1993년 9월 20일

서울 상계동에서 너의 친구 진이가.

핑크레이디

강 경 애

실내는 은은한 불빛에 어울리게 조용한 팝송이 물흐르듯 흐르고 있었다.

15층에 자리잡은 이 스카이라운지는 지혜와 준혁의 밀애 장소였다. 토요일 오후면, 둘은 언제나 창가에서 유리에 반사되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화가가 아닌 것을 아쉬워 했다. 또 어둠이 연기처럼 밀려와 어슴프레 밤이 내리면, 곳곳에 점화되는 불빛으로 꽃밭을 이루는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양, 감격해 하며 인생과 예술을 토론하기도 했다.

그렇게 여러 계절을 통과하며 둘의 사랑은 형체를 만들어 갔다.

지혜는 오늘도, 늘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준혁을 기다렸다.

음악은 어느새 애절한 영혼의 울림인 혹인 영가로 바뀌어 있었고, 시계의 초침은 자꾸만 시간을 몰고 갔다. 그러나 상큼한 향을 뿌리고 다니는 준혁의 그림자는 어느 곳에도 비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준혁의 나긋나긋함이 덜해진 듯한 느낌이 지혜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면서 회오리를 일으켰다. 서둘러 약혼 날짜를 잡자고 성화를 부려대는 그에게 매번 망설임을 보였던 때문이었을까?

언뜻언뜻 느껴지던 준혁의 차가운 눈빛에서 지혜는 낯설음을 느꼈었다.

또 시시각각으로 마른 가슴을 드러내놓는 준혁의 메마른 언어에서조차 사랑이란 단어의 이중성은 걸러지지 않았었다.

그래서 가정형편을 핑계대는 엄마에게 인생의 종말까지 들먹이며 눈에 이슬을 담고 설득하였다.

엄마는 딸 가진 죄인이 되어 어둠을 가슴으로 안으며, 준혁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약속하셨다.

지혜는 이 소식을 준혁에게 전하려고 가슴안에 풍선을 매달았다. 하지만 그 풍선이 '푸르르' 소리를 내며 제 풀에 바람이 빠지고 말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는 걸 또 어쩌지 못하였다.

지혜는 어렸을 적, 풍선을 불기 위해 두 볼을 입안으로 오무리고 입술을 모우며 바람을 불어 넣던 기억을 떠올렸다.

폐활량이 유난히 작은 지혜의 풍선은 친구들 중에서 늘 제일 작았다. 그래서 더 크게 불려고 구멍을 꼭 눌렀던 손가락을 떼는 순간, 풍선은 '푸르르'하고 바람이 빠지면서 미끄러져 떨어지곤 하였다. 그 때의 참담하고 부끄러웠던 기억은 지혜가 소심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일부분을 차지했다.

약속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건만 준혁은 오지 않았다. 나비넥타이가 썩 잘 어울리는 웨이터가 신경을 자극한다. 지혜는 늘 마시던 핑크레이디를 주문했다.

분홍빛이 차디찬 글라스 속에서 하얗게 부서지고 있었다. 순간, 비애가 끈끈하게 혀끝에서 묻어났다.

준혁과 지혜는 늘 핑크레이디를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곤 했었다. 그럴 때마다 핑크색은 오색 무지개가 되어 둘 사이를 넘나들며 서로의 톱니바퀴를 물려주곤 했다.

이러한 생각에 잠겨 있던 중, 톱니의 흩어지는 파열음이 환청처럼 고막을 파고 들었다.

기다림에 지친 탓이라고 생각한 지혜는 양쪽 중지로, 양쪽 이마 가장자리를 눌러 주었다. 준혁의 날렵한 모습이 들어온 것은 정확히 한 시간 40분이 지난 후였다. 연거푸 두 잔을 마신 술 때문인지 지혜의 눈 속에 비친 준혁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었다.

눈꺼풀을 애써 밀어올리고 동공을 넓힌 지혜는 뒤쫓아 들어오는 화사한 영주의 모습에 눈꼬리를 치켜 올렸다.

"웬일이니? 네가?"

"웬일은, 집안일이지."

영주는 볼록한 볼을 샐록거리며 토끼 이빨을 드러내 놓았다.

고등학교 동창인 영주가 지혜의 애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조른 것은 석달 전의 일이었다. 지혜도 영주의 남자 친구인 민수를 알고 있는 터라, 어느 날 준혁의 사무실로 가서 서로 통성명을 하게 했었다.

준혁은 낭창낭창한 그녀의 몸매와 앞니 두개가 토끼 이빨처럼 넓다대한 영주를 보고는 연방 웃음을 실실 날렸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연신 영주 그 가시내의 몸에서 눈을 쉽게 떼지 않는 것이었다. 순간, 지혜는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느꼈었다.

말, 언어가 영주에게로 가면 한 마디, 한 마디가 몸에 휘휘 감기고, 착착 달라붙어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튀어 나왔다. 같은 말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색깔로 변한다는 것을 영주는 실제로 느끼게 했다.

그것이 매력일 수도, 천박성일 수도 있다는 것은 느끼는 사람의 의식수준에 따라서 다를 뿐이었다.

영주와 준혁은 나란히 지혜 앞에 앉았다. 실내는 파가니니의 바이얼린 선율에 온통 싸여 있었다.

"파가니니가 먹는 음식이냐"

고 남자 친구에게 물었다던 영주를 보니, 새삼 웃음이 앙다문 잇사이를 비집고 나왔다.

지혜는 슬며시 눈꼬리를 풀었다.

"어떻게 같이 왔어요?"

"빌딩 앞에서 우연히 만났어. 너를 만난다고 하길래 쫓아왔어."

영주가 준혁 대신 재빨리 대답을 하며 준혁의 옆얼굴에 시선을 멈춘다. 지혜는 불쾌감이 불쑥불쑥 가슴을 비집고 솟아오르는 것을 눌렀다. '준혁에게 해야 될

말을 영주 앞에서 해야 되는가?' 하고 망설였지만 오늘을 절대 놓칠 수가 없어서 어줍잖은 얼굴로 말을 끄집어 냈다.

"준혁 씨! 어머니가 준혁 씨 부모님을 드디어 만나신다고 하셨어. 형편이 조금 어렵지만 약혼 날짜를 잡으시겠데요."

순간, 준혁은 얼굴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지혜의 시선을 비꼈다. 지혜는 전신의 피가 아래로 몰려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동안 준혁과 함께 채색했던 분홍빛은 무채색이 되어 흘러내렸다.

영주는 볼록한 볼을 부풀리며, 두 사람의 눈치를 보며 가볍게 조소를 날리고 있었다. 반면에 준혁의 얼굴은 갑자기 수은등처럼 병약한 색깔로 변해 있었다. 지혜는 그 동안 뻔질나게 전화를 해대던 영주가 언제부턴가 전화를 하지도 않고 지혜의 전화를 피했다는 것과 준혁 역시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다.

"하지만 아닐 거야……."

파가니니의 선율이 끝나갈 무렵, 준혁은 눈매에 칼날을 세우고 입술을 떼었다.

"영주 씨와 그 동안 자주 만났었어. 지혜에게는 회사 핑계를 댔지만……. 지혜가 약혼을 자꾸 미루기에 결혼 의사가 없는 뜻으로 판단했지. 자존심도 많이 상했었고……. 영주 씨가 불쾌하겠지만 처음엔 '꿩 대신 닭'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우린 그 동안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 영주에게 책임져야 될 일도 생겼어. 이것은 지혜가 너무 도사린 탓이야. 난 결딜 수가 없었다고……."

준혁의 거침 없는 말과 분홍빛을 머금은 회오리가 함께 어우러져 실내를 이러저리 감돌다가 밖으로 빠져 나가 버리고 말았다.

"풍선은 바람을 타고 날기도 전에 항상 발 아래 떨어졌었지……."

지혜의 눈은 촛점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발 아래 떨어진 풍선이 눈앞을 맴도는 환영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지혜는 마시다 만 핑크레이디가 든 양주잔을 준혁과 영주의 앞에 놓인 탁자에 힘껏 던졌다.

"탁!"

하고 유리 조각과 분홍의 액체가 튀어올랐다.

준혁과 영주는 놀라움에 미동도 할 수 없었는지 동공만을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었다. 실내에는 폴앵카의 〈크레이지 러브(Crazy love)〉가 가득가득 물결치고 있었다.

지혜는 세방고리관을 통해 가슴으로 들어오는 '미칠 듯한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준혁에게 싸늘한 미소를 띄워 보냈다.

그리고 애써 우아한 걸음걸이로 홀을 빠져 나와서는 누가 볼세라 어디인지 모르는 곳으로 정신 없이 내달았다.

황 명 시집

눈은 언제나 숨쉬는 별빛

마을 5500원

鄭夏庚 時調集

仁旺으로 서서

동화 2500원

李巢林 제3시집

사랑이라 이름지어 놓고

한누리 3000원

이소영 시집

꽃잎 한 장의 무게로

혜화당 3000원

꽁트

행복 만들기

강 삼 미

"야호 가을이다아."

상인과 아이들은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힘껏 소리쳤다. 저쪽 산등성이에서 메아리가 큰 소리로 대답한다.

"가을이다,다,다,다아."

바람이 살랑인다. 이제 계절은 익을 대로 익어서 살랑이는 바람에도 나뭇가지는 부르르 몸을 떤다. '두두둑' 부는 바람을 이기지 못해 토해 내는 밤송이와 밤알을 향해 상인은 소리쳤다.

"준비, 땅(탕)."

한 무리의 아이들이 밤나무가 울창한 밤숲을 향하여 내닫는다. 키가 큰 잡목 속을 뚫고 무성한 찔레가시를 넘어 특공대마냥 산비탈로 돌진한다. 조용하던 골짜기에는 시끌벅적한 시장통 네거리처럼 이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버렸다.

"제일 많이 줍는 아이에게는 이 아줌마가 상으로 사탕 한 봉질 준다."

고 상인은 아이들 뒷통수를 향하여 소리쳐 댔다. 가을이 벌써 꼬리를 감추려

하기에 급한 마음이 된다. 날마다 들녘에서 들려오는 콤바인 소리가 황금물결로 출렁이는 벼논을 까까머리로 만들어 놓는다. 아침 나절 가득한 벼들의 노래는 그루터기만 듬성듬성 드넓은 대지에 남긴 채 텅 비어 있다.

또 다시 바람이 분다. 갈색으로 퇴색한 낙엽 한 잎 공중제비 돌다 허공에서 곤두박질한다. 아이들이 저마다 괴성을 지르며 상인에게 손짓으로 오라고 부른다. 상인도 괴성을 지르며 달려가 아이들 속으로 섞여든다.

"아줌마, 이것 보세요. 대빵 큰 거예요."

성호가 만족한 듯 씨알 굵은 밤톨을 내밀며 씨익 웃는다.

"나도 좀 봐, 많이 주었지."

세영이도 어깨를 들썩이며 좋아라 한다.

"아줌마, 모닥불 피워서 군밤도 구어 먹고 콩서리도 해 먹어요. 어제처럼요."

성호의 말에 아이들은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였다.

"오냐, 오냐 재미 있었니?"

"예에."

이구동성으로 대답한다. 상인은 만족한 웃음을 웃는다.

"자아." 상인은 두 손으로 탁탁 박수를 친 다음

"주운 것은 다 모아서 가지고 오고 큰 녀석들은 마른 나무가지를 좀 줏어 오너라. 그리고 너희들은 깔비(소나무의 마른잎)를 좀 줏어 오렴. 우리는 불피울 수 있게 아궁이를 만들자."

열서너살 먹은 아이들부터 형을 따라온 네살난 꼬마까지 상인의 구령에 맞춰 재재거리며 신속하게 움직인다. 아이들은 차도 공해도 없는 대자연 속, 어느 고인이 잠든 해묵은 무덤가 잔디밭을 본부삼아 옹기종기 모여서 재미나게 잘 논다. 대장은 물론 상인이었다. 상인은 아궁이를 만들 큰 돌을 옮겨 놓다가 키 큰 아이들 속에서 까르르 웃는 아들 세영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우뚝 멈추어 섰다.

"아니 저 녀석 잘 울고 보채며 떼쓰기가 일쑤였는데…… 형도 동생도 없이 자라서 혼자밖에 모르던 녀석이…….

풀섶을 헤치며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히도록 열심이며 아이들속에 어울려 자기 주장은 꺾으며 친구를 먼저 생각하는 세영의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호음' 이 가을, 밤알 만큼 여물고 토실토실 살이쪘군. 시원스레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아이들의 흐르는 땀을 식혀 주었고 '타악탁' 상인이 모닥불을 지피자 '와와' 아이들은 탄성을 질렀다. 빠알간 불똥이 연기를 타고 오르자 매캐한 연기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신 후후 불어대는 가을 들판의 아이들.

"자아 먹자, 디 익었다.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맛있지."

"응."

고구마며, 밤, 콩가지를 꺼내놓자 가을 들판 먹이는 풍성하였고 저마다 아이들은 열심히 입으로 가져 가기 바쁘다.

"어머 재 좀 봐."

검게 숯 칠한 아이를 보고 상인이 까르르 웃자 아이들도 덩달아 웃는다.

"손도 까맣다. 까마귀가 너 보면 '할배요' 하겠다."

"아줌마도요."

"그러고 보니 모두 까마귀가 되었네."

"하하 호호 하하."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을하늘 속으로 울려 퍼진다. 그때 개짖는 소리가 요란스레 나더니 부리부리한 눈을 치뜨고 여름내 볕에 타 건장해 보이는 팔뚝을 걷어 한 손을 휘휘 내저으며 호통치는 콩밭 주인이 나타났다.

"도대체 뭣들 하는 놈이냐."

꽥 소리부터 지른 후 상인을 발견한 아저씨는 분을 삭이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럴 때마다 둥글게 불쑥 나온 아랫배도 실룩거렸다. 상인과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성난 황소 같은 아저씨의 고함소리에 기가 질려 아이들과 함께 상인은 흙밭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번쩍 쳐든 채 벌을 서야 했다. 그래도 웃음을 참지 못해 킥킥거린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아줌마는 대체 뭐요. 애들이 이런 짓 한다 해도 어른이 말려야지. 그래 애들이랑 똑같이…, 어, 내 참 답답해서…."

가슴을 '팡팡' 쳐대자 옆에 앉은 성호가 귓속말로

"아줌마. 킹콩 사촌 고릴라 같아요."

"킥킥킥."

또 다시 웃음을 참지 못해 키들거리자.

"팔 더 높이 들어요. 따끔한 맛을 좀 봐야 정신 차릴랑가요. 요즘이 어떤 시상인디 콩밥 먹어봐야 알겠소잉. 헐 짓이 없으면 낮잠이라도 자제(지). 언제 철들라고 그러요 잉."

상인은 콩밭주인이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혀를 쏘옥 내밀며 '메롱 메롱' 하였고 까르르 아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해 또 웃는다.

"아이들을 떼로 몰고 와서 이게 시방 뭣들을…" "킬킬" 아이들이 웃자 영문도 모른 채 주인아저씨도 웃고 만다.

"내 참암."

'와와.' 아이들은 탄성을 지르며 일어나 환호하고 상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해요. 서울에서 이사왔는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재미있어요…"

기가막힌지 '허허허' 너털웃음을 터트리는 아저씨가 이내

"허긴 우리도 어릴 적엔 그랬수. 요즘은 세상이 허두 각박해서 내 잊고 살았지만서두 전쟁을 겪었고 그 혹독한 추위, 배고픔, 인젠 옛말이 되었지. 우리 손주 녀석도 저만한디…. 그녀석 웃음소리 들은 지도 꽤 오래 되었구먼… 오기만 하면 좋아라 할 터인디… 영 시간이 나야제… 허험"

하고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진 아저씨의 이마에는 골 깊은 주름살이 가득하였다. 두 눈의 시선은 고정되지 못한 채 허공중에 맴돌다 문득 생각난 듯이

"나도 좀 끼워 주소오. 내 우리 손주 생각해서 콩가지를 좀 꺾어다 주리다."

"와아."

박수를 치는 아이들을 보며 한아름 듬뿍 콩가지를 꺾어온 아저씨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았다.

"자아 많이 먹거라. 모자라면 또 꺾어다 주마. 새댁, 이 촌구석에는 왜 왔누. 모두들 도시로 못 가서 안달인디."

상인은 단칸방 전세금을 뽑아 자신의 병원비와 약값으로 다 충당하고도 절대 안정을 요구하던 병원측의 주장을 떠올리며 낙담했던 여러달 전의 일이 떠올라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리 먼 미래까지는 아닐지라도 가까운 날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와 주거 공간을 잃은 채 건강의 악화로 서울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당분간 어찌어찌 근근히 생활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편안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이 망연자실할 때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다는 이유 하나로 상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골로 향한 먼 여로의 길에 오른 남편을 따라 무작정 도착한 곳이 양주의 어느 촌락 오지였고 산간벽지 마을이었다.

깨끗한 물. 묶어놓지 않아도 될 강아지. 시멘트하지 않은 마당에 고추잠자리. 열심히 상인에게 설명해 주던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다. 상인이 아무대답 없자 아저씨는 혼잣말로 대답한다.

상인이 웃자.

"에이 올 농사는 망쳤어. 흉년인 게야 일년 양식도 될까 말까 걱정이라우. 왜 모두들 떠나지 못해 안달인지 알 것같어. 그래도 나만이라도 지키려고 했는디…. 이렇게 살면 좋으련만,"

상인은 그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하였다. 부르튼 입술. 물집이 잡힌 손. 거칠어진 피부. 볕에 검게 탄 얼굴. 남편의 그런 열심과 노력에도 빡빡한 가계는 주름살이 그닥 쉽게 펴질 것 같지 않았다. 상인은 남편에게 향한 애틋한 정과 미안함이 겹칠 때마다 씨익 웃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음을 위안거리로 삼는다고 말해 주던 남편이 눈물겹도록 고마웠다.

"그려 어디 사는 누구네로 이사왔노"

"예에. 저 산너머 왕 씨네 양계장으로요."

"힘들제."

"예."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나마 남아 있는 요오 개구장이들과… 상인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칼싸움도 하고 전쟁놀이도 하며, 밤줍기 고구마 이삭 캐어내기, 메뚜기 잡기, 술래잡기도 하구. 공도 차구요. 이렇게 서리를 해 먹다 주인에게 들켜서 벌도 서지요."

'와하하하' 유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산의 적막을 깨뜨린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과 웃음소리가 저녁 하늘가에 퍼지며 짧아진 가을해가 서산으로 기울 때, '참새가 짹짹. 병아리는 삐약삐약.' 하는데 아이들은 상인의 구령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논뚝길을 걸어서 집으로 향한다. 드높디 높은 하늘가에 뉘엿뉘엿 기우는 햇님의 환한 배웅을 받으며 검붉게 타오르는 아이들의 만족한 미소는 햇님을 닮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덩그런 밥상에는 농부 아저씨가 싫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꺾어준 노오란 콩이 가득 웃고 있는 뽀요얀 햇쌀밥에 파를 숭숭 썰어 넣고 고추며 호박을 썰어 넣어 만든 된장찌개와 손수 가꾼 무공해 상추와 갖가지 푸성귀. 하늘을 그대로 담은 생수 한 그릇을 올려 놓고 낮의 이야기와 후한 인정과 농촌의 미래를 논하며 시끌벅적하게 저녁밥을 먹었다. 커다랗게 입을 벌려 주먹 만하게 상추쌈을 싸서 넣고 불럭불럭 씹으며 웃는다. 연신 많이 먹으려 각축전을 벌이는 아들 세영과 남편을 보면서 가슴 뿌듯하게 채워지는 행복을 반찬삼아 떠들며 웃으며 저녁밥을 먹는다. 행복을 먹는다.

상인은 그날밤 일기장에 희망의 색깔인 노랑색을 듬뿍 칠하고 연필에 침을 묻혀 가며 희망사항을 꾹꾹 눌러 적었다.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어둡지만 않은 내일의 농촌이 있다고. 또한 열심히 농촌을 지키며 살으리' 라고.

金正雄 시집

판 소 리

미래시선 4000원

이기진 교양집

사색의 창가에서 1,2,3집

국문사 각 5000원

土 偶 祭

성 동 민

- 연세대 국문과,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한국신학대 종교심리학과, 동국대 교육대학원(교육심리학) 졸업
-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나리오 당선
- 『시대문학』희곡 천료
- KBS-TV 주간드라마 「전우」 3년간 집필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 한국희곡작가협회 회원

등장인물

장호(35) 토우제작 조각가
신혜(32) 장호의 처
조씨(68) 신혜 어머니
대학동창들
창녀들
구경꾼들
간호원

무대

현대.
장면별 각기 상이한 그림이 무대 배경으로 깔린다.

제 1 장면

짙은 정적.
한 점의 불빛이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터질 듯 파열되는 천둥소리(특수조명).
여명의 강한 빗줄기(효과음).
유령의 움직임 같은 검은 실루엣.
땅을 파고드는 빗방울 소음과 하모니를 이루는 또 하나의 소리.
검은 물체들이 휘적휘적 몰려오는 소리이다.

점점 윤곽이 드러나는 무대.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
蘭之島 못지 않은 거대한 쓰레기山 아래에 형성된 구릉지 사이로 쓰레기차 진입로가 보인다.
뒷편의 그림을 배경으로 몰려드는 검은 그림자들.
갈쿠리, 쇠스랑, 걸망, 소쿠리들……
찢어진 장화와 빨간 고무장갑을 낀 그림자들.
앞벌이〔쓰레기 줍는 사람들 별칭〕들이 구릉지를 향해 몰려든다.
그리고 쓰레기를 후벼대기 시작한다.
이 때 또 한차례의 천둥과 번개와 소나기.
비를 피해 다들 퇴장하지만, 한 청년 그대로 남아서 갈쿠리질을 계속한다.
주인공 장호다.
일순간, 쓰레기더미에서 흘러나오는 애기 울음소리.
청년 두리번거리다가 쓰레기더미에서 소쿠리 하나를 헤쳐낸다.
조심스럽게 소쿠리를 열어 본다.
갓난 아이가 치근대고 있다.
몹시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
아이를 안은 채 허공을 향해 울부짖는다.
저주와 증오의 통곡이다.
더욱 세차게 퍼붓는 빗줄기, 천둥, 번개…….

장호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버러지만도 못한 더러운 것들…… 이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다구…… (악을 쓰듯) 대체 누구야? 아이를 버린 쓰레기같은 인간이…….

이때, 허공에서 쏟아져 나오는 간드러진 여자 웃음소리.

여자 (소리) 호, 호, 호, 호…….
장호 누구야? 어떤 년이야?
여자 (소리) 년이라구? 야이 자식아 주둥아리 똑바로 놀려! 누굴 보구 년이라구 해?
장호 (허공을 둘러보며) 뭐, 뭐라구? 이렇게 아이를 버린 인간이 누구냔 말야.

여자 (소리) 호, 호, 호, 이봐, 새끼 버린 년놈들이 세상에 한 둘이냐?

장호 뭐, 뭐라구? 이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경우가…….

여자 (소리) 호, 호, 호, 비윤리, 비도덕 좋아 하시네! 윤리고 도덕이고 무슨 개뼉따구 씹는 소리야? 지금 세상에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하는 친구가 다 있남?

장호 당신은 대체 누구야? 이 아이를 내다버린 범인이 당신이지? 당신이지?

여자 (소리) 호, 호, 호, 날 보구 범인이라구?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라구! 호, 호, 호……

장호 뭐, 뭐야, 날보구 범인이라구? (독백) 내가 범인이라니…… 이 아이를 버린 범인을 찾고 있는 거야. 이 아이를 버린 자가…… 나, 나란 말야? 대체 무슨 뜻이야? 아이를 줏은 사람이 난데 어째 아이를 버렸다고 지껄이는 거야? 미친 사람야. (여자 관객을 향해) 저 여자가 미쳤어! 너, 너 바로 당신이 미쳤단 말야! (실성하듯) 허, 허 날 보구 범인이래. 쓰레기 줍는 날, 날 보구 말야. 허, 허, 허…… 미친 사람이야. 미친 년이라구!

넋이 빠진 사람처럼 허공을 향해 이상야릇한 신음소리와 너털웃음을 던지는 장호. 저벅저벅 애기를 안고 퇴장한다.

제 2 장면

마당.

한 켠에 타오르는 장작불(조명, 또는 그림).

길다란 장대에 삼베적삼이 걸려있고,

각양의 巫旗가 펄럭인다.

하나 둘씩 무대에 운집하는 구경꾼들.

神服차림으로 신칼을 휘두르는 여자무당 조씨.

신혜의 어머니요, 장호의 장모이다

머리를 풀어 헤친 채 굿상 앞에 조아리고 있는 신혜.

그녀 머리맡에 어떤 물체가 흰 보자기에 덮혀 있다.

채비의 손에서 놀아나는 징채.

신혜를 넘나들며 연신 주술을 읊조리는 무당 조씨.

강렬한 징소리.

허리를 굽혀 연신 큰절을 하는 신혜.

구경꾼을 비집고 들어서는 장호.
분노에 찬 얼굴이다.
징소리에 강한 음이 솟구칠 적마다 일그러지는 그의 표정.
굿이 절정에 이른 순간, 신혜 곁으로 다가서는 장호.
흰 보자기를 나꿔채어 뚜껑을 연다.
죽은 아이의 시체가 땅으로 뚝 떨어진다.
기겁하는 구경꾼들.
신혜가 달겨들어 죽은 아기를 줏으려 하자 촛대를 비롯 온갖 신굿 장구류를 집어던지며 괴성을 지르는 장호.
조씨의 신칼을 빼앗아 휘두르자 구경꾼들이 놀라서 무대 밖으로 전원 퇴장하자,

장호 이 따위 짓거리는 집어쳐!
신혜 당신 왜 이러는 거예요? 가만 있지 못해요?
장호 (신혜를 노려보며) 미친 것! 당장 집어치우지 못해?
신혜 애기를 살려야 한단 말야!
장호 뭐라구? 애기를 살려?
신혜 그래요. 살릴 수 있어요!
장호 애기 살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귀신 소굴에서 빠져나오란 말야?
신혜 호, 호, 호 귀신이라구? 무당이 되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예술이예요? 영혼을 찾는 예술!
장호 미친 것! 완전히 돌았군!
신혜 간섭하지 말아요! 난 미치지도 돌지도 않았어요. 이제 나에게서 더 이상 당신이 필요치 않아요! 난 누가 뭐래도 무당이 될거란 말예요!
장호 안돼! 차라리 널 죽였으면 죽였지 무당이 되게 할순 없어!
신혜 죽일테면 죽여봐요!

그 순간,
신혜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장호.
고통을 참지 못한 신혜의 비명소리.
신혜이 옷을 갈기갈기 찢는 장호.
신혜, 벌거숭이로 변한다.

대나무 채찍으로 난타하기 시작한다.
붉은 피가 솟구친다.
모진 비명소리.
일순,
장호를 향해 신칼을 내리치는 조씨.
장호, 이리저리 피하지만 결국 가슴에 꽂히는 신칼.
가슴에서 줄줄 흐르는 핏물.

장호 (아기 시체를 껴안고 조씨를 노려보며)장모님! 당신이 이 애기를 죽였지요?

조씨 (노려보며)악마같은 놈! 우리 신혜한테 오신 삼신랑을 네 놈이 쫓다니! 이 천하에 빌어먹을 놈아! 네 놈이 다른 년하구 눈이 맞아 생긴 애를 뭣땀시 우리 신혜가 키워. 이 철천지 원수같은 놈아!

장호 이 아이는 분명히 쓰레기장에서 줏은 겁니다. 내 아이가 아니란 말예요! 귀신을 품고사는 장모님이 왜 그런건 몰아요.

조씨 (관객을 향해)이 보소 세상 사람들아! 저, 저 놈이 끝까지 속이는 것좀 보소. 인간 속을 꿰뚫어 보는 나 앞에서까지 거짓 부렁이를 나불대는 저 놈이, 다른 기집년 새끼를 우리 딸보고 키우라고 하니 기가 절로 막힐 수밖에……. 아이구 숨막혀, 아이구 숨차. 이 봐요, 사람들아!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또 있을라구! 저 놈좀 어떻게 족쳐서 천벌을 내려 줍쇼, 삼신랑님!

장호 (아기를 안은 채 무대 앞으로 한걸음씩 나온다)

조씨 (아기를 빼앗으려 하며)이 놈아! 우리 딸 살려놓고 가거라 이 놈아! 천하에 벼락맞아 죽을 놈아! 수양년 내 딸 잡아묵은 이 놈아!

장호 (장모 조씨를 노려보다가)장모님! 당신이 바로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조씨 (아기를 뺏으려고 덤벼들며)이 놈아, 내가 뭣땀시 천벌을 받어? 네 놈이 천벌을 받아야지!

장호 (악을 쓰듯)당신은 살인자란 말에요! 이 어린 것을 죽인 살인자!

일순, 장호의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한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장호, 조씨의 신칼을 빼앗는다.
아기를 껴안은 채 신칼을 휘두른다. 신단에 차려진 각종 집기들이 마구 흩어진다.
조씨 곁에 놓인 소북을 갈기갈기 찢으며 조씨를 노려본다.

기겁하는 조씨, 황급히 무대 밖으로 퇴장.
구경꾼들 들어와 실신해 있는 신혜를 부축하여 급히 퇴장한다.
혼자 남은 장호, 신칼을 내던지며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땅바닥에 풀썩 엎드린다.

잠시 후,
보자기의 아기를 헤쳐 보는 장호.
이윽고 통곡하고 만다.
무대 어두워진다.

제 3 장면

암전상태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장호의 독백.

장호 어떻게 해서라도 신혜가 무당이 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난 신혜를 사랑했고, 나의 신혜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 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격정에 못이겨 흐느끼며) 차라리 장모님을 살해하고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내가 쓰레기장에서 구해 낸 아이를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가 결국 신혜의 혼을 지키는 제물로 바쳐지고 말았습니다. 귀신의 제물로……. 그 일이 있고난 후 신혜는, 신혜에게는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무대 밝아지면 병실이다.

신혜 (환자까운을 입고 이리저리 서성이며 실성하듯)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대학교 무용과 4학년 임신혜예요. 저를 항상 아끼고 사랑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우리들의 꿈과 사랑열차는 지금 막 청춘방황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이 빠진 듯)하지만, 사랑의 축제는 이제 끝나고 빈 무대에는 추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였습니다. 호, 호, 호…….

침대에 턱을 괴고 뭔가 골몰히 생각하다가 춤을 추듯 병실을 돌면서 노래한다.

신혜 사랑은 잡을려고 하면 훌쩍 날아가 버리는 작은 새/사랑은 강물에 뛰운 낙엽처럼 정처없이 흘러가는 것/사랑이란 자욱한 안개속에 비치는 별인가/아, 아 황홀한 생명의 빛이여!

불현듯 까운을 훌훌 벗는 신혜.
침대에 뛰어올라 베개를 껴안은 채 뒹군다.
힘이 빠진 듯 다시 얼굴이 창백해지는 신혜.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연신 실성인다.

신혜 보미야! 우리 아가 보미야! 아가야, 어디 있니? 보미야, 보미야!

다시 기운이 빠진 듯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순식간에 잠이 든다.
이 때, 장호 들어온다.
예의 신혜를 보다가 잠들어 있는 신혜의 손을 가만히 만져본다.
자신의 뺨에다 그녀의 손등을 부빈다.
끈적한 눈물로 젖어드는 장호.
신혜의 가슴에 얼굴을 묻는다.
잠에서 깨어나는 신혜. 의식을 차린 듯 역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린다.
신혜, 장호를 와락 껴안는다.
그러나 피할려는 장호.
그를 놓아주지 않고 격정을 못이겨 스스로 흥분하기 시작하는 신혜의 몸놀림.
자신의 속옷을 벗을려는 신혜. 장호 말린다.
이윽고 장호를 붙들고 뒹군다.
마지못해 응해주는 장호.

이 때, 간호원 불쑥 들어온다.
놀래면서도 예의 본다.
신혜, 힘이 빠진 듯 장호에게서 내려 눕는다.
화들짝 놀라 일어나는 장호.
겸연쩍게 간호원을 본다.

간호원 신경쓸 거 없어요!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의례히 그런 발작증세가 있으니까요.
장호 ……
간호원 주사 맞을 시간예요.
장호 그런 것 좀 안 맞으면 안 되나요?
간호원 물리적인 치료방법이예요. 일단 입원을 시켰으면 환자는 병원측에 맡기는

게 도리에요.

장호 …….

주사를 놓고 퇴장하는 간호원.
신혜, 다시 잠에 빠져든다.
그녀의 얼굴을 들여다 보다가 돌아서는 장호.
담배에 불을 붙여 허공에 연기를 뿜는다.
간이소파에 앉아 괴로운 듯 머리를 움켜 잡는다.
그에게 조명이 쏠리며,
독백 흐른다.

장호 (독백)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인가 봅니다. 대학생활 3년째, 조각가가 되리라는 꿈을 저버린 채 내가 맨처음 난지도 쓰레기장을 찾았을 때 친구들은 나에게 위대한 예술가의 칭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돈키호테, 머리가 반쯤 돈 놈이라고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틈에 끼어 날마다 쓰레기더미에 묻혀 쓰레기를 줍고, 다시 쓰레기 같은 대화를 주고받고 쓰레기 난민촌 방구석에 혼자서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나와 같은 크래스였던 신혜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을 한사코 이해해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혜는 나의 술친구가 돼 주었습니다. 아니, 술친구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반려자가 되어 준겁니다. 신혜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바로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호,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가슴이 답답한 듯 호흡을 가누며,

장호 (큰소리로)신혜가 생각하는 건 사실 그게 아니었다구요.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한 불만족을 육체적 고통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일부러 자신에게 체형을 가하기 위한 이기적이고 오만스런 나의 자존심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신혜 생각이 전혀 틀리다고는 믿진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신혜와 같은 평가를 내리고 맙니다. 자기네들이 옳다고 우겨댑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쓰드려서 난 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레기장을 찾았던 겁니다. 쓰레기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이 만들어 낸 주검들입니다. 이 주검들 속에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고, 온갖 모양의 인간들의 얼굴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얼굴들은 곧 나의 혼을 일깨워주곤 했지요.

잠에 취해있는 신혜.
장호, 신혜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그녀의 손을 어루만진다.
다시 장호의 독백이 이어진다.

장호 (독백)쓰레기장으로 나를 찾아와 인간적인 만남을 약속했던 신혜는 사실은 나에게서 구세주와 같았습니다. 나라는 존재에게는 정말 과분한 여자였습니다. 신혜는 하늘이 내려준 천사였습니다. 나의 예술세계를 이해해주는 오직 유일한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혜는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난도질한 채 말입니다.

짐짓 흥분한 듯, 장호의 얼굴빛이 다시 창백해진다.

장호 (버럭 항의하듯)미쳐버렸어! 살인자로 전락하고 말았어! 쓰레기장에서 줏어 온 보미, 보미를 죽였어! 살인자, 살인자! (기진맥진하여 목소리 낮춰) 신혜는 나하구 만난지 2년쯤 되던 해에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출산했지요. 사내아이였어요. 그러다가 두어 달 후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신혜는 그 때부터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피붙이의 죽음이 내가 쓰레기장에서 줏어 온 보미의 악령 때문이라고 믿었지요. 보미는 신혜의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미는 천대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신혜의 음모를 장모님이 끼어들어 돕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보미를 장농속에 가두고 며칠동안 굶기면서 날마다 매질을 했습니다. 결국, 보미는 죽고 말았지요. 신혜가 무당이 되기 위해 강신굿을 하는 날 말입니다. 보미는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몹쓸 어느 인간이 쓰레기장에 버린 보미가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가슴이 끓어올라 다시 큰소리로)보미는 한 쪽 눈이 없는 기형아였습니다. 어느 인간이 기형아를 버렸고, 난 그 기형아의 속죄양이 되고 그 악령을 다시 신혜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신혜는 악령의 소굴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신혜가 강신무가 되려 했던 것도 그 악령을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난 신혜를 차마 무당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신혜가 무당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무당으로 강신하지 못한 신혜는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신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미치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신혜를 미치게 만든 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내 자신 말입니다. 내가, 내가…… 미치게 만들었다니까요. 신혜를, 신혜를…….

제 4 장면

토우방(土偶房).
조명 밝아지면 꿈틀거리는 흰 물체 하나.
마구 흐트러진 머리털과 덥수룩한 수염.
한복차림의 장호다.
그의 좌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토우들.
장호, 토우제작에 여념이 없다.
이 때, 아련히 들려오는 장호의 목소리.

장호 (소리) 신혜! 이 토우들을 유심히 보라구. 이건 지독스럽게 가난한 놈이야. 배꼽이 홀쭉 들어갔어. 이건 병을 앓고 있는 놈이구, 이건 신경질적인 놈. 이건 여자를 배신한 놈. 이건 물에 빠져 죽은 놈. 이건 불에 타서 죽은 놈… 하, 하, 하 전부 다 쓰레기같은 인간들의 모습이야! 신혜야, 난 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놈들을 전부 다 토우로 만들어 버릴 거야!

신혜 (소리)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 땅에는 그 반대로 잠재워야 할 불쌍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혼들이 너무나 많단 말예요.

장호, 옆에 놓인 소줏병을 통채로 들이킨다.
마구 흐트러진 머리결.
토우 하나를 치켜들고 유심히 본다.
일순,
어디선가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사람소리.
장호, 번뜩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신혜의 가냘픈 목소리가 환청된다.

신혜 (소리) 호, 호, 호 장호씨! 명동바닥에 사람들이 붐벼요. 빨리 판을 벌여야죠. 저 속물 인간들에게, 아니 토우의 가면을 쓴 저 몹쓸 인간들에게 장타령을 들려 줘야죠!

장호, 다시 소줏병을 들이킨 후 목소리를 다듬는다.
불현듯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장호 (장단에 맞춰)자, 요것은 속물이 아닙니다. 장난감도 아니예요. 경기도

이천땅 산 좋고 물 맑은 계곡에서 태어난 우리 새끼들, 토욥니다. 토우! 에미, 애비 없이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흉보지 마소. 가난하고 힘 없는 자식들이라고 괄시하지들 마소. 뜨거운 불덩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 놈들, 그래도 마음만은 인간들보다 좋소이다. 제아무리 세상 인심 험하다 해도 요 녀석들만은 투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움질 하지 않습니다. 자, 복도 주고 사랑도 주고, 양심을 주는 요놈들 한번 키워 보세요!

땀투성이의 장호가 풀썩 쓰러진다.
나동그라지는 소줏병.
뭐라 중얼거리지만 들리지는 않는다.
그 소리가 독백으로 확산되면서…….

장호 (독백)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신혜는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살포시 웃으면서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난 신혜의 편지를 읽고나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신혜는, 신혜는…….

신혜 (애절한 소리)장호씨!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내 눈에는 늘 당신 뿐입니다. 귀를 막아도 당신의 뜨거운 숨소리가 들려 옵니다. 날이 밝아도, 날이 저물어도 당신의 그림자가 내곁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술을 위한 당신의 고독한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고, 내가 당신에게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지만, 나의 이 조그마한 소망이 이젠 한갓 물거품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내 어둡고 차디찬 영혼을 감싸주려 했던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어찌 모를 리가 있겠어요?
내 자신이 미웠던 만큼이나 당신을 괴롭혀야만 했고, 내 자신이 고통스러운 만큼 보미를 학대했던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말예요. 생각하면 내 자신이 죽도록 미워요. 차라리 무당이라도 되었더라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서 사랑을 받고싶은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이 다할 때까지 당신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말예요!

터져나오는 뇌성, 번개(특수조명)
쏟아지는 강한 빗줄기.
장호, 의식을 차린 듯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장호 (길게 연기를 내뿜으며, 힘없이 독백)신혜에게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그 다음날 신혜가 갑자기 행방불명 됐거든요. 몇날 동안을 미친놈처럼 찾아 헤맸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결국, 대학 동창들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대자보를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 전단을 만들어 신혜가 갈만한 곳에 무더기로 뿌렸습니다. 물론 방송도 했죠. 별에별 짓을 다했지만 신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대를 서성이며)

보름쯤 지났을까, 꿈속에 신혜가 나타나 손짓을 하는 거예요. 장미꽃이 만발한 꽃밭 한가운데 서서 말입니다. 난 너무나 반가워서 높은 절벽 위에서 신혜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곳은 장미꽃밭이 아니라 시궁창이었습니다. 냄새 지독하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내가 꿈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그 언젠가 정신병원에서 신혜가 내게 들려준 얘기가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신혜 (실성한 듯한 소리)장호씨! 나 아기 갖고 싶어요. 인형처럼 예쁜 아기를 열서넛 쯤 낳고 싶단 말예요. 나 좀 껴안아 줘요! 장호씨가 싫다면 나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거예요. 창녀촌에라도 가고 싶어요! 호, 호, 호…….

장호 (화가 치밀듯 버럭)빌어먹을! 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게 미쳐도 보통 미친게 아네요. 진짜 창녀소굴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신혜가…… 티없이 맑은 얼굴에 덕지덕지 분을 바르고, 시뻘건 입술 사이로 혀를 널름거리면서 사내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벌건 대낮에 말입니다. 담배연기를 펑펑 뿜다가 사타구니를 긁적거리는가 하면, 허약한 자신의 가슴팍에다 낯모른 사내 손목을 덥썩 잡아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신혜는 더러운 년이 돼버렸어요. 시궁창, 구더기 같은 년이 되고 말았단 말에요! (침을 뱉으며)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신혜라는 이름 조차도 부르기가 역겹습니다. 내 자신 천박한 운명을 탓할 수밖에…

이 때, 무대 밖에서 깔깔대는 여자 웃음소리. 일순, 창녀 3명이 외출복 차림으로 등장한다. 장호,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몸을 숨긴다. 창녀들, 저마다 멋진 폼으로 담배를 피워댄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창녀1 (토우를 만지작거리며) 아유, 이것 좀 봐! 꼭 사람을 닮았네. 이건 미스타 박을 닮고, 이건 미스타 황을 닮고…

창녀2 얘, 뉜 미스타 황, 박 그 자식들 아니면 못사냐? 입만 벌렸다 하면 황박이야, 증말.

창녀3 그나저나 이 양반이 마누라는 찾질 않구 어디를 돌아다닌담?

창녀1 신혜 고년만 불쌍허지 뭘.

창녀3 지가 원해서 창년 됐지, 즈이 서방이 시켰남?

창녀2 늬들 째진 입이라구 함부로 놀리지들 마. 따지고 보믄 우리 모두 밑바닥 인생 아니냐. 외로울 때 누군들 우리 마음을 알아주며, 몸이 아파도 어느 누가 우리 속을 알아주겠니. 쓰레기 같은 인간, 버러지 같은 것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허잖여!

창녀1 무슨 미친소리! 우리도 어였한 인간이여! 밟히고 쓰러져도 억새풀처럼 악착같이 살아 살아남아야 헌단 말이시.

창녀3 애, 신혜가 맨처음 창녀굴로 왔을 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담배 한모금 길게 뿜으며 회상에 잠긴다)

신혜 (허공에 떠도는 소리)언니, 세상 사람들이 눈을 흘기며 우리에게 침을 뱉고 돌아설 적마다 언니들은 설움과 고통을 이겨나자가면서 눈물짓곤 했어요. 난 언니들이 처량하고 측은해 보였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여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온갖 남자의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을 감싸주고, 몸에 끼어있는 능욕의 때를 씻어주니 말예요. 난 그렇게 사는 언니들을 보면서 내 가슴속에 앙금처럼 끼어있는 추악하고 악한 마음을 몰아내기 위해서 늘상 울어야만 했어요. 나의 울음은 한 올 한 올 원한을 잉태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속죄의 한이었어요.

창녀1 얘, 그까짓 인생타령 관두고 신혜 남편이나 빨리 찾아 봐야지. 신혜가 지금 위독하지 않니.

창녀2 도대체 이 양반이 어딜 갔남?

장호, 창녀들의 얘기를 엿듣다가 신혜가 위독하다는 말이 나오자 짐짓 긴장하다가 무대로 나온다.

창녀1 (뚫어지게 살피다가)선생님이 혹시 신혜 남편이신가요?

장호 (말없이 끄덕인다)

창녀1 선생님 큰 일 났어요. 신혜가 위독해요!

장호 …….

창녀2 (울먹이며) 신혜가, 신혜가 죽어가고 있단 말예요!

장호 어떻게요?

창녀3 어떻게라뇨. 사형선고를 받았단 말예요! 신혜가 급성간암에 걸려…

장호 간암이라고?

장호, 장승처럼 굳어지며 연신 헛소리를 되뇌인다.
뻥하니 쳐다보는 창녀들.
급히 암전되다가 다시 장호에게 조명 집중되면,
창녀들은 이미 퇴장하고 괴로운 듯 머리를 쥐어짜는 장호.
이윽고 머리를 파묻고는,

장호 (마음의 소리)신혜는 나의 분신이었습니다. 신혜는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 나에게 예술이라는 샘물을 길러다 주었습니다. 나에게 영혼이라는 안식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신혜는 나에게 기쁨과 슬픔과 영광과 좌절을 안겨주었고 끝내는 고통을 잉태한 채 내 곁을 떠났습니다. 신혜는 예술을 추구하는 나의 집념을 자신의 희생으로 승화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 까지도 각오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신혜를 위해 마지막 사랑의 손길을 던져야 할 때 입니다. 내 인생이 신혜의 전부였던 것처럼 신혜의 죽음을 이젠 나의 몸으로 막아야만 합니다. 나의 간을 떼어 신혜의 가슴에 영원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난 슬프지 않습니다.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단 한치라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관객을 향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사랑이란 결국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며, 그건 우리 모두의 경우니까요.

장호, 백지를 꺼내 뭔가 편지를 쓴다.

장호 (독백)저의 생명을 신혜에게 주기 위한 기록입니다. 저의 예술혼을 마감하기 위한 준비 입니다. 제가 쓰는 이 마지막 편지가 신혜의 새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신혜를 사랑합니다. 영원히, 영원히…

서서히 암전된다.

제 5 장면

(무대 그림)
멀리 보이는 강나루.

물결 속에 드리워진 낙조.
강변을 따라 나부끼는 온갖 巫旗들.
土偶 祭祀床이 차려져 있다.
맨 윗자리에는 가장 큰 토우가,
그 아래로 각양의 사람 흉상과 짐승 흉상을 나타낸 크고 작은 토우들이 놓여져 있다.
즐비하게 서 있는 예전의 장호친구와 대학동창들.
祭主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차례로 술을 따르고 절을 한다. 장호 친구, 대용이 슬픈 표정으로 祭文을 낭독한다.

대용 유세차 정묘년 모월모시 대한민국 서울 한강변에 제물 차려놓고 한이 맺혀 갈 길을 헤매는 장호 군의 영혼과 이승에서 걱정근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우제를 지내오니 산신, 물신, 터신, 마당신, 이리저리 제갈길 못찾고 떠도는 잡신들이시여! 탁주 열배 잡숫고 방황하는 중생들 새 생명으로 살게 거두어 줍시오! 특별히 자신의 육신을 도려내어 사랑하는 아내의 목숨을 건진 고 장호 군의 혼령을 여기에 바치나이다!

이어서 나루패들이 念佛曲에 맞춰 그드름춤을 시작한다.
연신 합장재배하는 장호의 친구들.
각시탈을 쓰고 악사의 연주에 흥이 난 구경꾼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동시에 그들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한다. 웃옷을 벗은 채 굿판에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자들.
이 때, 꽹과리가 굿판을 휘어잡는 순간, 무대 왼켠에서 들려오는 큰소리.

대용 자, 길을 비키시오. 신랑영혼이 입장하십니다!

젯상을 향해 일제히 등장하는 각시가면 일행.
한복차림의 창녀들이 길다란 무명베 띠를 잡고 사뿐히 입장한다.
무명베 띠를 밟고 장호의 영정과 함께 유골함이 들어온다.
그 뒤를 따라서 입장하는 신혜.
시신처럼 창백한 모습이다.
장호 유골함이 젯상 위에 놓인다.
갑자기 무대 조명이 어두워진다.
타오르는 불꽃.

일순, 터져나오는 징소리.
한복차림의 창녀들이 장호의 영혼을 잠재우는 듯한 춤사위를 날리며, 타령조로 넋걷이를 하는,

대용 넋이야, 넋이야 넋이로구나
노량심산에 첫 넋이야
넋일랑 넋반에 담고
혼은 관에 담아
북망산천을 돌아가니
슬프고도 처량하다
저승 길이 멀다더니 강변 건너가 저승일세
세상에 나오신 망제님 놀고나 갈까
세상 망제님 놀고나 갈까
받아주오, 받아주오 저 못난 토우들 받아주오
각시 간 떼어주고 가신 님 토우로 환생토록 받아주오!

넋걷이 타령이 끝나면 念佛曲이 다시 시작되면서 거드름춤과 팔뚝잡이춤이 이어진다.
이 때, 창녀들에 의해 길다란 흰 무명베 띠가 젯상으로 부터 강물로 깔려진다.
신혜, 장호의 유골함을 향해 연신 절을 한다.
젯상에 놓인 토우를 구경꾼들에게 놔눠주는 대용.
계속 절을 하는 신혜를 일으켜 세워 강물 쪽으로 깔린 무명베를 따라 장호의 영정과 유골함이 옮겨진다. 그 뒤를 따르는 신혜.
더욱 고조되는 징과 꽹과리 소리.
장호의 유골이 강물에 뿌려지자 구경꾼들이 일제히 토우를 강물에 던진다.
그 순간,
"장호씨! 장호씨!"를 외치며 발버둥치는 신혜.
바람에 계속 흩날리는 유골가루.
서서히 고조되는 回心曲.

무대 점점 어두워지다가 막 내린다.

이미지의 형성으로서의 작품성 분석

— 본지(제3호)에 실린 작품을 위주로

金 南 石

- 韓國民族文學研究所長
- 詩人, 文學評論家

A. 詩作品 (이미지世界)

詩는 이미지(影像)의 완성된 구성과 표현의 두가지 과정을 바로 거쳐서야 충실한 作品으로 영글 수 있다. 詩의 실패는 이미지의 혼란, 구성의 무절제, 표현의 不当性이 저지르게 된다. 첫째로 이미지가 詩人의 가슴 속에서 완전히 무르익고 그것이 意味性의 비유(比喩), 상징(象徵) 과정을 튼튼히 밟아 알맞게 構成된 다음 수사학적(修辭學的)인 표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詩다운 詩作品으로 형성되어진다.

詩作品 中에는 그 어느 한가지 혹은 두가지가 미숙함에 자격상실할 경우가 흔하다. (主로 新人作品의 경향에서이지만.) 詩를 너무 안이한 오락처럼 다루는 데서 발생하는 결함이다. 영혼의 외침인 詩는 모든 문학장르 중에서 가장 崇高하고 심각(深刻)한 精神活素의 作用임에 이 본질을 등한시하면 詩는 詩로서 탄생되지 못한다. 까닭에 특히 新人 作品들은 詩學의 초보적 단계로부터 완전한 詩法을 익혀야 하며 時代的 流行性 같은 것의 모방에 물들지 말아야 하며 本格的 修鍊(어렵지만 참을성 있는 習作期의 詩作生活)을 꾸준히 쌓아야 한다.

여기 모은 詩作品은 이미 詩壇에 등단한 作品들을 제외한 태반인 新人作品들로서 部分的인 흠이 더러 보이기는 하나 무엇을 쓸 것인가? 라는 主題意識의 선택에서 광범한 詩題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作詩의 첫째 단계인 主題設定 過程이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둘째 단계인 構成-形象化 過程과 셋째 단계인 修辭的 表現過程보다 앞서 다뤄지는 이미지의 확고한 把握을 요구한다. 이 作品들을 詩이미지의 形成으로서의 作品性들로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가나다順 : 편집순서)

1. 김경식 〈농촌의 파수꾼〉외 4편

「감나무 가지에 이름모를 새가 푹 익은 연시를 정신없이 쪼아댄다」-로서 감나무 가지는 향토(鄕土)를 象徵(鄕里의 한 風物을 상징적 비유로 함)하고, 이름 모를 새는 고향 찾아온 나그네를 象徵하므로써 옛 고향 농촌을 찾아온 詩人自身에 比喩하고 있다.

主題意識도 매우 적절하다. 젊은이들(옛친구들)이 버리고 떠난 농촌을 지키는 老人들의 쓸쓸한 모습을 외로운 농촌의 情景 속에 배치함이 成功的이고 끝부분의 「허리를 구부린 채 설움을 담배연기 속에 담아 한숨을 날린다」는 데서 이미지의 완성을 나타내었다.

〈겨울 이방인〉도 엄동설한에 고향을 찾은 나그네의 고독감이 主題가 되어져 알맞게 統覺을 이루었다.

〈난의 향기로〉는 도시 언저리에 오염된 산소 마시며 뒤틀린 모습으로 자라난 蘭을 主題로 하여 公害에 시달리는 現代都市人의 처참한 生態를 比喩하고 있다. 시기적절한 시대적 告發이다.

〈가고 없는 세월〉-은 作者의 人生流轉의 実態를 반영한 이미지로서 이 詩人의 근본적인 詩想이 되어진다. 病苦 속에 묻혀 버려진 젊은날의 시절을 허무의식으로 읊지 않을 수 없는 詩人의 안타까운 心情의 吐露가 主題化되어졌다.

2. 김성년 〈당신은 듣습니까〉외 3편

詩集《따순 가슴 하나 기다려》를 펴낸 기성 중견시인의 作品들로서 主題意

識世界의 특징은 永遠한 救援을 갈구하는 진지한 人間性의 本質로서의 그리스도교도다운 信仰의 崇高한 世界로 치닫는 神聖性이다. 作品마다 永生不滅이요, 天國憧憬이며 眞理探求, 人間愛思想이다. 荒蕪地인 地球위에서 永生樂園에의 思慕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創造主의 은총을 찬송하고 구원을 기도함이 主題本流를 이루었다는 데서 대견스럽고 構成 表現도 숙달된 水準에 이른 詩作들만 보여주고 있다. 이 作品들을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① 〈당신은 듣습니까〉에서-

2, 3聯-고달픈 현실의 삶(모진 시련, 고통). 4聯-예수의 권능(바다 잔잔하라)

② 〈이 천형의 동산에서〉-失樂園(잃어버린 에덴동산) 인간세상을 원죄의 세계로 비유한 죄의식의 고백이 主題意識이다.

③ 〈만약에 당신께서〉 造物主에의 감사와 기원의 주제 의식

④ 〈작은 가슴 빈 곳에〉-人間內部에 実存하는 神의 집에의 찬양이 主題意識化되어짐.

⑤ 〈이별이 찾아오면〉-死後世界의 인연 연속관계의 主題化

3. 백인희 ① 〈그리움〉-素材의 선택이 정확함.

(詩語 분석) :「쪽마루 걸터앉아」(외로운 空間性과 人間의 고독성 상징).

「흘러가는 솜구름」: (상념(想念)의 상징(象徵). 떠오르는 생각)

「흰구름」-回想의 모멘트

빛바랜 그리움 (해묵은 그리움, 빛바랜 퇴색)…女性的 詩語, 詩의 색채의식(色彩意識)

뽀오얀 안개-희미한 회상의 상징「빛바램」과의 對句法. 빛바랜 그리움 / 뽀오얀 안개 〉 對句法.

6聯「봄이면 우리는 봄이 되었고/바다에선 우리는 바다가 되었고」-對句法에선 自然同化의 童心世界-등으로 女性的의 회고적인 主題意識이 확고하며 表現도 적절하다.

② 〈봄이면〉-新生의 희망이 주제의식으로 되어 表現도 적절하고,

③ 〈아기야〉－母性愛를 주제로 했으나 끝聯「내사랑/아가야！」의 마무리가 不足함이 흠이다.
④ 〈딸〉 모성애의 주제의식으로 되어짐.
⑤ 〈진달래〉－사랑의 상징화된 주제의식임.

4. 成龍君 〈新年詩〉－主題는 新年의 頌祝이지만 이미지와 구성 및 표현이 너무나 散文的이어서 詩的인 감동이 결핍되어졌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앞으로 詩型을 제대로 갖추는 노력이 있기를－

5. 신성숙 〈동대문에서〉－살벌한 실존경쟁시대의 고발이 주제의식이다. 눈뜨고 살기 무서운 서울의 도시생활－「서울이 무섭기에/지하철은 늘 어나고 있다」에서 主題意識이 표현됨.

6. 梁順二 ① 〈蘭〉－蘭에 대한 意味性이 빈약하다. 4聯을 보완하여 향수의 느낌을 덧붙이도록－
7. 이도영 〈겨울밤〉. 〈詩〉－삶의 고달픔과 詩作의 어려움을 심각한 심정으로 이미지화한 詩作品으로서 身辺的인 체험이 主題로 되어졌고 표현에서 소박성이 두드러진다.

8. 이순옥 〈곶감〉－때를 놓친 땡감의 잃어버린 계절에의 향수로서 인간 고독감을 비유한 주제의식임.

9. 임경자 ① 〈내일이 오면〉－未來指向性을 내포한 내일에의 기대감이 짙게 깔려 있어 삶의 상승작용(上昇作用)을 보여 주는 주제의식의 우수작이다.
② 〈파도〉－파도의 율동적인 현상을 인간활동의 意志力으로 상징한 적극적인 삶의 생태를 主題로 하고 있으며 리듬, 메타포의 사용도 적절하다.

③ 〈역경〉－삶의 역경 극복을 흙을 헤쳐 나온 새싹의 떡잎으로 상징화하여 고난의 현실 속에서 화려한 과거의 회상에 젖는 희열을 소박하고 진지한 詩語로서 다듬어낸 건전한 主題意識이 대견스럽다.

④ 〈쉼터〉－거센 파도의 쉼터를 수평선 넘어 작은 섬으로 상징화하므로써 인생의 평화로운 휴식처를 비유한 主題가 유달리 돋보인다. 풍랑과 해일을 이겨낸(파도)인고의 삶의 승리로 보인다.

10. 임영희 ① 〈꽃의 기원〉－삶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오직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사랑하는 이에게 한송이 향기로운 "꽃이고저"를 聯마다 終句에 반복시킨 반복법도 익숙하고 이미지형상화(形象化)와 구성, 표현의 詩語 선택, 짜임새까지 잘 숙련된 솜씨를 보여준다. 이미 習作期를 차곡차곡 쌓아올린 실력의 탑들이 엿보인다.

② 〈잃어버린 고향〉－「강산이 두번 바뀌고 찾아간 고향은/이미 내가 두고온 고향은 아니었다」(1聯)로 시작된 主題意識은 변화된 고향에의 향수로서 슬픔이나 외로움 같은 하강의식(下降意識)이 끼어들지 않은 건실한 失鄕의 이미지로 形象化됨이 대견스럽다.

③ 〈들꽃〉－「버려진 몸이라도/때가 되면/꽃을 피웠습니다) (1聯)로 시작된 이미지는 보아주는 이 없어도 찾아주는 이 없어도 「맑은 이슬로/얼굴을 씻었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삶의 의욕을 돋궈주는 이미지로서 「언젠가는/그 언젠가는 오실 님 위해/해맑은 얼굴로/그 자리에서 있습니다.」라는 終聯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生命力의 잠재력이 엿뵈인다.

④ 〈장흥에서 (예뫼골)〉－人生의 青春, 中年, 老年期의 삶의 보람을 統覺的으로 詩化한 人生散文詩로서 매우 세련미가 농후하다. 풍자와 興趣(술의 흥취)까지 깃들인 詩想은 人生体驗의 달고 쓴 맛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수용하는 넓은 雅量을 보여줌은 한폭의 人生達觀画의 実感마저 자아낸다.

⑤ 〈행복 그리워〉－갖가지 인생의 생태를 통한 삶의 의지력을 詩化한

詩想으로서 人生実存의 希望的인 情感을 읊은 主題로 삶의 靜的인 達觀이 돋보인다.

11. 임현숙 ① 〈겨울의 탐라〉－제주도의 자연 풍경을 主題로 한 이미지로서 구성이 바르고 표현이 너무 간결하다.
② 〈그리움〉－달빛에 환상을 일으키는 思慕의 情念을 主題로 하였다.
③ 〈아가〉－生男의 기쁨을 主題로 한 이미지가 神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다.

12. 현지원 ① 〈빈 가슴의 노래〉－슬픈 사연을 잊으려 애쓰며 비우는 가슴 속에 내리는 비처럼 차가운 상념을 主題로 한 이미지로서 散文性을 배제했으면 바른 詩型을 구성할 수 있으리라.
② 〈10월의 하늘〉－10월의 맑고 푸른 하늘 속에서 신선한 삶의 공기를 마시는 기쁨을 主題로 한 이미지로서 청아한 느낌을 북돋아 준다.
③ 〈三更〉－三更은 기도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기쁨을 읊은 主題로서 구성이 간결하다.

B. 小說作品評 (主題意識世界)

1. 강삼미 〈잠 못 이루는 밤〉－흘러간 과거의 남편과의 행복했던 생활을 회상하며 현재의 고독을 회상 속에서 처리한 主題로서 현실을 극복하는 女人의 진실한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2. 金安基 〈노이로제〉－『시와 의식』 誌에 이미 발표되었던 작품으로서 主題, 構成, 表現에서 소설의 要素들이 잘 살려져 있으며, 精神分析學的인 現代人의 「노이로제」를 다룬 것은 時代에 알맞는 着眼으로 매우 대견스럽다.

3. 배남규 〈향수〉－人物性格, 心理表現을 잘 처리한 건실한 主題意識이 투철하다.

C. 隨筆作品評 (生活隨筆의 참모습)

1. 강경애 〈中年의 자리〉－中年 人生의 보람을 느끼는 중년여인의 삶의 의의를 主題로 한 작품으로 心理描寫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 글솜씨도 능숙하여 生活隨筆로서의 본질을 굳건히 살리고 있다.

2. 金英希 〈버려진 헌 여름구두〉－절약을 위해 헌 구두를 수선해 신으려는 심정을 主題로 하여 뭐든지 자신이 쓰던 것을 버리기 아쉬워하는 애착심을 女性心理답게 상세히 피력한 생활수필로 매우 인상적이다.

3. 배동순 〈베로니카〉－양옥자(베로니카)라는 옛친구에 대한 간절한 애착심을 主題로 한 짙은 友情이 섬세한 문장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人間愛의 典形이기도 하다.

4. 선우영자 〈서울 탈출기〉－서울서 살다가 의정부시로 이사와 자연과 동화된 생활의 보람을 느끼는 心情이 짙게 풍기는 作品으로서 都市公害를 등진 現代人의 自然歸依를 뜻하는 수준높은 純化性을 보여준다.

5. 양경숙 〈오해〉－시아주버님과의 오해를 취급한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실토한 생활고백을 主題로 한 女人特有의 心情을 잘 표현하고 있다.

6. 임영희 〈온 누리가 평화로운 이 좋은 밤에〉－딸 혜진(高3)에게 주는 모성애를 主題로 하여 딸에의 간절한 애정을 쏟아가는 어머니의 성스런 애정이 짙게 풍긴다. 지극한 母性愛의 告白이다.

7. 이성녀 〈농촌 총각 장가가는 날〉－동네 총각의 결혼식 날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생활상을 의논하고 도와주며 인정을 나

누는 장면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훈훈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준다. 또 농촌에서의 삶의 애환과 문화수용의 어려움도 함께 표출하여 이시대의 농촌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D. 童詩

양정숙 〈내 동생〉－장난꾸러기인 동생의 아양부림을 視覚化한 詩이미지로서 兒童心理의 표출을 시도하고자 했다.

E. 童話

김진 〈내 친구에게〉－童心의 천진난만한 순수성으로 大田엑스포를 관람하고 느낀 우리나라 과학발전의 未來를 촉망하여 希望的으로 묘사한 익숙한 글솜씨가 대견스럽다.

F. 總評

詩作品은 散文性을 벗어나야 하겠고 다른 장르들은 그 나름대로 발전의 여지를 앞날에 기대하게 하고 있어 더욱 노력이 기대되어진다.

최호림 시집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병처럼

신원문화사 3000원

社 告

회원및의정부문학상 작품 모집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문화 발전 및 향토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회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또한 본 협회에서는 의정부문학상을 신설하여 지역문학창달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작품 제한없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문인이나 신인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으며 작품이 우수하면 시상의 대상이 됩니다.

- 원 고 마 감 : 1994년 9월 30일
- 시상예정일 : 1994년 12월
- 시상 내용은 추후 발표하며 응모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지부장 김 성 년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1-5 평화빌딩 2층
전화 : (0351)875-8308~9

제8회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 입상작 모음

일시 : 1993. 10. 8(수)
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청 광장
주최 : 한국문인협회 의정부 지부
후원 : 의정부문화원 · 의정부시청 · 의정부교육청

주부백일장 입상자 기념사진

시 부문 입상자 명단

성 명	주 소	주 제	비 고	전화번호
현지원		어머니	장원	
이순옥		〃	차상	
백인희		〃	차상	
윤명희		결혼 이야기	차하	
황영애		나의 살던 고향은	차하	
양순이(단비)		어머니	가작	
장정숙		〃	가작	
임현숙		〃	가작	
이은주		고 향	가작	
박옥자		어린 날의 추억	가작	

수필 부문 입상자 명단

성 명	주 소	주 제	비 고	전화번호
백일영		결혼 이야기	장원	
김문희		어린 날의 추억	차상	
박명화		결혼 이야기	차상	
박금숙		고 향	차하	
이경재		고 향	차하	
강삼미		고 향	가작	
김미선		어머니	가작	
임월주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작	
양정숙		어머니	가작	
선우영자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작	

운문/장원

현 지 원

어 머 니

석류알
터치는 햇살마냥
다정한 당신의 이름은
사랑의 꽃밭.

귀여운 아가를
꼭 보듬고
티 없이 맑게 부르시던
당신의 노래
사랑의 노래.

햇솜처럼 따스한
당신의 눈길에서
아가는
작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꿀물처럼 달콤한
사랑의 샘물 먹고
아가는 또
엄마로 자랐습니다.

지난 어버이 날
당신 가슴에 꽂아드린

카네이션이
어찌
당신 맘 보다야 더 붉으리요.

삼백 예순날
하루같이
굽굽이 아린 숨결
꼭두새벽 물 묻은 행주치말랑
天上의 고운 날갠 양
가슴 깊이 묻으시고,

어느 먼 여울가에
타버린 노을같이
최후의 한 조각 육신마저
소롯이 태운 마음
결 고운 치마폭에 저립니다.

어둠의 손들이
포올폴 날을 땐
두 손 모아
뜨거운 기도의 문을 여시던

당신의
아득한 음성
가람되어 흐릅니다.

아!
엄마된 지금에야
가슴 저리도록 더 소중한 이름
어머니,
어머니여!

쪽빛 가을 하늘
저 연자빛 햇살보다
더 빛 고운 그 이름
어머니,
어머니여!

이 순 옥

어 머 니

어머니!
눈을 감고 나즈막히 불러보면
가슴 속 밑으로 잔잔히 흐르는
사랑의 강이 있습니다.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혼자서 가슴 속에 묻어 버려
사랑의 강으로 흘려 보내고,

작은 웃음은 큰 웃음 만들어
가족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 주십니다.

세월의 깊이 만큼
깊게 패인 주름살은
어머니의 노래요
어머니의 슬픔입니다.

백 인 희

어 머 니

질곡의 세월에 거북등같이 굽어버린
내 어머니의 등줄기는
가을 볕 만큼이나 따가운 빛으로
내 눈을 감기운다.

어릴 적 나의 꿈이
어머니의 꿈이기도 했으련만
굽이굽이 모진 세월
가슴 속에 묻어 두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네.

어머니!
소리 없는 가르침을 깨닫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깨달음 그대로 살아 가렵니다.

백 인 희

고 향

돌담에 비스듬히 어깨를 기댄
나즈막한 초가 지붕 위에
둥근 호박 누렇게 익어가던 고향

국화꽃 둘러쳐진 마당엔
멍석 펴고 드러누운 빨간 고추
파란 하늘 떠 가는
솜구름 구경하던 고향.

붉게 물든 산등성이에 서서
내 아이의 손톱끝에 남아 있는
봉숭아 꽃물에 고향의 향수를
담아본다.

운문/차하

황 영 애

나의 살던 고향은

배암처녀 혼령 산다는
산자락에
실개천 아스라히
굽이 돌아 흐르고
감나무 살구나무
때 맞춰 열리는 곳.

빛바랜 들 마루에
한가로이 삽살개 잠들고
사랑방 창 너머에
아득히 들려 오는
나의 아버지 기침소리.

그 언제였던가?
도회지로 훌쩍 떠난
자식들의 빈 자리에
들깨며 깻잎이며 고추를
달래시며 키우시던.
사랑하는 그 주름진 손은,

지금 어디 가고 없는가?
이 허전한 마음이여….

윤 명 희

결혼 이야기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보낸 채
황량한 벌판을 서성인다.
꿈꾸어 오던
진주빛 황홀은 사라지고
일상의 테두리 속에 갇혀
육체가 답답하고
영혼이 메말라
찰나와 영겁 속에서
피 토해 절규함은
자유가 그리워서이고,
굵은 손마디보다
늘어난 주름살보다
무디어진 영혼이
더욱 두려워
한 손에 자유를 잡고
한 손에 용기를 쥐고
황량한 벌판을 달린다.

결혼 이야기

백 일 영

결혼이란 두 사람의 하나됨이며, 서로에 대한 기꺼운 구속이며, 외로운 영혼이 서로 의지하고, 위로 받으며 사는 행진임과 동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하는 제2의 탄생임을 우리는 안다. 흔히, 말하기를 결혼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아야 하지만, 결혼 후에는 한 쪽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 이는 결혼 전에는 후회 없는 탁월한 선택이 되도록 세심하고도 면밀하게 상대방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는 말이고, 후자의 얘기는 두 눈을 다 뜨면 한 쪽 눈에는 기쁨이, 다른 한 쪽 눈에는 슬픔이 고이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참혹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이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상대방의 단점도 수용할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기를 막기 위해 결혼 생활의 처참한 동의를 미소로 표시하기도 한다.

나의 경우는 결혼으로 인해 거듭 낳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여유를 갖고 살지만, 그래도 마음 속의 허허로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결혼 후, 대부분의 여성들이 출산을 경험하고 육아라는 커다란 과제가 쥐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되는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자는 예전의 화려하고 화사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과 자신을 포기하려는

두 가지 마음의 형태에 이르게 되는데, 심한 경우 우울증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고 하니, 집안의 해인 주부의 역할이 이중 삼중의 과중함을 룸메이트인 남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자는 스스로를 자학하게 된다.

두 번 출산으로 세 아이의 엄마가 된 나는 현모와 양처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나 개인으로서의 여백을 갖고 싶어 한다.

하루종일 아이들과 놀다 보면 바보가 다 되어가는 느낌이 든다. 반복되는 스무마디 정도면 대화가 되고, 천사같이 맑은 모습에 나를 빠뜨리기도 하지만, 특히 설것이 하는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일 때문에 짜증과 권태가 밀려온다. 어느 시인이 말하기를

나는 오늘도 식기를 닦는다.
내가 이 식기를
닦고 또 닦아
백자가 된다면
나는
천번 만번을 닦으리라.
그러나
닦아도
그냥 식기는 식기
젊은 날의 내 애를 끓이고 있으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는데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결혼은 사람의 심성을 곱게 하는 커다란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토록 너그러울 수가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칭찬해 줄 만큼 이 만큼 자라 있고 넓어진 마음은 결혼의 어려움과 기쁨을 통해 얻은 고귀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지, 사랑받고자 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결혼 한번 잘함으로써 굼벵이가 매미가 된다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만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결혼은 꼭 하는 것이 낫다고.

이 땅의 신세대라 자칭하는 젊은이들이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충심으로 대화하고 사랑을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DINK족이 늘고 있다는 건 매우 슬픈 일이에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사랑하고 나중까지 지켜 주고 더 오래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조그마한 평화를 지켜 보자구요.

윤용빈 · 박옥전 동시집

보리고개

한누리미디어 3000원

임금숙 동시집

엄마 꿈 나의 꿈

문예사조 3000원

김선규 시집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서시

우아당 2500원

어린 날의 추억

김 문 희

창을 열고 올려다보는 시월의 하늘은 나날이 높아간다.

그 푸르름은 가을바람을 머금어 풍성함과 함께 아련한 애수가 깃들어 있다.

해가 서쪽 하늘가에 발길이 닿을 때쯤이면, 나는 매일, 대문과 방문, 창문 등 집안의 모든 문을 열어 젖히고 집안 청소를 한다.

전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서 모든 문을 열고 청소하는 나를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습관인 줄 아시고는 더 이상 참견을 않으셨다.

다른 주부들은 보통 아침 설겆이에 이어 빨래, 청소, 이런 순서로 한다는데 나는 다른 일은 모두 오전에 하면서도 청소만은 오후에 하는 버릇이 있다.

오늘은 청소를 서둘러 끝냈다.

이 날 따라, 창을 타고 넘어오는 바람이 가을 들판의 풀잎들이 보낸 것인 양 정겨움을 일으키고, 웬지 모를 그리움 때문인 듯 가슴이 두근거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단가에 놓아둔 화분에 노란 국화꽃이 오늘따라 눈부신 노란 빛깔로 내 시선을 자꾸만 잡아 당기기 때문이다.

그 노란 빛깔은 나를 자꾸만 아련한 유년의 시절로 잡아 끈다.

그건 언제나 내 가슴 깊이 박혀 있어. 어떤 순간에 불쑥 솟아나는 추억의 조각들

탓이다.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잊고 지내도 좋을 그 어린 날의 추억 때문에 나는 아직도 자주 가슴이 아려온다.

지하철 계단을 오르 내리다가도 문득 떠오르고, 한가히 화분 손질을 하다가도 솟구쳐 오르는 기억들…….

나는 유년기를 대구에서 보냈다.

그 당시의 대구시는 지금처럼 큰 도시는 아니었고, 우리집은 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시골에 많은 논밭을 소유한 부친은 농토의 일부를 팔아 200평 정도의 넓은 집을 대구에 지으셨던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작은 섬유공장을 경영하셨는데 사업쪽보다는 예술분야를 무척 관심 있어 하셨고 즐기시는 분이셨다.

우리 집엔 정원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오빠, 언니, 그리고 어린 내가 직접 꾸미고 가꾸었다.

나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길을 가다가 길가에 놓여진 화분이나, 어느 영화 속에서 멋진 꽃밭을 보면 그 어린 시절의 우리 화단을 생각한다.

아버지와 함께 집 뒷담 안쪽에 호박심을 구덩이를 파고 호박 씨앗을 심던 일, 그 호박씨가 무더운 어느 여름날 갑자기 꽃을 피우면 그 노란 색이 나를 잡아 끌었다.

사람들이 '호박같이 못생긴……' 운운할 때도 나는 그 노란 호박꽃을 끝까지 옹호해 주고 싶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또, 아래채 사랑방 옆에 심은 해바라기들도 어느새 자라 노란 꽃잎을 달고 있었다.

장미도 심고, 분꽃도 심고, 다알리아도 심었다.

흰색 장미, 노란 장미, 흑장미……

노란 분꽃, 분홍색 분꽃……

연보라색 다알리아, 하이얀 다알리아……

그리고, 가을이면 탐스럽게 달려 함빡 웃음을 머금던 석류나무……

내 어린 시절은 아버지와 함께 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아버지께서 한창 감수성 예민한 여고 1학년때 돌아 가셨을 때, 나는 그 후 몇 년을 그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울보 소녀가 되어 버렸다.

요즘도, 국민학교에 다니는 나의 막내 딸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꽃밭에서〉 노래를 부르면, 나는 끝까지 따라 부르지 못하고 눈물이 솟구쳐 부엌으로 들어가 울음을 삼키곤 한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봉숭화도 채송화도……"

그렇게 자란 나이면서도 국화꽃 하나 제대로 못 키워 몇 년을 실패만 했는데, 작년부터는 결심을 굳게 하고 국화꽃 재배에 정성을 기울였다.

책도 사다 읽고, 서초동 꽃동네에 가서 묻기도 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 소담스런 국화 꽃송이를 얻게 되었다.

나는 처녀 시절,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맞이하게 되길 꿈꾸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버지와 닮은 데를 찾아내기 힘든 현재의 남편과 결혼했다.

단지 그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를 잠시 잊고 택한 사람이었다.

남편은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서도,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그 어린 시절과 함께 아버지와의 추억이 더욱 그리워지는 건, 또 무슨 허욕이기라도 하단 말인가?

30여평의 작은 집이지만 화단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남편은 자전거 세울 곳으로 정하고 자전거 보관소(?)가 세워지고 말았다.

아들 자전거, 딸 자전거, 내 자전거.—이렇게 자전거가 세 대나 있으니 내 주장을 더 세울 수도 없었지만 참 섭섭했었다.

그리고 어린 우리들과 이마를 맞대고 시집을 함께 읽고, 문학 얘기도 곧잘 하셨던 아버지.

신문만 읽고 뉴스만 듣는 남편을 아버지와 비교한다는 건, 내 나이에 유치한 일일 것이다.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들 대부분을 예술과 자연에서 멀어지게 한 탓일 수도

있으니까, 더욱이 남편만을 탓할 수는 없겠다 싶어, 어린 시절을 못내 그리워하는 나 자신을 오히려 나무라고 만다.

그렇다.

어찌 현실에만 급급한 남편만을 탓하랴.

그렇게 풍부한 정서적인 유년기를 보낸 나는,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가?

'숙제 다 했니? 공부해라. 학원 갈 시간이잖니?'하고 내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훗날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신의 유년시절을 돌아볼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 것인가?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나는 좀더 나를 깊이 돌아다 보자.

노란 국화꽃을 바라보며, 나는 서정주 시인의 싯귀를 읊조려 본다.

"……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그래. 이제는 내 어린 시절이 아쉬워 안타까움에 몸을 떨지만 말고, 그 아름다운 기억을 밑거름으로 보다 나은 삶의 꽃을 피우자.

이 가을이 더 깊어지기 전에 나를 한번 더 돌아보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삶이 윤기 흐르고 향기 넘쳐 나도록 좀더 애써 보자.

결혼 이야기

박 명 화

91년 3월 15일, 바로 그날이었죠? 까맣게 그을린 얼굴, 시골에서 농사에 지쳐 상경(上京)한 듯한 얼굴로 내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한 날이 말이예요.

다소 튀어나온 배, 유달리 아저씨 같은 얼굴의 당신을 보고는 난 아저씨라 불렀죠? 30대를 훨씬 넘어 보인 듯한 얼굴로 인하여 난 당신을 기혼자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외모는 내가 싫어하는 타입의 한 사람이었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나에게 당신이 명함을 건네주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릴 정도로 난 무관심이었는데 당신은 그 일을 계기로 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죠? 많은 시간의 당신 관심에도 난 별 반응을 보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날, 여늬때처럼 만남을 가졌을 때 난 관심도 없던 당신의 눈빛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살아온 많은 날들 중에서 당신처럼 선한 사슴의 눈빛은 당신 처음이었답니다.

그 순간이었죠.

난 '이 사람하고 살면 평생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당신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 추운 겨울에 군고구마 정도는 사들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은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요.

전 그 군고구마 이야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당신의 그 순수성 때문에 마음을 쉽게 결정했죠.

나의 결혼 승낙을 들은 당신은 어린 아이마냥 뛸 듯이 기뻐했죠.

반년 남짓한 연애기간을 거쳐 92년 5월 9일 찬란한 햇살아래에서 맺음을 갖고 우리 둘은 한집에서 머물며 의·식·주를 해결하게 되었죠.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시댁과 거리가 가까운 의정부에서 공직을 갖게 된 당신을 따라 생전 처음 의정부라는 곳에 오게 되어 지금은 그래도 적응이 되었답니다.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기에 이왕이면 해 보고 손해보자고 했는데 그 말을 가슴깊이 느끼며 살고 있죠.

날마다 굵직굵직한 깨가 쏟아지더니만 그 알맹이는 점점 줄어들어 지금은 다시 깨 농사를 지어야 할 것 같군요.

그러나, 아직 돌도 안 지난 우리 아이 '희창'이는 우리에게 가을 햇살 만큼이나 따스하고 커다란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다시 안겨 주었죠. 당신과 내가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은 애너밸리의 시에서처럼 우리의 행복을 질투해 누가 앗아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충만하게 느끼고 있죠.

잉태의 기쁨, 탄생의 기쁨, 옹알이, 웃고, 기고, 우는 것조차 당신과 나의 결혼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게 했죠.

처음으로 아이의 치아 두개가 올라왔을 때 당신은 퇴근 후 씻지도 않은 손을 아이의 입 속으로 넣어 만져보고 커다랗게 웃으며 좋아했죠. 당신의 그 순박함은 날 항상 맑고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나에게 꼭 해 주어야 할 일이 있답니다. 내가 결혼을 결정하게 된 그 군고구마를 아직 한번도 사들고 들어온 적이 없죠. 아이를 가졌을때도 그렇게 먹고 싶어했던 그 군고구마를 당신은 가지각색의 이유를 설명하여 위기를 모면하곤 했죠.

군고구마 때문에 결혼했지만 근 2년이 다하도록 당신이 사준 그 군고구마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면 난 분명 당신에게 속아서 결혼했다고 해도 모자람이

없지 않을까요?

군고구마철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고추를 이 좋은 가을 햇살에 말리고 벼를 수확하고 찬서리가 내려 고구마를 캐서 저장하여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며 따스한 군고구마를 먹게 되겠죠.

올 겨울엔 당신 사랑 만큼 진한 군고구마 맛을 느껴보고 싶다면 욕심이 과한 것일까요?

내가 당신에게 바램이 있듯이 당신 또한 나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연애, 결혼, 그리고 아이엄마가 된 지금까지 난 당신에게 한번도 편지를 해보질 못했죠. 늘 가까이 있어서라고 변명을 하고 싶지만 성의부족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난 지금 당신이 그토록 소원하던 「편지」를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앞 잔디밭 뜨락에서 포근한 햇살을 받으며 아기랑 시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하여 내가 원한 군고구마도 당신 소원했던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도 해결되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날의 하루군요.

사랑하는 당신!

며칠 전 당신이 회사에서 받아 나에게 안겨준 「모범봉사대상」은 그 동안의 나의 조그마한 고생과 힘듬을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게 했습니다.

당신이 늘 그렇게 모범가장으로 모범사원으로 내 곁에 있음이 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당신 만큼이야 못하지만 늘 당신에게 필요한 아내로 자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알알이 영글은 가을 열매를 보며 우리의 아름답고 행복했던 「결혼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 줍시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당신의 천사 아내가.

아, 초록빛 내 고향

박 금 숙

"가을아, 두 밤만 자면 우리 바다 갈 수 있어, 빨리 자자. 응!"

"엄마 이젠 이렇게 두 밤만 자면 바닥(바닷가) 갈 수 있어. 응?"

"그럼, 그러니까 빨리 자자. 그래야 빨리 밤이 지나가잖아. 자— 우리 가을이 착하지. 좋은 꿈 꾸어라."

"알았어. 엄마, 엄마도 잘 자. 엄마 사랑해요. 아이라브유. 뽀로롱 뽀로롱."

초저녁에 잠을 자서인지 잠 잘 생각을 하지 않는 딸 아이(37개월된)를 재우려고, 모레면 떠나게 될 바다 이야기를 했더니 '두껍아 두껍아' 노래를 흥얼거리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래. 우리 바다에서 신나게 두꺼비집을 높게 높게 쌓자구나.'

하루의 피곤을 Y셔츠 소매에 얼룩얼룩 묻혀 온 남편도 잠이 들고, 4개월 된 봄(담휘)이와 가을(솔휘)이의 가슴에 꿈나라 전설이 하얗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살그머니 일어나 부엌 식탁에 앉았다.

11月이면 이사도 가야 되고 어머니 환갑 차릴 걱정도 되고 이것 저것 생활의 걱정이 태산 같으면서도, 실개천 흐르고, 뻐국새 우는 고향, 푸른 바다 물결이 가슴까지 넘실넘실 밀려와 걱정은 커녕 내 마음은 초록빛이었다. 얼마만이던가!

둘째 아이를 해산하고 땀이 물흐르듯 쏟아지는 여름에 자꾸자꾸 미역국 색깔이 초록색으로 보였다. 그때마다 남편에게 바다가 보고 싶어. 여보 나 바닷가 바위에

한 번만 앉아 보았음 했다.

가슴에 바다 물결이 지평선쯤 밀려갔을 어느 초 가을날 남편은 비행기표 세장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속초행- 나와 남편 그리고 딸의 비행기. 나는 저만치 밀려 가는 바다의 파도를(아주 거세게) 치게 만들어 다시 밀려 오게 했다. 매일 매일 딸 아이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 가며.

내 고향은 강원도 하고도 꼬불꼬불 진부령 고래를 넘어 푸른 바다가 보일 때까지 가야 하는 고성군 청간리다.

어렸을 적 십리를 걸어가야 닿을 수 있는 학교에 다녔던 우리는 신작로, 둑길, 개울, 산, 들, 모두가 우리의 놀이터며 쉼터요 학습장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엄하셨기 때문에 그곳 친구들이 하는 대로 다 하지는 못했지만 말괄량이로 소문난 나는 부모님 몰래 그곳들을 다 활용할 수 있었다. 텀벙텀벙 뛰어 들어가 멱을 감고 입술이 파래져서 해바라기를 두 손 벌려 하면 남자 아이들은, 자꾸 착 달라 붙은 젖은 옷사이를 보고 싶어 뒤에서 밀고 뛰어 다녔다. 옷소매가 웬만치 마른가 싶으면 여자 아이들은 또 가슴을 감싸 안았다. 앞으로 봉긋 솟아 오른 가슴과 건포도 만한 젖꼭지를 가리기 위해 팔장을 끼면서 '야, 너 젖꼭지는 되게 까맣구나!' 아니면 '재는 애기 무덤 같아!' 하며 '까르륵 까르륵' 웃던 일.

또 서울서 이사온 아이의 집에 풍선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만 다-아(다오), 나 하나만 다-아'하다가 겨우 하나 얻어 신나게 불다가 터뜨렸을 때의 허전함. 어느날 나는 무엇을 찾다가 우리 집에도 풍선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의 가슴 벅차오름이란 아-, 지금 생각해도 우습고 환희에 찬 사건이었다.

나는 어머님 장롱 깊숙히 숨어 있는 하얀 풍선을 들고 나가 서울 아이의 집으로 뛰어 가서 실컷 자랑을 한 다음 동네 아이들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풍선을 나누어 주면서 허세를 부렸다. 아이들은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나를 빙 둘러 모여 앉았다. 그동안 고맙고 내게 잘 해 준 아이에게는 두개, 그냥 그런 아이에게는 하나, 아주 밉고 얄미운 아이에게는 '홍!'하고 약올리며 풍선을 불었다. 내 풍선은 서울의 것처럼 알록 달록 색깔은 없었지만 아가리가 크고 잘 불어졌다.

누구 것이 더 큰가 서로 키득거리며 재고 있을 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밭일을 보고 오시다가 우리를 보더니 -아이구머니, 재네들 좀 보게! -했다. 우리는 그 아주머니에게 자랑할려고 -이것 봐요 아줌마. 우리 풍선 많지요? -했다. 그 아주머니는 얼른 달려와 내 손에 한 웅큼 쥐어있던 하얀 풍선을 빼앗아 어디서 났냐며 호통을 쳤다. 나는 그만 울고 싶어져 울먹거리며 -내 풍선 줘요. 내 풍선이란 말이예요. 이 것 훔친 것 아니예요. 우리집에 많단 말이예요.-했다.

다 빼앗기고 울상이 되어서 터벅터벅 집으로 들어가자 대문 사이로 아주머니가 -떽기! - 하며 나에게 큰소리 치셨고 엄마는 달려나와 내 손을 끌고 가더니 싸리 나무로 나의 종아리를 치셨다. 나는 -왜 그래 엄마? 나 안 훔쳤단 말이야. 나 안 훔쳤어- 하는 나에게 엄마는 -어휴 창피해, 어휴 이 기집애야. 엄마 망신 다 시키고 있니 응? 어휴 창피해- 하시며 때렸다.

왜 엄마는 내가 그 풍선 분 것이 창피했을까? 나는 얼만큼 시간이 지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아무리 장롱 깊숙히 하얀 풍선이 많아도 절대 가져 나간 일은 없었다. 그리고 마냥산으로 들로 뛰어가 말처럼 뛰어 다녔다.

어느 겨울날 우리집에는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났다. 눈내려서 하얗게 쌓인 산으로 동생과 나는 비료봉지 하나 가지고 나가 썰매를 타다가 동생이 미끄러져 곤두박질하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 언니인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급하게 뛰어오는 엄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내 용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은 영원히 절름발이가 되었다. 나는 바다에 있는 소원 바위에 올라가 며칠씩 빌었지만 내 소원은 하나님께도 거절 당했었다. 그 죄로 나는 동생이 가고 싶어하는 산이나 들로 동생을 업고 다녔고 동생이 내 등 뒤에서 웃을 때마다 나는 더 큰소리로 웃으면서 울었다.

이렇게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은 슬프고도 신나는 일이었다. 나의 가슴과 동생의 가슴에 차곡 차곡 쌓인 고향에서의 일들은 지금은 저만치 멀어져 있다.

밤아, 밤아 빨리 지나 가거라. 두 번만 자면 서러웁게 그리운 고향의 품에 안긴다. 내 힘이 달리면 어린 딸 가을이에게 내가 뛰어 놀던 산과 들, 나의 정서가 되어 주었던 바다에서 실컷 뛰어 놀고, 높게 높게 두꺼비집을 쌓게 하여서 고향의 그리움의 집을 여러곳 쌓아 두고 오게 하리라.

고 향

이 경 재

나의 고향은 서울 서교동이지만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2의 고향 충청도 두메산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일까요?

서울에서 대전을 가다 보면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완행열차만이 기억해서 정거하는 그림 같은 고향역.

조그맣고 조용하며 아름드리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한폭의 수채와 그대로였습니다.

역대합실을 나서면 나를 반겨주던 학교와 면사무소, 농협, 조용한 찻집 아늑한 면소재지를 벗어나면 끝 없이 꼬불꼬불 펼쳐지는 미루나무와 오솔길.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1시간 가량 걸어가면 산 속에 폭 파묻힌 일곱채의 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뒤의 산 속에 포옥 안겨 동네어귀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마을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이른 봄이면 어른들께서는 경칩이라며 논가에서 개구리알을 건져드시는가 하면 개굴개굴 개구리의 합창이 시작되고 우리는 이름 모를 산나물과 비가 오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아기고사리를 뜯고 찔레순을 따다가 고추장 찍어 먹으며 즐거웠고 개나리 진달래 피면 진달래꽃도 먹고 어른들은 꽃을 가지고 화전을

부치기도 하셨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면 이어서 버찌를 한 주전자씩 따 먹고 새까매진 입을 보며 즐거워 하였습니다.

산의 정기를 받아서일까?

도시의 빌딩 속에서 살지만 역시 떠오르는 것은 그때의 추억들입니다.

자연 속에서 숨쉬고 자연에 파묻혀서 생활을 하였던 그 시절이 가장 그립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도 나의 마음의 안식처는 되지 못했고 진정한 나의 고향은 산밑에 하얀 메밀꽃이 피고 텃밭의 상추로 쌈을 싸먹던 점심 보리밥, 불 때서 풋콩까서 햅쌀밥 지어먹던 그 맛, 그 시절이 나의 고향이며 나의 마음 속에 깊게 뿌리내려 응어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나의 고향 그 곳에서 화전을 일구며 채마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리도 맛 있고 즐거웠는지. 사람이 변했을까, 입맛이 변했을까, 그때의 그 맛과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회룡문화제 백일장 입상작 모음

〈초·중·고교생〉

○엑스포 지름길/최미미 · 용현국 6
○버려지는 풍부한 자원/엄혜림 · 경의국 2
○하늘이 푸른 우리 고장/백상준 · 가능국 1
○넓고 푸른 마음으로/신효정 · 의 서국 5
○쓰레기 분리 수거 · 재활용/김민교 · 배영국 4
○잃어 버린 산/홍수일 · 가능국 5
○문장대/이대웅 · 의 중 3
○재활용을 게을리 하는 이들에게/김태현 · 경민중 2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고장/전진영 · 의 중 3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양세라 · 의 여고 1
○여름여행/김서진 · 경민중 2
○수학여행/한경숙 · 의 여중 1
○설악이 솟는다/조남선 · 경민고 2

학생백일장 광경

엑스포 지름길

용현국민학교
6학년 최 미 미

엑스포?
꿈돌이?
첨단 과학?

이러한 것들이
우리 눈 앞에
펼쳐지고 있다.

슬기와 지혜의 상징인
우주 아기 요정
꿈돌이를 앞세워
엑스포가
문을 열었다.

과학 문명의
온갖 것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지름길.

미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쁨의 지름길.

여러 나라와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발전의 지름길.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
발전의 지름길을
더욱 넓혀 가 보자?

아직은 늦지 않았다.
모두모두 손잡고
엑스포로 출발!

버려지는 풍부한 자원

경의국민학교
2학년 엄 혜 림

풍부한 자원이 내 손으로 오늘도 매일매일 버려지고 있다. 얼마 전 텔리비젼에서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것이 나온 적이 있다. 아이들이 빈 캔을 직접 기계로 밟아 하나하나 모아 놓은 것이 산더미처럼 한 동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빈 병, 쓰레기를 분리해서 가져 오는 사람에게는 재활용한 휴지나 공책을 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꼭 주고 받아야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지, 어른들은 너무 이기주의자가 아닌가…… !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하루에 쏟아지는 쓰레기 산더미 그 안에 분리되지 않은 많은 자원이 우리들 손을 거쳐 버려지고 있다.

버려지는 종이 하나, 빈병 하나 하나가 모두 다 다시 새로운 물건이 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어른들은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더 실천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귀찮다고 재생되는 활용품과 함께 버린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돈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 안에서 분리 수거통은 매일매일 텅 비었고 쓰레기통만 가득 가득 쌓여져 있다. 냄새가 코를 찌르고 더럽다는 것을 금방 느껴도 어른들은 실천하지 않는다. 나 먼저 내가 먼저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도 버려지고 있는 하나하나 귀중한 자원이 하나의 귀중한 돈이 되어 다시 내 곁으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요번 엑스포가 끝나기 전에 엄마 아빠 우리 가족 모두가

대전 엑스포에 가서 구경도 하고 재활용하는 기계를 내 손으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해야겠다.

오늘 쓰고 있는 이 종이가 재활용된 원고지였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늘이 푸른 우리 고장

가능국민학교
1학년 백 상 준

우리 마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자동차도 질서를 잘 지켜 달립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를 따라 서울에 갑니다. 그곳의 하늘은 회색 빛깔로 무섭게 저를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하늘은 가을을 맞이하여 마음껏 뽐내고 있습니다. 제가 샘이 날 정도로 파란 색을 하늘 가득히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우리 가족은 시청 뒤의 산 약수터에 갔습니다. 조그만 물통을 아버지가 배낭에 넣으시고, 우리는 신이 나서 아버지를 따라 갔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 고장이 한 눈에 다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저 멋지다는 말만 자꾸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고 푸른 하늘 속에서 행글라이더가 날아가지 않겠어요? 오색의 행글라이더를 뭉게 구름이 잡아 갈 것같이 가슴이 조마조마 했습니다.

나도 크면 행글라이더를 타고 저 푸른 하늘 위를 마음껏 날고 싶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마음껏 마시느라고 흠흠거리자, 동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따라서 흠흠거리며 좋아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재미 있기도 하여 우리 둘이는 서로 흠흠거리며 뛰었습니다. '이 푸른 하늘과, 맛 있는 공기를 다른 고장의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고장은 하늘만 푸른 것이 아닙니다. 산도 푸릅니다.

그런데 개천에 흐르는 물이 푸른 맑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뿌연 물에 파래 같은 것이 뭉쳐 떠 다녔습니다.

저는 개천에 흐르는 물도 맑은 색이라 푸른 하늘이 그대로 비춰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1학기 바른 생활 시간에 우리 고장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고장의 푸른 색을 잘 지키기 위해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환경 보호와 질서 지키기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가족은 약수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높고 푸른 하늘을 또 보게 되겠지요. 시원한 약수물을 한 모금씩 마시고, 우리는 아쉬움을 남기고 산을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푸른 하늘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 버리고 내려 왔습니다.

오늘 보았던 하늘도 저를 보고 잘 가라고 웃었습니다.

넓고 푸른 마음으로……

의정부서국민학교
5학년 신 효 정

우리 가족은 '딸딸계'란 친목계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번 방학에 '딸딸계'에서 계원끼리 피서를 가게 되었다.

동두천시를 지나자 산도 보이고 강도 보였다. 난 벌써 다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계속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다. 조금 있으려니까 집채 만한 탱크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덩달아 어디선지 대포도…….

"꽈꽈 꽝."

하며 울렸다. 그렇지 않아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터에 자꾸 탱크가 지나가고, 대포가 울리니 안 궁금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 기억을 더듬어 보았더니 1학기의 읽기 교과서에서 배웠던 철의 삼각지대 중의 하나인 곳인 게 아닌가? 마음이 들떠 이리 들썩 저리 들썩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였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 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안 갈라졌다면 저런 무시무시한 탱크나 대포도 안 봤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니 예비군 훈련 모습이 보였다. 예비군은 나라와 고장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듬직한 군인이 나라를 지켜 준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하였다.

드디어 강에 도착하니 금빛 햇살을 받아 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강이

금실을 먹고 저렇게 반짝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수영을 하였다.

푸른 강에 몸을 담그고 수영하고 있자니 한마리의 자유로운 물고기 같았다.

텀벙텀벙 물장구를 치면서 수영을 하고 놀다보니 어느 새 저녁이 되었다. 하늘 가득히 걸려 있는 붉은 저녁 노을을 보며 먹는 저녁밥은 정말 꿀맛이었다.

저녁밥을 먹고 7시 반쯤 되어 고기를 잡기 위해 강 아래쪽으로 더 내려가 보니 쓰레기가 강 주변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

쓰레기 썩는 그 악취에 코가 막히고 그 쓰레기 주위를 날아 다니는 파리와 모기의 모습에 눈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우리 나라의 오염 실태는 무척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이토록 심했는지는 몰랐다. 발걸음을 돌려 텐트로 왔을 때도 아까의 그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고 꼴까닥 산으로 넘어가는 해와 약속했다.

무지개같이 아름답던 이 시간하고도 작별해야 될 때가 돌아왔다. 이 아름답던 추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넓고 푸른 강을 다시 쳐다 봤다. 아까는 은빛으로 반짝이던 강이 지금은 노오란 달을 비춰내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이 곳에 와서 속좁게 행동했던 일들이 하나, 둘 떠올랐다. 튜브를 아기가 가져놀자 뺏어 갖고 논 일, 동생이 내 과자를 조금 먹었다고 짜증낸 일이 너무 부끄러웠다.

나도 강처럼 넓고 푸른 마음으로 살아 가기로 다짐했다.

달님한테 안녕 인사하고 쓰레기 버리지 않기로, 또 군인 아저씨처럼 나라를 지키지 못해도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기로 다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안의 시트에 몸을 기대어 달콤한 꿈속으로 빠져 들어 갔다.

쓰레기 분리수거 · 재활용

배영국민학교
4학년 김 민 교

난 오래 전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 봤었다.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는 것과 같이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었다.

어머니께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하신다고 쓰레기 버리는 시간도 다른 때 같으면 1분 정도면 충분한데 5분 정도나 걸렸다. 나는 어머니께

"어머니 뭣하러 그렇게 분리 수거를 하세요? 쓰레기장에 가면 다 섞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단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뾰로통 해져서 밖으로 나와 버렸다.

'흥. 뭐가 좋아져, 뭐가! 다 섞어 버리면 그만인데.'

그 때 어떤 꼬마 아이가 길에 떨어져 있는 깡통을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다. 그 아이는 세 개의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었다.

꼬마 아이가 지나가고 그곳에 가 보았더니 깡통이라고 쓴 글씨가 적힌 쓰레기통에 깡통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 옆에도 빈병류, 종이류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가득 들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잖아.'

그 다음 날이었다. 선생님께서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다.

"쓰레기들을 분리 수거하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예요. 종이, 빈병, 깡통, 플라스틱 등 말이예요. 이것들을 모으면……."

나는 열심히 들었다. 어쩐지 다른 때보다 더 재미 있게 들렸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길을 걷고 있는데 공책이 떨어져 있었다. 이름 쓰는 곳에 이름은 쓰여 있지 않고 낙서만 되어 있었다. 안을 보니 그림이 아주 많이 그려져 있었다. 다 써서 길에다 버린 모양이었다.

나는 그것을 종이류라고 쓰인 쓰레기통에 넣었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내가 재활용을 할 수 있게 자원을 모아 줬다니! 그래서 그런지 날고 싶었다. 푸른 하늘을 훨훨…….

집으로 돌아와서 재활용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어 보았다.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다른 책보다 더 재미 있게 읽었다.

미래의 부자가 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될 생각을 하며…….

잃어버린 산

가능국민학교
5학년 홍 수 일

산으로 들로 바다로 여행을 떠나 보면 푸르름이 눈앞에 펼쳐진다. 산으로 말하자면 정상에 오를 땐 힘들지라도 정상에 올라서서 땅을 내려다 보고 손에 잡힐 듯한 하늘을 보면 정상을 오를 때 힘이 들어 포기하고도 싶었던 생각을 잊게 된다.

만일 도중에 포기했다면 정상에서 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본 이름 모를 꽃들과 풀들을 보면서, 산길을 따라 지나는 맑고 작은 물줄기를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은 올라오면서의 힘듬보다 정상에 올라온 후에 땀을 닦고 있을 때의 기쁨이 힘들었던 고통보다 컸을 것이다. 아! 그누가 그랬던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고. 이 말에 비유한다면 정상에 오를 때 힘들지라도 정상에 오른 후에 땅과 하늘을 보고 도심지에서 맡아 보지 못하였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정상에 오르기까지에 힘들었던 고통 끝에 맞이한 단 열매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굳이 「루소」가 말한 '참고 견딘다는 것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라는 말로 비유하기보다 우리 나라 속담인 '고생끝에 낙이 온다' 라는 말과도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 않아 이런 정상에서 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산 뿐만이 아니라 들, 바다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다. 그건 자연 개발이나 지하자원 개발로 인한 산림 파괴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무심코 버려 버린 쓰레기 하나, 빈 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가? 우리 국민 모두가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줍지도 않는다면 산과 들 그리고 바다를 찾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슬퍼해야 하고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겠다.

문 장 대

의정부중학교
3학년 이 대 웅

수많은 돌층계, 손짓하는 나무들
발자욱 소리는 적막을 깨뜨리고

천상에서 내려온 끝 없는 층계인가,
대지에서 뻗어 오른 한 없는 돌다리인가?

흐르는 시간은, 밟고 온 층계수 만큼
보라, 대지는 예서 끝나다.

겹겹이 산천은 운해에 잠들고
바람은 매서이 귓볼을 스치누.

내지른 소리는, 천지를 깨우고,
기나긴 여운은 바람을 가르나니,

보라! 느끼라! 여기 이곳에
천지를 깨운 초인의 가슴을.

재활용을 게을리하는 이들에게

경민중학교
2학년 김 태 현

더러움에 찌든 세상
조금이나마 희게 할 수 있다면

목메이도록 가난한 이들의
한방울 땀 대신할 수 있다면

결코 밝지만은 않은 나라 살림에
작은 보탬 될 수 있다면

멀리 고통받은 땅 굶주린 이들의
한끼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면

그 작은 일로
봉사의 미덕과
자연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면

그대,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하겠는가?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고장

의정부중학교
3학년 전 진 영

'가기 전에 내 땅 한 번만 밟아 보고 갔으면 오죽 좋으련만……."

텔레비젼 드라마에서나, 혹은 우리 주위에서 종종 접하는 말일 것이다. 자주 듣는 말들이겠으나, 어른들은 특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곤 한다. 가령 고향이 최고라는 둥, 이북에 식구를 두고 있다는 둥…….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며 고향을 그리워 하는 그 분들의 고향, 고향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최근 얼마 전부터 나에게 그런 생각을 던져 준 일을 조금조금씩 더듬어 보았다.

작년 이맘 때인 듯 싶다. 학교에서 수학 여행을 가게 된 것이다. 모두들 그랬듯이 벅차고 설레이는 기분으로 가득했다. 경주의 여러 신라시대 당시의 문화재, 유적 등을 보며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는 중이었다.

"니들, 어데서 왔노?"

가는 곳마다 그 곳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는 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대답했고, 또 그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들의 대답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여행 이튿날 째, 내 마음을 흔들렸다랄까, 하는 이상하고 새로운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

"어데서 왔노?"

불국사를 나와 친구들과 길을 걷고 있던 중, 뒤에서 그런 말소리가 들렸다.

"의정부에서요."

"경기도 저 위쪽 동네인 의정부에서 왔다는 말 아인가?"

이 곳에 사시는 것 같은 그 아저씨께선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였다. 그러나 이상한 건 나였다.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내가 온 곳을 말한 것 뿐 다른 건 없는 게 분명했다.

"그……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라도 말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서 살기 별로 편치 못하겠구먼!"

"네?"

"거기 이북놈들 바로 코 밑에 있지 않나? 그래서 검뎅이 미군들도 득실거리고."

"……."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사는 의정부가 그 아저씨. 아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비춰졌는지 도무지 몰라 황당하기까지 하였다.

그 때 그 일, 별로 큰 일 같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이겠으나, 나는 기분이 계속해서 썩 좋지는 못했다. 그 아저씨께서 뭔가 잘못 아시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도대체 무슨, 어떤 이유로 의정부가 그렇게 알려졌는지……'

남들의 말을 빌리자면, 소위 이런 게 약간의 애향심이 발휘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 의정부가 좋지 않은 평이 있어서 기분이 언짢은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어른들께 여쭤 보는 거야!' 그 날 오후, 학교 선생님께, 아까의 일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를 여쭈어 보았다. 그 결과 대충 그 이유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었다.

지금 나는 그 때 선생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느낌을 돌이켜 보고 있다.

나는 이 곳 의정부가 고향이다. 16년 동안 쭉 이 곳에서 살아 왔다. 태어난 지 이렇게 긴 시간이 지나서야 내 고향, 내 고장을 생각하기란 약간 새삼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는 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한다.

의정부는 한수 이북 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으나 그에 못지 않게

불리한 점도 많았던 것 같다. 북쪽과 접근해 있는 등의 이유로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군사 도시라는 명칭 아닌 명칭까지 얻어야만 했던 게 정말 안타깝다. 자연히 군인과 부대, 무기 등은 많아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타지역 사람들에게도 평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그런 것 등의 이유로 좋지 못한, 가령 관청이나 대학 등의 시설이 부족한 불리함 등의 일들도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게 여기서 안 좋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는 결코 없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잘못 되고 어려운 것을 고치고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나 하나씩 처음부터 잘 챙겨 나가면 분명 안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이 곳 의정부가 그리 좋지 않은 곳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바탕으로 많은 학교와 건물, 밝은 모습의 시민들……. 그렇다. 그런 유리한 점을 밑거름으로 하면 의정부는 정말 더 발전되고 한결 나아진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곳은 옛날부터 정사를 돌보며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연구하고 토의했던 국사의 중요한 곳이었다고 하지 않는가?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 의정부시, 지금 이 자리에서 밝고 쾌적한 거리와 골목 등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정말 큰 기대를 해 본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니 몇 년 후면 정말 멋지고 건강한 의정부시가 돼 있을 것을 상상해 보았다.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정말 내가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을 자신감 있게 말하고, 그 쪽도 부러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우리 의정부시를 상상해 보았다.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의정부여자고등학교
1학년 양 세 라

고등학교에 올라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학기를 마쳐야 할 때쯤이었다. 한 학기가 가기 전에 친구와 기차 여행을 가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말로만 그칠 줄 알았던 것이 정말 가게 되었다. 내 몸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친구와 기차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에 전날 밤엔 꼭 유치원때 소풍가기 전날처럼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가기로 한 그날은 비가 시원스럽게 퍼부었는데 그 비마저 우리를 반기었다. 여름날 내린 비라 시원스럽기 그지 없었다. 어쩌다 한번 타보는 기차라 여행은 더더욱 즐겁게만 느껴졌고 친구와 나는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좋았다.

기차 안에서 우리를 가출소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눈길까지도 즐거웠다.

답답한 고층 건물들, 매연, 소음 속에서 벗어나니 고층건물 대신에 푸르른 나무들과 갖가지 색의 꽃들이, 매연 대신에 상쾌한 공기가 소음대신에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파고 들었다. 이런 것들에 도취되어 있으려니 세상의 근심 걱정들을 모두 씻어버리는 듯 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에서 꽃 피우는 우정이 기차의 저 끝에서 끝까지 퍼져서 가득 메우고 있었다. 신나게 빗속을 헤치며 달리던 기차가 어느새 종착역에 닿아서

우린 내려야만 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데다가 비까지 내리니 사람들이 아예 없었다. 우산 하나로 빗속을 뚫고 발을 디딘 곳은 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등나무가 울창한 곳이었고, 거기에서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기다렸다. 친구는 기차 안에서부터 끼고 있던 반지를 내보이며 예쁘지 않느냐며 손가락을 이리저리 내보이면서 하는 말이 "왜 내가 평소에 끼지 않던 반지를 낀 줄 아니?"하였다.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내보이며 건네 주었다. 풀어보니 다름 아닌 친구가 끼고 있던 반지와 꼭 같은 것이었다. 그 순간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격을 했다. 친구는 우리들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고른 거라며 나의 기뻐하는 모습에 마냥 웃기만 했다. 내 평생 이런 감동적인 일이 또 있을까? 난 친구에게 그저 고맙다라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 이런 광경 속에서 비는 더더욱 세차게 퍼부었고 게다가 바람까지 불어 댔다. 비바람 소리가 내겐 아름다운 노래 소리로 전해 들리는 듯했다.

낯선 곳이라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기차에 올라탔는데 가는 길엔 비는 그치고 해가 얼굴을 내밀었다. 돌아오는 기차안에서 우리는 아무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기만 했다.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영원히 우리 둘만의 추억을 마음 깊숙히 간직할 것이라고.

기차 여행을 다녀온 후 친구와의 우정은 더더욱 깊어졌고, 서로를 더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 긴 여행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돈 주고도 못할 그런 값진 여행을 한 것이다.

여행을 통해서 그 동안 잊고 지내 왔던 자연을 느낄 수 있었고, 참된 친구를 얻고, 참된 친구가 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가슴 뿌듯했다.

흔히 여행이라고 하면 막연히 놀러다니는 것을 연상하고 그래 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놀러다니는 것만이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나처럼 마음 속에 아름다움 하나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생각한 여행이다.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 소중한 그 친구와 그때 그곳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고 싶다. 이것도 지나치는 말이 되지 않도록 꼭 여행을 할 것이다. 그때 쯤이면 오늘의 추억을 떠올리며 회상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

난 말하고 싶다. 여행을 떠나라고, 목적이야 어떻든 간에 여행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으니까 말이다. 지금 당장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진다. 그 무언가를 향하여 우리 모두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

여름 여행

경민여자중학교
2학년 김 서 진

"따르릉."

할머니의 임종 전화다. 이젠 영영 할머니의 '서진아'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좋으신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한참을 울었다.

'보고 싶어요'

마음 속의 할머니 생각은 어느덧 작년 여름을 떠 올리게 한다.

"엄마, 수영복은 어디에 넣어요? 칫솔, 치약은요?"

"좀 가만히 있어……."

여러모로 들떠 있는 나를 어머니께서 나무라신다. 아무 오랫만에 찾는 외가라서인지 마음이 다스릴 길 없이 설레었다.

필요한 것을 챙긴 후에 우리 가족은 드디어 가고 싶은 외가로 향했다.

고속버스를 7시간 타고, 구불구불 산 길을 1시간 동안 마을 버스를 타고 달렸다. 다 와서 내리자 피곤해서 그런지 팔다리의 힘이 주욱 빠졌다.

"엄마 여기가 엄마 고향이예요?"

"그렇단다."

어머니의 고향이라서 그런지 낯설지가 않았다. 무성한 풀밭에 소가 간간이

보이고 개울이 흐르는 매우 조용한 분위기였다.

저 멀리 할머니께서 마을 아주머니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있었다.

"할머니!"

하고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께선

"어이구, 우리 강아지 벌써 이 만큼 컸네!"

하시며 엉덩이를 톡톡 때려 주셨다.

할머니와 함께 논두렁을 걸었다. 할머니 냄새가 물씬 풍겼다. 언제 맡아 보아도 푸근한 냄새.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편안한 냄새랄까? 할머니 품에 한 번쯤 안겨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이 때문인지 할머니가 더욱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다음날이었다.

"엄마, 마을 구경 좀 하고 올께요."

하고 곧바로 내려간 곳이 개울이었다. 수정 같은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자니 내 마음까지 물처럼 맑아지는 것 같았다.

한참 후, 송사리 몇마리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재미로 몇마리 잡아서 준비해 온 사발에 담아 가지고 갔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하고 사발을 앞에 내밀었다.

"그래, 어디 보자."

그때,

"그게 보이시겠어요?"

하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마음 한 구석이 내려 앉는 듯했다.

"할머니 안 보여요?"

울음이 나오는 것을 꾹 참고 말 없이 할머니 품에 안겼다. 마음이 상해서,

"할머니, 내 얼굴도 잘 안 보이시죠?"

하고 뾰루퉁 하게 말하니

"아냐, 누구 자식인데"

하고 웃으신다. 그 소리에 참았던 울음이 왈칵 쏟아졌다.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얼른 닦았다.

그런 나를 할머니께서 말없이 다독거려 주셨다.

그 다음날, 아쉬움을 남긴 채 의정부로 향했다.

그렇게 보낸 여름, 내 마음에 깊게 남아 있는 추억인 여름 여행은 지금 생각해도 한 없이 다시 가고 싶다.

할머니의 냄새가 사라진 지 오래인 지금 나는 언제나 마음 속의 할머니께 안긴다. 예나 지금이나 할머니께선 언제나 다정하게 서진이를 부르시며 다독거려 주신다.

수학 여행

의정부여자중학교
1학년 한 경 숙

일찍 일어난 햇님이 내 방 창문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고서 햇살 웃음을 방안 가득 선사해 주었다. 수학 여행의 설레임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날, 어젯밤 달님은 달콤한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나는 부모님의 조심하라는 당부 말씀에 '네' 하고 우렁차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 들고 학교로 향하는 버스를 탔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게으름을 피우는지……. 혼자서 쫑알 쫑알 불만이 많았다. 학교에도 벌써 말썽 많은 참새들로 가득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 오다가 도망갈 정도였다. 드디어 기다린 관광 버스가 도착했다. 우리는 모두 관광 버스에 올랐다. 운전 기사 아저씨도 우리의 수다에 귀를 막고 출발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우리의 시선에 부끄러워 얼굴 붉히며 고개 숙이고 있었다. 그러나 큰 키로 춤을 추며 우리를 전송하고 있었다. 노래하고 떠들고 우리 반의 웃음복이 이렇게 많은 줄 누가 알았을까?

휴게실에 들러 어머니께서 정성껏 싸 주신 도시락으로 잠시 동안 수다를 잠재웠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다.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살이 찐 벼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산은 가을의 멋에 맞춰 붉고 노랗게 옷을 입었다.

거의 4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려서 부여 낙화암에 도착했다. 낙화암까지 가는 데에는 다리가 꽤 고생했다. 친구와 잡았던 손은 이제 땀을 닦는 데 바빴다.

드디어 고생 끝에 낙화암에 도착했다.

경치와 절경에 입이 닫힐 새가 없었다. 그러나 백제의 꽃 같은 궁녀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버린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3천명의 궁녀를 삼킨 이 강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내 친구들은 나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했는지 즐거운 추억을 만들자며 사진을 찍자고 했다. '김치' 하면서 우리 말썽꾸러기 악동들의 행복과 미소가 카메라에 찍혔다. 피곤한 다리를 끌며 차에 다시 올라 피곤을 풀었다. '부릉' 하는 소리와 함께 백제의 모습은 뒤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잘못을 감추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리고 나는 친구들의 소란 속에서 살짝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주위는 검은 색 물감으로 칠해지고 그 위에 살짝 은빛 가루를 뿌려 놓은 밤이 찾아왔다. 친구들은 그 어둠 속에서 이번에는 사진 잔치를 열었다. 찰칵찰칵 소리에 맞춰 행복한 미소가 입안 가득 흘러 내렸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친구들과 함께 '와' 하며 몰려 나갔다. 모두 숙소에 가방을 놓고 식당 건물에선 우리들의 뱃속 거지들에게 포식을 시켜 주었다. 우리를 이끄는 오빠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한층 흥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식은 '촛불 행사'였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친구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촛불의 불꽃이 환히 보여 주었다. 나도 내 볼을 타고 흐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았다. 부모님께 잘못한 일, 우리를 위해 자존심, 건강을 다 버리시고 힘든 노동을 하시는 부모님, 하늘가에 별들도 오늘은 빛을 잃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 여학생 모두는 눈물을 감출 길을 찾아내었다. 아마 그 친구는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촛불의 불에 의해 희안한 냄새를 내며 타는 것을……. 순식간에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말쯤은 모두 잊어 버린 듯 웃음보를 터뜨렸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빠들에게 한 대씩 맞았지만…… 하지만 촛불이 불에 녹으며 희생한 덕분에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마음 깊이 새겨 놓을 수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동시에 수다 떠는 노동을 다시 시작했다. 안 자겠다던

친구들의 눈도 어느새 스르르 감기고 진짜 우리의 밤이 고요히 찾아 들었다.

"기상, 삑!"

하고 고요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졸린 눈을 비비며 썩은 이를 들키고 말았다. 신선한 공기가 무척 차가웠지만 우리는 달렸다. 곧 이마에 송송 땀이 맺혔다. 아기가 손을 쫙 편 듯한 단풍잎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내가 사는 곳과 정말 달랐다. 아침을 먹는 우리는 유명하다는 화엄사로 향했다. 그 절안으로 들어서자 마자 눈에 들어온 어마어마한 큰 불상의 모습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 뿐이 아니었다. 탑과 절 모두 우리 조상의 뛰어난 솜씨로 이룩된 것이었다. 그 하나하나의 문화재로 우리 조상들의 노력과 솜씨 향취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화엄사를 뒤로 하고 나오는 나의 마음 속에 훌륭한 조상에 대한 뿌듯함이 가득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이 즐거웠던 모든 것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다.

떠나기 전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 대로 배운 것이 많았다. 느낀 것도 많았고 즐거웠던 일도 많았다. 관광 버스 뒤로 우리의 숙소가 아득히 멀어졌다. 어느새 달리는 차 밖에 저 산 가까이 하늘이 붉게 타고 있었다.

설악이 솟는다

경민고등학교
2학년 조 남 선

꿈을 가득 끌어 안은
설악이
하늘로 솟는다.

푸른 바다와 만나고 싶어서
굽은 어깨 활짝 펴
자꾸만 자꾸만 솟아 오른다.

나무들이 일어서고
반짝이는 잎들이 기지개를 켜면
엷은 구름 가슴 가득
싣고서
물결일 듯 춤을 춘다.

푸른 바다에는
새도 날고 태양도 날아
설악은
얼굴 내밀어 손을 담근다.

힘껏 내뻗은 하늘에는
구름이 남겨준 웃음이 있고
예쁜 추억이 있어
바람 사공 젓는 대로
하얀 물거품으로 몰려 다닌다.

우르르
묻혀 있던 꽃망울이 터지고
하얀 구름
가슴 가득 밀려 올 때

꿈을 가슴 가득 끌어안아
설악은
자꾸만 자꾸만 솟아 오른다.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연혁

1961. 12. 31. 한국문인협회 창설.

1992. 1. 3. 한국문인협회 의정부지부 인준.
초대 지부장 : 김안기 한국문인협회 인준.
부지부장 : 김영복, 김재엽, 임금숙
사무국장 : 원종임 감사 : 정창수
상임이사 : 김동률
이 사 : 김영희, 김성년, 조성기, 성용군
제7회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 개최 (22명 선발).

1992. 3월. 김안기 지부장 창작집《늙은 망아지》발간.

1992. 8월. 김영희 이사 수필등단.
향토문예 창작 교실 운영.

1992. 10월. 임금숙 부회장 동시집《엄마 꿈 나의 꿈》발간.

1992. 12월.『의정부 문학』창간호 발간.

1993. 2월. 김성년 이사 제 1시집《따슨 가슴 하나 기다려》발간.

1993. 6월.『의정부 문학』제 2호 발간.

1993. 6월. 김안기 지부장 소설《타불 아멘 알라》발간.

1993. 7월. 원종임 사무국장 시 당선 등단.

1993. 8월. 임영희 자유시협 의정부지부 사무국장 수필 당선 등단.

1993. 10월. 제8회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 개최 (20명 선발).

1993. 11월. 김안기 지부장 개인사정으로 자진 사퇴

1993. 11월. 2대 지부장 김성년 한국문인협회 인준.

1993. 12월. 이성녀 간사『문예사조』수필 당선 등단.

1994. 3월. 김경식 회원『순수문학』시 당선 등단.

회원 주소록

성 명	분과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강경애	수필				수필분과장
강삼미	수필				
김경식	시				
김남일	시				
김성년	시				지부장
김성훈					
김안기	소설				고문
김영국	시				
김영복	수필				부지부장
김영복	소설				간사
김영순	동화				고문
김영희	수필				부지부장
김원석	소설				
김재엽	소설				소설분과장
김창현	소설				
노용희	시				
박금숙	수필				
박영환	시				시분과장
배남규	소설				
배동순	수필				간사
백인희	시				

성 명	분과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백일영	수필				
선우영자	수필				
성용군	시				
신성수	시				
양순이	시				
양정숙	수필				
이도영	시				감사
이성녀	수필				간사
이순옥	시				
이재득	수필				
이창수	수필				
임경자	시				
임금숙	동시				부지부장
임병춘					
임영희	수필				사무국장
임현숙	시				
원종임	시				
윤명희	시				
전정열	시				
조성기	시조				시조분과장
황영애	시				
현지원	시				

편 집 후 기

● 봄이 무르익어가는 때를 즈음하여 제3호가 발간된다.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게 얼굴을 보게 되었으나 새 지부장을 위시한 집행진 모두의 열과 성으로 타 문예지보다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편집되었음에 위안을 갖는다.

● 본 협회 사무실이 의정부2동 581-5에 있는 (주)한국몬테소리 북부지부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회원여러분들이 수시로 찾아 문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로 하였는 바 한국몬테소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문학 평론가이시며 시인이신 김남석 선생님을 모시고 문학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신 중에도 신명나게 강의하시는 김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문학적 수업 쌓기에 열중이신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필을 빈다.

● 이번 호에는 초대시단을 빼고 대신 초대수필과 초대희곡을 실었다. 작품 게재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바 다음호에는 또 다른 장르의 작품을 초대석으로 모실까 한다.

● 제8회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 입상작과 학생백일장 입상작도 특집으로 실었다. 이번 회룡문화제 주부백일장에서 입상하신 주부께서 또한 우리 문협지부 회원으로 대거 입회하였는 바 지역행사이면서 본 협회의 행사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어 지역문화의 창달이라는 의미에서 전재하였다. 많은 도움 있으리라 기대한다.

(재엽)

의정부문학

1994년 봄 제3호

지 은 이 문협 의정부지부 회원
지 부 장 김 성 년
편 집 인 김 영 희
편집위원 박영환·이성녀·임영희

발 행 일 1994년 4월 1일
발 행 인 김 재 엽
발 행 처 한누리미디어
등록 제16-467호 (1993.11.4)
100-193, 서울·중구 을지로3가
282-5 삼성빌딩 501호
전화/268-4514, 4524
FAX/268-4524

값 4,000원

● 본지는 경기도 문예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원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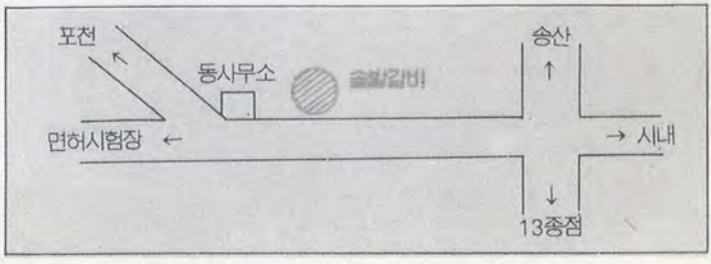
솔밭갈비

대 표 장 광 남

메 뉴

등심, 소갈비, 돼지갈비, 갈비탕, 육회

금오동(꽃동네 입구) 솔밭갈비에서 갈비의 참맛을 즐겨 보십시오. 타업소에서 흉내낼 수 없는 솔밭갈비만의 요리법과 상도덕을 실천하는 종업원들의 써비스에 즐거운 식사 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차장, 연회석 완비, 단체손님 환영)**



의정부시 금오동 331－5 (꽃동네 입구)

전화 : 846－8444, 43－0812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께!

몬테소리 교육법'을 전해 드립니다!

어린이 신체 및 정신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북돋우고 어린이 개개인의 생활 리듬에 맞는 개성 발달을 역설한 '몬테소리 교육'을 이 땅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각 가정의 어머니들께 전해 드립니다.

도서관 이용안내

- 자료 대출
  - 1회 3권 이내,
  기간은 14일 (1주일 1회 연기가능)
  (과학, 어린이, 정보, 작은도서관
  각 3권씩 총 12권 대출가능)
- 대출 연기
  -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기가능
  단, 예약자 있을 때는 불가
- 연체 시 대출정지일
  - 연체일수 X 연체책수
- 도서반납은 대출한 도서관 외에도 의정부시내 도서관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의정부 행복 특별시 **의정부시 지식정보센터**
http://www.uilib.net

아기방
도한 한국적인
테소리아기방./
교재 15종

몬테소리 도리도리방
지식 흡수가 왕성한 유유아기
어린이용 전문 교재./
– 감각 교육용 놀잇감 8가지와
아기그림책 20권, 베이비뮤직

(주)한국몬테소리®
MONTESSORI KOREA CO.,LTD.
주소 : 의정부시 의정부2동 581-5
TEL : (0351)875-8308~9